

2006 • 제22호

ANNUALLY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Cheoksan Spa & Hotel

척산온천호텔(휴양촌)



척산온천호텔(휴양촌)은

1973년부터 한결같이 고온 53°C 천연알칼리성 온천수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옛부터 온천수가 자연 분출되는 연못이 있던 곳...
설악산 정기를 받으며 소나무 숲길을 따라 산림욕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강원도 제1호 온천입니다.

100% 천연 온천수만을 공급하는 온천 대욕장은
남여 9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하고
격조있는 시설로서 다양한 온천 기능탕을 갖추고
깨끗한 시설과 세련된 분위기 창 밖 너머로
솔솔 불어오는 신선한 솔 내음을 맡으며
온천욕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지질연구소의 분석 결과
화학성분 중 특히 불소(F)와 라듐(Rn)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알카리성 온천수로
밝혀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희귀한 온천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척산온천호텔(휴양촌)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972-1
Tel : (033)636-4000 Fax : 636-4007
<http://www.cheoksan.co.kr>



설악의 절경과 동해바다를 설악케이블카와 함께하세요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도를 자랑하는
설악의 케이블카 속에서
울산바위, 노적봉
탁트인 동해바다,
운해, 단풍 등
설악의 변화무쌍한 세계에
흠뻑 빠져보세요.

여러분께 즐거운 추억을
한아름 안겨드릴 것입니다.



설악케이블카주식회사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
TEL.(033)636-4300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ANNUALLY · 2006 제22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 217-010

전화 (033)632-1231, 639-2439 /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http://www.sokcho-history.com>

E-mail : sc2439@sokcho.org

■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노광복

편집인 / 한정규

CONTENTS



cover story

속초등대전망대

■ 권두휘호	박창서 · 6
■ 권두시 / 비선대를 벗어난 끝자락	권정남 · 7
■ 활동해시대의 관광 · 해양 중심도시, 속초 건설	· 8
■ 발간사	노광복 · 9
■ 문예중흥선언	· 10
■ 속초시민현장	· 11
■ 속초시가	· 12
■ 속초시 문화행사	· 13
- 속초해맞이축제	· 14
- 화랑영랑축제	· 15
- 2006 대한민국음악대향연	· 16
- 2006 속초해수욕장 페스티벌	· 18
■ 2006 문화원 동정	· 19
- 제26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20
- 효행청소년	· 22
-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 23
- 청소년 국악전수교육	· 24
-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26
- 강원도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 27
- 청소년 여름방학 교실	· 28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 29
- 강원도민의 날 행사	· 30
-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 32
- 설악미니콘서트	· 34
- 설악문화제	· 36
-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	· 45
- 졸업생 특강	· 46
- 향토문화학교 수료 및 발표회	· 47
- 예술강사지원사업	· 48
- 도문메나리농요 세미나	· 49

발행일 / 2006년 12월 30일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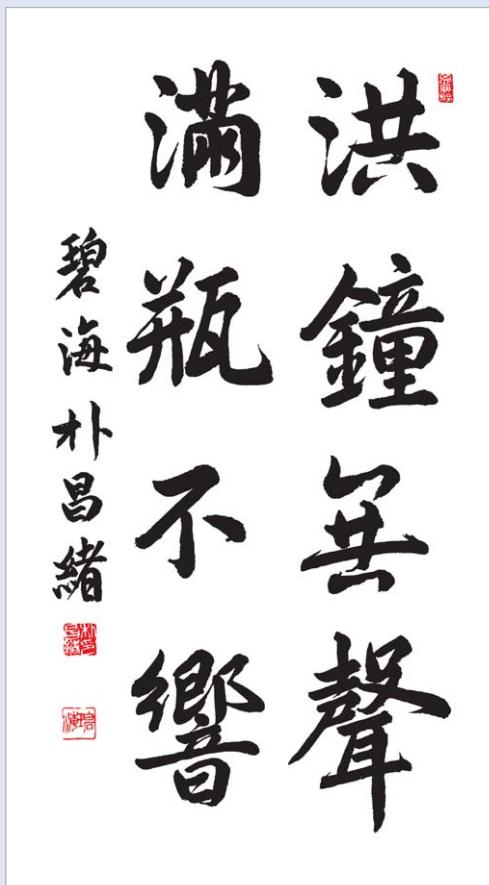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 사진제공 : 속초시문화공보과, 남동광, 옛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등

- 문화강좌	· 50
- 문화원 간행물	· 51
- 2006 해외문화탐방	· 52
■ 특집 문화논단	· 53
-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	전신재 · 54
- 강원도 소리의 모습	신대철 · 65
-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	장정룡 · 72
- 지역인물 / 김용식	엄경선 · 134
- 지역인물 / 산과 인의 영원한 동반자 이기섭 박사	노광복 · 140
- 부동산 투자 전략과 시장 트렌드	최평규 · 143
- 건강 도시 속초에 바라는 제언	허춘권 · 147
- 향토문화체험장 속초시립박물관	정종천 · 150
- 문화탐방 / 동유럽을 다녀와서	노광복 · 153
- 속초등대 해양친수 문화공간 조성	· 164
- 여름방학 별자리 체험프로그램	김은중 · 168
■ 속초시 문화상	· 171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임 · 직원	· 174
- 회원	· 175

권두휘



풀어주는 이야기

洪鐘無聲, 滿瓶不響

큰 종은 군소리를 내지 않고
가득한 병은 출렁이지 않는다.



벽해(碧海) 박창서(朴昌緒)

- 1964~1980 변호사
- 2000. 3. 서예 입문
- 현,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서예교실 회원

권두시



‘1950년대 말 설악산 소공원일대’ 『옛 사진으로 보는 속초의 발자취』 중에서

황금 숲을 빠져 나오다

비선대를 벗어난 끝자락

가을 햇살에 숲은 황금빛이고
바람이 불어 올 때마다 나무들은
팔과 다리에 금전을 매단 채
쩔렁쩔렁 소리를 내고 있다.
산을 내려오는 내 몸에도
낙엽 벼석이는 소리가 난다

상수리나무와 자작나무 숲을
빠져 나오니
내 살아온 길들이 보인다
더러는 돌멩이와 낙엽이 깔려 있고
색색 나뭇잎 사이로 손거울 같은
파란하늘도 엿혀있다

숲과 길의 갈림길에
황금 해를 걸치고 내가 서 있다.
어두웠던 숲이 환해진다
바람이 불어 올 때마다
나무의 팔과 다리에 매달린
금전이 흔들리는 소리
쩔렁쩔렁
내 생이 흔들리는 소리



권정남

- 1987년 ‘시와 의식’ 신인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강원문인협회, 설악문우회원으로 활동
- 시집 『속초바람』, 『서립 속의 사진 한 장』

활동해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 속초 건설

심볼 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묻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시록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펴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화



국화

국화는 번식률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조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발간사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병술년(丙戌年)의 아쉬움도 서서히 뒤로한 채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희망찬 포부와 열망 속에 문화예술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은 역사와 문화가 상충하는 새로운 강원문화의 또 다른 실천되는 의미 있는 해로, '함께하는 문화, 공존하는 문화 기틀 조성'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문화는 단순한 전수가 아닌, 우리의 것을 활용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의식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문화와 기본문화를 키우고 계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가 필요로 하는 문화는 무엇보다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기본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문화이기에 기초문화가 튼튼해야 전통적 문화계승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화 정착과 발전된 문화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문화지킴이를 만드는데 문화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풍조가 혼란스러워서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적 소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할 줄 아는 것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제 속초문화 22호를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함께하는 문화, 서로 즐겁게 생활하며 계승하는 인간적 문화 공간조성과 함께 한해의 마감을 하나로 둑어 문화가족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는 해의 아쉬움은 추억이지만 밝아오는 해는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속초문화원을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2호를 위해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肓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的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的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
도록 힘쓰며, 文化的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시민현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엄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초시민일동

속초시가

$\text{♩}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mf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침해 떠오르 고
3. 신 - 홍 사 종 소리 에 새벽 잠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에 펼 - 치 네
천 - 불 동 꿀 - 짜 기 에 친구 름 몸을 묻 네
이 슬 것 은 발 - 길 로 바 닷 가 거 널 어 라

mp

정 성 과 보 - 람 으로 다 족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 라 보 니
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mf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넋 이 그 - 육 허겁지 지 네
함 - 구 에 뮤 인 배 가 대양으로 차 비 하 네

f

가 자 배 를 젓 - 자 산으로 바다향 - 해

f

우 리 얼 깃 - 든 곳 여기 가내 고 - 향



2006

속초시 문화 행사

2006 속초 해맞이 축제



내해 福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2006! 소원성취 한마당

속초해수욕장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주 행사장



• Adieu 2005

2005년의 일들을 영상으로 담아 음악과 나레이션을 통한 감동과 희망을 연출



• O.S.T 연주회

드라마영상과 OST가 뮤직비디오를 연상



• 바다불꽃쇼

바닷가 해변에서 음악과 함께 연출



• 애견 콘테스트

예쁜 강아지들 모여 한껏 뽐내기

• 어선 퍼레이드

뱃고동 소리와 오징어잡이 조명을 이용한 공연

• 신년메세지

인기 연예인의 동영상 신년 축하 메세지

• 희망콘서트

희망을 표현하는 신나고 즐거운 열정의 무대

• 2006 soul Train

전자현악 그룹의 신비하고 경쾌한 퓨전 공연

• 이미테이션 공연

국내 인기가수의 이미테이션 공연

• 희망 날리기

소망메세지를 담아 높이 풍선 날리기

• 해맞이

감동과 희망메세지를 미래로...

해맞이를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조 행사장 – 설악해맞이공원

• 희망 날리기

한해의 소망메세지를 풍선에 담아 드높은 하늘로 날리며...

• 해오름합성

우렁찬 합성속에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희망의 마음으로 한해의 소망을 기원

• 사물놀이

어둠속에 펼쳐지는 힘찬 전통 풍물놀이

화랑영강축전 2006년 제2회

봄의 향기,
아름드리 하늘 꽃구름을 뒤덮는 화사한 벚꽃과
민족 고유 화랑의 전통문화와 향기를 느껴보세요.



● 기간: 2006년 4월 15일(토) ~ 4월 16일(일) ● 장소: 속초시 영랑호 일원
● 주최: 속초시 ● 문의: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T.(033) 639-2143~4



봄의 향기와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 일 시 : 2006. 4. 15(토) 오후 7시
- 장 소 : 문화회관대강당
- 주 관 : 세종예술음악회 / 한국예술속초지부
- 출연진 : 슬기동, 시립합창단
- 행사내용 : 전통과 현대, 예술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풍성음악
- 관람료 : 무료



2006년 제2회

화랑영강축전

미니공연

- 사물공연 : 2006. 4. 15(토) 10:00 / 속초시립풀단
- 2006. 4. 16(일) 17:00 / 속초시립풀단
- 한국무용 : 2006. 4. 15(토) 10:10 / 양숙희무용단
- 모듬복공연 : 2006. 4. 16(일) 10:00 / 나은문화마을풀스리
- 관악합주 : 2006. 4. 16(일) 10:30 / 영랑초등학교
- 오케스트라공연 : 2006. 4. 16(일) 13:00 / 성음이학원
- 카누시연 : 2006. 4. 15 ~ 4. 16(2일간) / 속초시청 카누팀

전통놀이 문화

- 기 간 : 2006. 4. 15 ~ 4. 16(2일간)
- 주 관 : 갯마당 / 속초문화원
- 행사내용 : 굴렁쇠, 투호, 널뛰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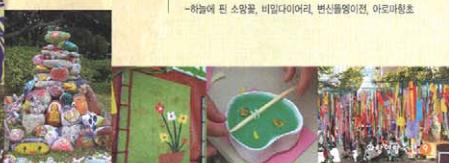
제5회 설악걸강달리기 대회

- 일 시 : 2006. 4. 16(일) 11:00 출발
- 장 소 : 영광봉반 일대
- 주 회 : 속초시 -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 주 관 : 속초시 인력반 등호회
- 경기종목 : 강간경(7km), 대경정
- 접수방법 : 인터넷 - 시민접수
- 경기요소 : 영광봉반도로 1회 순환
- 참 가 비 : 1인당 1만원
- 참가자특전 : 기념품제공, 우수상, 특별이벤트상
- 후수상 : 1위 20만원, 2위 10만원, 3위 5만원, 남녀각 1명(배)
- 문 의 : 637-6561, 639-2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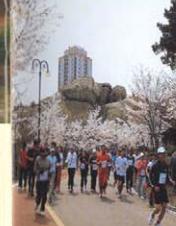
「당신도 예술가」 한마당

- 기 간 : 2006. 4. 15 ~ 4. 16(2일간)
- 주 관 : 궁금문화개발센터 유일아트
- 행사내용 : 생활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체작
- - 하늘에 된 소망글, 비밀다이어리, 벚꽃영이전, 아로마창초



제2회 인라인 마라톤대회

- 일 시 : 2006. 4. 16(일) 10:30 출발
- 장 소 : 영광봉반 일대
- 주 회 : 속초시 -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 주 관 : 속초시 인력반 등호회
- 경기종목 : 강간경(7km), 대경정
- 접수방법 : 인터넷 - 시민접수
- 경기요소 : 영광봉반도로 1회 순환
- 참 가 비 : 1인당 1만원
- 참가자특전 : 기념품제공, 특별이벤트상
- 문 의 : 637-6561, 639-2535



2006년 제2회

화랑영강축전

고(古) 무기 · 장식품 전시회

- 기 간 : 2006. 4. 15 ~ 4. 16(2일간)
- 주 관 : (시)한민족 전통마술박물관 · 각구협회
- 전시내용 : 쟁강, 징무기, 부사상, 마사 등 100여점



마차 타고 영랑호 벚꽃길 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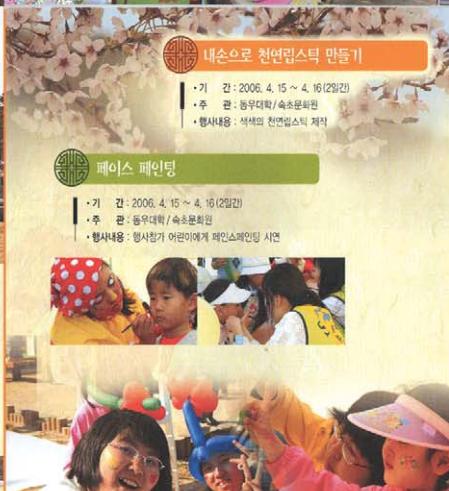
- 기 간 : 2006. 4. 15 ~ 4. 16(2일간)
- 주 관 : (시)한민족 전통마술박물관 · 각구협회
- 행사내용 : 영랑호반을 배경으로 한 전통마차타기 체험



화랑도 제례

- 기 간 : 2006. 4. 15 ~ 4. 16(2일간)
- 주 관 : (사)한민족 전통 미술무예 · 각구협회
- 행사내용

 - 습미 - 활쏘기, 보격구, 총차, 투식기 - 표창단지기 체험
 - 전통검무 - 불술시연 및 대련, 밀 먹이주기
 - 화랑복식 입고 1일 최봉 영랑되기, 무로사진촬영



페이스 페인팅

- 기 간 : 2006. 4. 15 ~ 4. 16(2일간)
- 주 관 : 동우대학 / 속초문화원
- 행사내용 : 어린이에게 페이스페인팅 시연





2006 대한민국 KOREA MUSIC FESTIVAL IN SOKCHO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한여름밤 뮤직페스티벌!
환상의도시 속초에서 만나요!

- 기 간 : 2006.8.12(토) ~ 8.17(목)
- 장 소 : 강원도 속초(청초호 유원지)
- 주 죠 : 속초시
- 주 관 : CJ Media Mnet KBS
- 후 원 : 문화관광부 · 강원도
- 문 의 : 속초시청 문화공보과 T.(033)639-2792~5

<http://koreamusicfestival.net>



공연

날짜

장소

청초호유원지

8.12



8.13



8.14



개막공연 <속초판타지아>

속초에서 펼쳐지는
음악 대향연...
그 성대한 시작!

공연시간 : 오후9시~11시
출연 :

장윤정, 테너 임웅균,
마야, 이정, 백지영,
바다, 이정현, 이지혜,
걸프렌즈 등

MC : 최은경 아나운서

젊음의 축제 <다이나믹코리아>

대한민국을 이끄는
다이나믹 파워!
젊음 그리고 음악!

공연시간 : 오후9시~11시
출연 :

슈퍼주니어, 크라잉넛,
다이나믹 듀오, 양동근,
Mary M, V.O.S, 서인영,
업타운, 스키조, 박현빈,
럼블피쉬 등

MC : 서인영, 장근석

OST콘서트 <OST파라다이스>

영화, 드라마, 뮤지컬
그 열정, 그 감동
OST 천국으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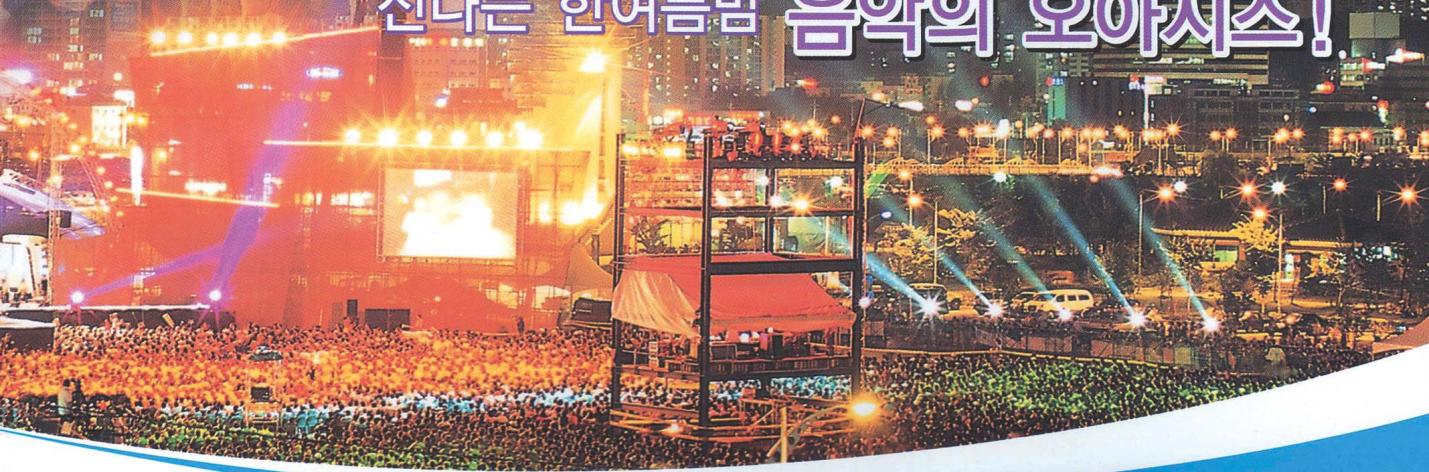
공연시간 : 오후9시~11시
출연 :

김종서, 스윗 소녀
화요비, 박혜경
이현우, 서문탁
델리 스파이스,
풍경(자탄풍) 등

MC : 정지영 아나운서

KOREA MUSIC FESTIVAL IN SOKCHO 2006

아름다운 피서지와 함께 하는
신나는 한여름밤 음악의 오아시스!



일정 ☆☆

■기간: 2006. 8.12(토) ~ 2006. 8.17(목)

월

8.15 화

8.16 수

8.17 목

7080콘서트 <메모리즈>

아련한 기억속 멜로디
그 시절 그 음악...
추억의 음악여행!

공연시간 : 오후9시~11시
출연 : 이선희, 샌드퍼블스,
송골매, 건아들, 유열,
최성수, 라이너스,
김종환, 휘버스 등
MC : 유열

빅스타콘서트 <Hero>

국민가수 패티김과
감미로운 SG워너비가
선사하는 환상의 하모니!

공연시간 : 오후9시~11시
출연 : 패티김, SG워너비

페막공연 <네버엔딩 페스타>

멈추지 않는 열정!
끝나지 않는 감동!
끝없는 음악 향연!

공연시간 : 오후7시40분~9시40분
출연 : 슈퍼주니어, SG워너비,
싸이, 씨야, 캔, 듀크,
별, V.O.S, 김현정 등
MC : 슈퍼주니어

• 위 공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막축하공연

Real DMB ch.31 Bugs

2006 속초해수욕장 '고유진의 음악 스토클' 8.7(월) 20:00 ~ 23:00 / 야외무대

진행 : 고유진

본방송 : 8.9(수) 22:00 ~ 24:00

재방송 : 8.10(목) 14:00 ~ 16:00

초청가수 : 켄, 임타운, 박성칠, 리아, 한나, 채영인 외 인기 가수 충 출동

※상기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대행사

드림모션 가요제 8.8(화) ~ 8.10(목) 20:30 ~ 22:00 / 야외무대

[예선 일시 및 장소 : 8.8(화) ~ 8.10(목) 15:00 ~ 19:00 / 야외무대]

3D 모션캡쳐 기술과 함께 하는 가요제

일렉트릭 콘서트 8.8(화) 20:00 ~ 20:30 / 야외무대

팝페라 일렉트릭 공연 (공연팀 : 솔리스트)

퓨전 콘서트 8.9(수) 20:00 ~ 20:30 / 야외무대

퓨전 국악 공연 (공연팀 : 금슬지락)

세대공감 콘서트 8.10(목) 20:00 ~ 20:30 / 야외무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

Sempre 밴드 콘서트 8.10(목) 19:30 ~ 20:00 / 야외무대

서울경의중학교 그룹사운드

B-Boy Festival 8.8(화) ~ 8.10(목) / 야외무대

브레이크 댄스 퍼포먼스

속초공강래크레이션 8.8(화) ~ 8.10(목) / 야외무대

래크레이션 및 퀴즈

속초해수욕장 영화제 8.8(화) ~ 8.10(목) 22:00 ~ 24:00 / 야외무대

야외 가족 영화 상영

유비쿼터스 체험행사

**속초해수욕장 전 지역 초고속 무선 인터넷 Zone 조성
위성 DMB방송 서비스**

얼리어답터 Zone 8.8(화) ~ 8.11(금) 10:00 ~ 18:00 / 야외 상설 행사장

무선 인터넷 노트북, MP3, 위성 DMB 핸드폰 무료 체험 행사

제6회 Korea B3 Games in SOKCHO



제6회 Korea B3 Games in SOKCHO

8.8(화) ~ 8.10(목) 10:00 ~ 19:30

종목 : B3(Bike, Board, Blade)

Game Zone 및 기타 부대행사

Game Zone

8.8(화) ~ 8.11(금) 10:00 ~ 18:00 / 야외 상설 행사장

자율 PC 및 아케이드게임 Zone

기타 부대행사

8.8(화) ~ 8.11(금) 10:00 ~ 18:00 / 야외 상설 행사장

페인팅 및 포토서비스 등

사진으로 / 보는

2006 문화원 / 동정



제26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우리민족 최대의 세시풍속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2월 12일(음력 1월 15일)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면서 1만5천여 시민 및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금번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문화관광부 세시민속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 기존행사와는 차별화된 내용구성으로 우리 민속에 대한 이해를 돋고,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한층 다가선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잔치로 마련됐다. 특히 속초지역의 민속놀이였던 “논뫼호불꽃놀이”를 재현하여 선뵈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더욱 빛난 행사로 기억되었다.

- 일 시 : 2006. 2. 12 (일) 15:00 ~ 17:00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최 : 속초시 · 속초문화원
- 주관 : 농협중앙회(속초시지부)외 7개 기관 및 단체
- 후원 : 문화관광부,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 내용 : 전통민속 재현 및 각종 민속놀이 체험 · 경연(14개행사)

행사종목	행 사 내 용	주 관
연날리기	방패연, 가오리연, 창작연부문	속초시 수협
제기차기	놓고차기, 들고차기 합계	설악한화리조트
널뛰기	3인 1조 단체전 널뛰기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윷놀이	3인 1조 단체전	속초신협
투호	여성 3인 1조 단체전	속초양양축협
떡메치기	동대항전 떡메치기	새마을금고연합회
지신밟기	횃불행진, 도리원농악공연	갓마당
액집태우기	대형 액집태우기 1개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논뫼호불꽃놀이	유등 10개, 청초호변에 설치 운영	
가훈써주기	행사장에 찾아온 시민 및 관광객 대상	
한해운수보기	행사장에 찾아온 시민 및 관광객 대상	
민속놀이체험	연, 제기, 소원종이배 만들기 체험	
부럼깨물기	귀밝이술 나눠주기, 호두, 잣 깨물기	



▲ 액집태우기



▲ 가훈써주기



▲ 연날리기



▲ 떡매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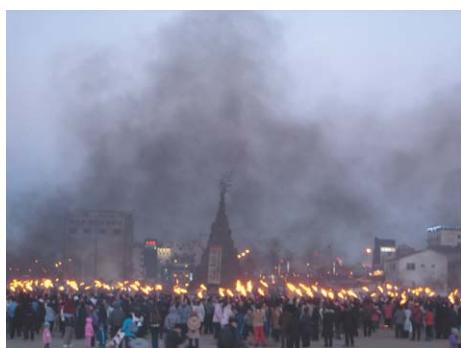
▲ 지신밟기



▲ 제기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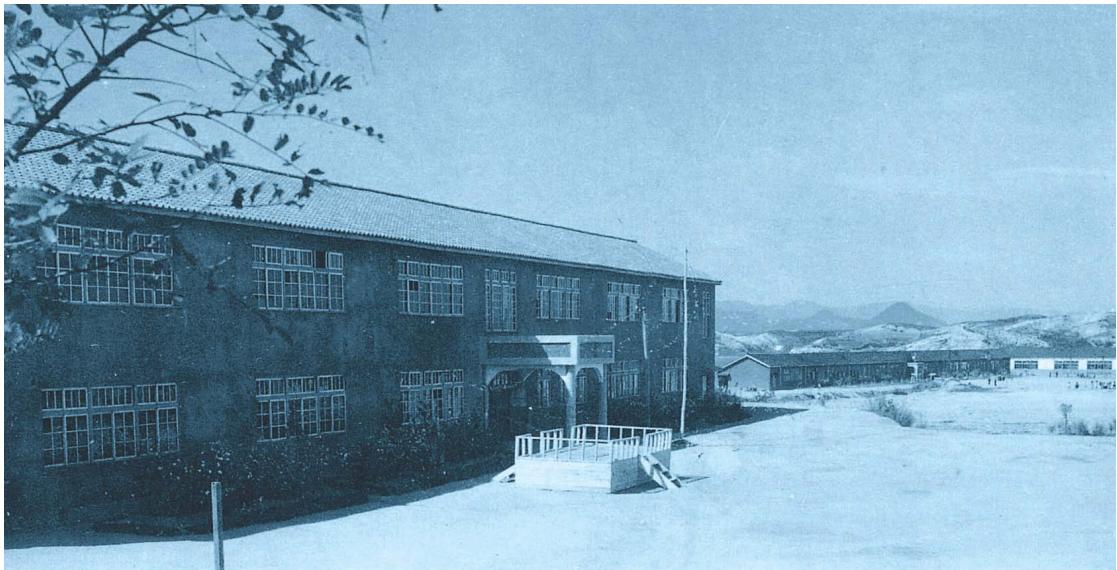


▲ 논보호불꽃놀이



▲ 지신밟기

2006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에서는 지난 2월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관내 15개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사회봉사 실적이 뛰어난 청소년에 대하여 효행청소년 시상을 하고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학 교	표창자	학 교	표창자
교동초등학교	박광호	중앙초등학교	최정규
대포초등학교	임다정	청대초등학교	이수빈
설악초등학교	박용웅	청호초등학교	이아라
소야초등학교	김미경	설악여자중학교	이석영
속초초등학교	윤호범	속초여자중학교	원혜민
영랑초등학교	박지수	설악중학교	홍성민
온정초등학교	조환희	속초중학교	이선권
조양초등학교	김누리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한국문화학교 2006년 제14기생

- 입교식 : 2006. 3. 13

- 수료식 : 2006. 12. 1



운영과목

장구초급	월, 목 / 10:00~12:00	강사 / 임희영
사물놀이	월, 목 / 13:00~15:00	강사 / 임희영
한지공예	수 / 13:00~15:00	강사 / 이진향
서예교실	화, 금 / 10:00~12:00	강사 / 지응준
노래교실	화, 금 / 13:30~15:30	강사 / 최봉하
북청사자놀음	화 / 18:00~22:00	동선분, 동선백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 639-2439



2006 청소년 전통국악전수교육

청소년 전통국악전수교육은 2000년부터 매년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 전통 민속 문화관람 및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회복과 지역 향토 사랑의 기회로 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고 학교교육에서도 풍물 및 전통예술과목이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문화적 감성보다 주입식 입시 교육과 과외 공부에 얹눌려 풍부한 문화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국악전수교육은 우리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관람을 통한 그 생활 속에 우리문화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한마당으로 그 뜻을 다하고 있다.

2006년 국악전수교육은 지난해와 달리 학교에서 개최하던 것을 속초시립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직접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사업기간 : 2006년 3월 ~ 12월
- 사업주최 : 속초시 · 속초문화원
- 사업장소 : 속초시립박물관
- 내용 : · 교육주기 및 횟수 : 주1회(수요일) 총 13회 실시
 - 교육내용 : 공연(사물놀이, 판굿),
민속놀이(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줄넘기)
우리민속춤 배우기(봉산탈춤, 소고춤)

시간계획	행사내용	비고
09:00~09:30	학교 → 시립박물관 이동	Bus
09:30~09:40	인원점검 및 교육준비	
09:50~10:20	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관람	문화해설사
10:30~11:10	전통공연감상(판굿, 사물놀이)	시립풍물단
11:20~11:40	전통민속춤 배우기(봉산탈춤, 소고춤)	
11:50~12:30	민속놀이체험(제기차기, 굴렁쇠 외)	
12:40~	시립박물관 → 학교로 이동	





제11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속초문화원 사물놀이 주부풍물단 18명 참가



지난 7월 7일 오후 1시,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고 동해문화원이 주관한 제11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가 18개 시·군 문화원 문화가족 및 수강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도내 18개 문화원에서 운영중인 문화학교 풍물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로 마련, 해를 더할 수록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수준 높은 대회로 기억되었다.

속초문화원 사물놀이 주부풍물패는 매년 새로 구성된 팀이 참가해 대상, 최우수상, 은상, 동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였으나 금년도는 참가팀 모두 기량이 높아져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팀의 화합과 연주실력을 입증 받아 향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넣으면서 다음대회를 기약했다.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대회의 의미보다 강원도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그 뜻을 더하고 있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06 제10회 청소년 여름 풍물학교

- 일 시 : 2006년 7월 24~29일
- 장 소 :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속초시박물관
- 주 최 : 속초시 · 속초문화원
- 주 관 : 속초시박물관,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내용

구 분	강 사	교육내용
풍 물 강 좌	풍물기초반	신우근 (속초시립풍물단원) · 풍물놀이란 무엇인가? · 악기의 기본타법과 연주법 · 가락의 구성과 종합설기
	사물놀이반	김동연 (속초시립풍물단원) ·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 사물놀이의 구성원리
	설장구반	전성호 (속초시립풍물단 악장) · 설장구 가락 익히기 · 장단의 변형과 운용 · 설장구 가락의 흐름이해
	판굿반	정철기 (국악협회농악부위원장) 박치영 (속초시립풍물단원) · 판굿의 흐름 · 기본 너름새 익히기 · 판굿 구성의 기본원리
	상모반	김태희 (속초시립풍물단원) · 상모기초 · 소고놀이
공 통 강 좌	단소/민요	주동진 (속초시립풍물단원) · 단소운지법과 소리내기 · 태평소 운지법과 소리내기 · 연주의 실제
	탈춤/택견	박현기 (민족무예24반 동해지부장) · 기본 몸풀기 · 탈춤 기본무/택견 기본 품새
	문예강좌	최태수 (상명대학교 강사) · 전통문예강좌 및 국악이론 강좌





2006 어린이 여름방학 교실

속초문화원 어린이 문화교육단 2기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한 어린이방학 프로그램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본 행사는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주최하고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수, 치열한 경쟁 속에 30명의 어린이 문화교육단 2기를 배출했다.



- 교육기간 : 2006. 7. 31 ~ 8. 11(2주간)
- 교육장소 :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및 석봉도자기 미술관
-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생 30명
- 교육내용 : 어린이 장구교실, 단소교실, 민속춤배우기, 풍선아트, 종이접기,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체험, 탈그리기



2006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여름 “별자리 체험 프로그램”
겨울 “전통문화 전수 프로그램”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마련한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 색다른 사업으로 전개됐다. 금번 사업은 지역의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업에 지친 학교교육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여름과 겨울방학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구성,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심과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로 “별자리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전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교육기간 : (여름방학) 횡성 우리별 천문대 “별자리 체험”
 - 1차 : 7월 22 일 ~ 23 일 (1박 2일) 30명
 - 2차 : 7월 28 일 ~ 29 일 (1박 2일) 30명
- (겨울방학)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전통문화 전수”
 - 1월 8일 ~ 11일(3박 4일) 80명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함께, 또 다른 속초여행”

제12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강원도 사랑과 속초지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랑 문화 창출을 유도하고 또한 건강한 심신수양을 위해 속초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참가자 모두 겪는 행사와 더불어 함께하는 체험형 문화행사로 개최됐다.

- 행 사 명 :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함께, 또 다른 속초여행” In Sokcho, I'm happy
- 일 시 : 2006. 7. 8(토) 10:00~13:00
- 장 소 : 청호동 및 속초시립박물관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후 원 : 강원도,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
- 참가대상 : 지역 주민 및 청소년 150명
- 행사내용 : 갯배체험, 청호동 문화 배우기, 속초시립박물관 관람
민속놀이 및 문화공연 감상, 가족 사생대회



“속초시민 화합 한마당”

- 행 사 명 :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속초시민 화합 한마당”

- 강원도 세상, 그 중심에 우뚝 선 속초

- 일 시 : 2006. 7. 25(화) 19:30~

- 장 소 : 청초호유원지내 상징탑 광장

- 주 죄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후 원 : 강원도

- 행사내용 :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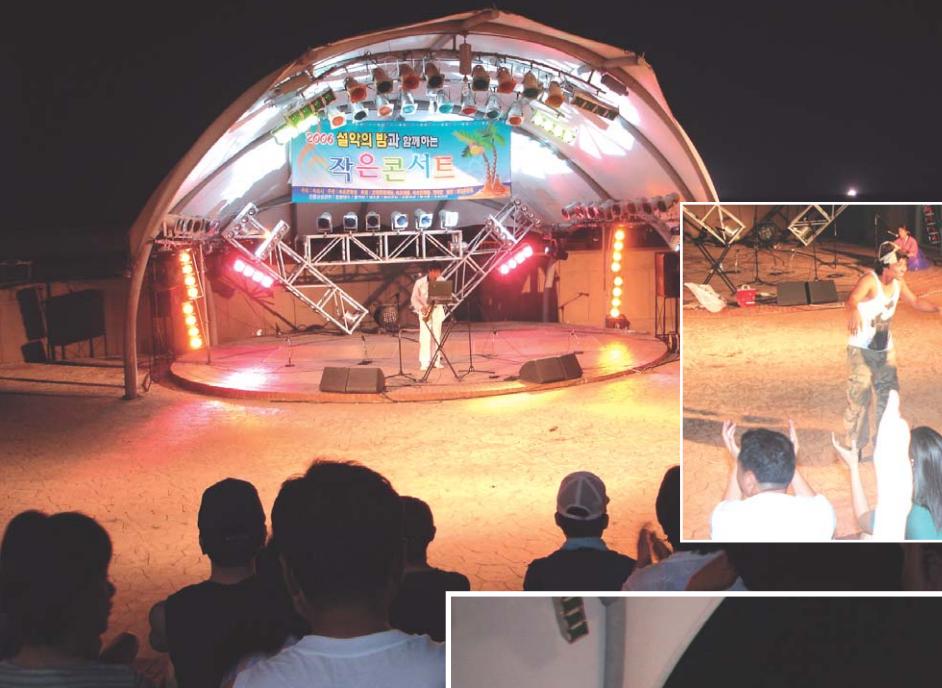
취타대(속초초등 취타대), 무용공연(신천무용단), 북청사자놀음 공연
지역가수(어필, 추예인), 전자현악그룹 ‘샤인’, 초청가수 공연(소찬휘)





2006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 행사일시 : 7월부터 8월까지 (총12회)
- 행사장소 : 설악해맞이 공원 야외공연장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후 원 : 강원문화재단
- 관람대상 :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관람인원 16,900명)
- 행사내용 : 7/22 전통상설공연, 힙합댄스, 통기타, 지역가수, 색소폰, 품바공연
 7/23 전통상설공연, 지역가수, 색소폰, 통기타, 사물놀이, 품바공연
 7/29 사물놀이, 힙합댄스, 짹즈초청공연, 전통상설공연
 7/30 힙합댄스, 전통무용, 통기타, 지역가수, 색소폰, 전통상설공연
 7/31 힙합댄스, 색소폰, 락그룹, 전통상설공연
 8/ 2 힙합댄스, 전통무용, 통기타, 지역가수, 색소폰, 전통상설공연
 8/ 3 전통무용, 색소폰, 통기타, 락그룹, 전통상설공연
 8/ 5 전통상설공연, 전통무용, 통기타, 국악협회초청공연
 8/ 6 전통상설공연, 통기타, 지역가수, 고구려예술단
 8/13 전통상설공연, 힙합댄스, 색소폰, 지역가수, 사물놀이, 품바공연
 8/20 전통상설공연, 사물놀이, 색소폰, 통기타, 품바공연
 8/26 전통상설공연, 전통무용, 색소폰, 통기타, 품바공연





2006 한여름밤의 미니콘서트

- 행사일시 :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8회)
- 행사장소 : 청초호 유원지 상징탑광장
- 주 쇄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행사내용
 - 전통과 소리(音色) 8. 4~6
 - 8. 4 소리&만남(기원<비나리-빈순애>, 시립풍물단, 신천무용단)
가족영화 - 찰리의 쵸콜릿 공장
 - 8. 5 강원도 세상(도문메나리농요, 강원도립예술단)
가족영화 - 샤크
 - 8. 6 소리와 퓨전(북청사자놀음, 드럼캣, 색소폰 연주, 어필)
가족영화 - 퍼펙트 스톰
 - 즐거움+상상(上相) 8. 7~9
 - 8. 7 음악 이야기(사물놀이-갯마당, 고구려예술단)
가족영화 - 슈렉2
 - 8. 8 음악 즐기기(힙합댄스, SOME, 인디밴드)
가족영화 - 아이 엠 셈
 - 8. 9 함께해요.(어필, 추예인, EXTM, 잼스틱)
가족영화 - 12명의 웬수들
 - 함께, 또다른 약속(約束) 8. 10~11
 - 8. 10 다함께 뜨거운 음악파티
(힙합댄스-라스트 포 원, 인디밴드 초청가수-한영애)
가족영화 - 말아톤
 - 8. 11 아쉬운 약속과 함께(판굿-갯마당, 블랙홀, 바다)
가족영화 - 우주전쟁



▲ 비나리



▲ 속초시립풍물단



▲ 속초시립풍물단



▲ 신천무용단



▲ 도문메나리농요



▲ 강원도립예술단



▲ 고구려예술단



▲ 락공연 - 블러디쿠키



▲ 전자현악 - SOME



▲ 퓨전타악 - 드럼캣



▲ 초청가수 - 한영애



▲ 초청공연 - 블랙홀



▲ 북청사자놀음



▲ 영화상영

제4회 설악문화제

제4회

한국관광1번지 속초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간 : 2006. 10.12(목)~15(일), 4일간

● 장소 : 청초호 유원지, 설악산, 중앙시장

* 주최 : 속초시 · 설악문화제위원회

* 주관 : 각 추진위원회, 기관, 단체

* 후원 : 문화관광부 · 강원도

* 문의 : 설악문화제위원회 033-635-8827, 632-1231

<http://www.seorakfestival.com>

행사 일정표

첫째날 10월12일(목)	제례 전시	설악산신제 옹왕제 성황제 분재전시회,우리꽃 전시회	설악산 소공원 설악해맞이 공원 동명동 성황당 청초호 행사장	10:00~12:30 14:00~15:30 17:00~17:30 11:00~22:00
		망향과 통일기원제 제등행렬 삼신합동제 논뫼호 불꽃놀이 개막공연(공개방송) 불꽃놀이 분재전시회,우리꽃 전시회	수복탑 광장 속초 일원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주무대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16:00~17:00 18:00~19:00 18:00~19:00 19:30~22:00 20:00~21:30 21:30~ 11:00~22:00
		조전제 논뫼호 불꽃놀이 마상무예 시연 도문메나리 농요 시연 라이브콘서트(3인 3색) 훈춘소년예술단 초청공연 전국바다낚시대회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풍물) 강원도청소년댄싱대회 전국갓배끌기(예선) 오징어 할복대회 흔들바위 굴리기대회 송편빚기대회 흔들바위 굴리기(외지)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주무대 중앙시장 특설무대 속초해수욕장 중앙시장 특설무대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수변경기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09:00~10:00 19:30~22:00 10:30~11:00 11:00~11:30 20:00~21:30 16:30~17:30 07:00~13:30 10:00~15:00 17:30~19:00 10:00~18:00 11:30~12:30 12:30~14:00 14:00~16:00 16:00~18:00
둘째날 10월13일(금)	공연 전시	조전제 논뫼호 불꽃놀이 마상무예 시연 도문메나리 농요 시연 라이브콘서트(3인 3색) 훈춘소년예술단 초청공연 전국바다낚시대회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풍물) 강원도청소년댄싱대회 전국갓배끌기(예선) 오징어 할복대회 흔들바위 굴리기대회 송편빚기대회 흔들바위 굴리기(외지)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주무대 중앙시장 특설무대 속초해수욕장 중앙시장 특설무대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수변경기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09:00~10:00 19:30~22:00 10:30~11:00 11:00~11:30 20:00~21:30 16:30~17:30 07:00~13:30 10:00~15:00 17:30~19:00 10:00~18:00 11:30~12:30 12:30~14:00 14:00~16:00 16:00~18:00
		조전제 송신제 논뫼호 불꽃놀이 시민강좌발표회 2006 통일가요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훈춘소년예술단 초청공연 불꽃놀이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농악) 전국갓배끌기(16강~결승) 청룡 황룡 겨루기 울산바위 힘겨루기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중앙시장 특설무대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주무대 청초호 주무대 청초호 행사장 설악산 일원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수변경기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09:00~10:00 18:00~19:00 19:30~22:00 13:00~14:30 15:00~17:00 19:30~20:30 20:30~21:30 21:30~ 08:00~16:00 10:00~13:00 11:00~18:00 11:30~13:30 14:00~17:00
		조전제 논뫼호 불꽃놀이 시민강좌발표회 2006 통일가요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훈춘소년예술단 초청공연 불꽃놀이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농악) 전국갓배끌기(16강~결승) 청룡 황룡 겨루기 울산바위 힘겨루기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중앙시장 특설무대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주무대 청초호 주무대 청초호 행사장 설악산 일원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수변경기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09:00~10:00 18:00~19:00 19:30~22:00 13:00~14:30 15:00~17:00 19:30~20:30 20:30~21:30 21:30~ 08:00~16:00 10:00~13:00 11:00~18:00 11:30~13:30 14:00~17:00
넷째날 10월15일(일)	대회	조전제 송신제 논뫼호 불꽃놀이 시민강좌발표회 2006 통일가요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훈춘소년예술단 초청공연 불꽃놀이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농악) 전국갓배끌기(16강~결승) 청룡 황룡 겨루기 울산바위 힘겨루기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중앙시장 특설무대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주무대 청초호 주무대 청초호 행사장 설악산 일원 중앙시장 특설무대 청초호 수변경기장 청초호 행사장 청초호 행사장	09:00~10:00 18:00~19:00 19:30~22:00 13:00~14:30 15:00~17:00 19:30~20:30 20:30~21:30 21:30~ 08:00~16:00 10:00~13:00 11:00~18:00 11:30~13:30 14:00~17:00

부대 행사 : 10월 14일~15일

청초호 행사장
10:00~22:00

분재전시회,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건오징어·아채공예, 도자기체험, 한지공예
농촌문화체험, 당신도예술가, 찾아가는 국립공원, 무료사진 캡쳐, 오징어시식회
팔도음식시식회, 6·25음식 회상전, 어선무료승선체험 등

설악산 소공원
10:00~17:00

훈춘촬영가협회 초청사진전, 페이스페인팅, 설악의 사계포토존, 천연향수만들기
꽃누르미 전시 및 체험, 설악 아동화 거리전 등

중앙시장
10:00~18:00

시민강좌 작품전시회, 2006 통일시화전 등



설악산악제

제 레



- 산신제 2006. 10. 12(목) 10:00~ / 설악산 소공원 산신제단
설악소사 재현(지역발전 및 통일, 산악인 무사안녕 기원)

- 용왕제 2006. 10. 12(목) 14:00~ / 설악해맞이 공원
수산도시 발전과 어업인의 무사안녕 기원



- 성황제 2006. 10. 12(목) 17:00~ / 동명동 성황당
속초시 발전과 번영 기원

- 망향과 통일기원제 2006. 10. 13(금) 16:00~ / 수복기념탑 광장
실향의 한과 통일기원 및 어업인의 무사안녕 기원

- 삼신합동제 2006. 10. 13(금) 18:00~ / 청초호 유원지 제례당
설악산신, 동해용왕신, 동명동 성황신 봉안제례

- 제등행렬 2006. 10. 13(금) 18:00~ / 수복기념탑 ~ 청초호 유원지
왕과 왕비, 군악대, 취타대, 농악대, 관악대, 시민 등의 퍼레이드

- 송신제 2006. 10. 15(일) 18:00~ / 청초호 유원지 제례당
시민 무사안녕 기원 및 삼신 송신





산악제

- 산악인의 밤 2006. 10. 14(토) 19:00~ / 설악산 야영장
산악인을 위한 캠프파이어 및 공연행사

- 산악인 추모제 2006. 10. 14(토)~15(일) / 소공원 산악인의 문 광장
산악인 영령들을 위한 추모분향 및 현화

- 2006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 2006. 10. 15(일) 08:00~16:00
 - 내용 : 전문 산악인과 함께 하는 가을 설악산행
 - 코스 : 소공원 → 계조암 → 달마봉 → 목우재
 - 주관 : 설악산악연맹
 - 후원 : 속초상공회의소

- 체험 및 부대행사 : 설악의 천연향수 만들기, 찾아가는 국립공원, 꽃누르미 전시 · 체험, 디지털 캡처 무료 사진, 설악 아동화거리전,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 강원도 분재작품 전시회, 페이스 페인팅, 혼춘촬영가협회 초청 사진전

해양 · 민속제

● 오징어 할복대회 및 체험

- 2006. 10. 14(토) 11:30~12:30
- 청초호 유원지 행사장
- 오징어 할복, 세척 및 건조과정의 경연 및 체험행사
- ※ 주 관 : 청호동 유자망협회



● 어선 무료승선 체험

- 2006. 10. 14(토)~15(일) 13:00~18:00
- 청초호 유원지내 어선승선 체험장
- 체험희망자를 태우고 청초호 내항을 선회
- ※ 주 관 : 청호동 유자망협회



● 동해안 별신굿 22마당

- 2006. 10. 14(토)~15(일) 10:00~18:00
- 청초호 유원지 굿당
- 속초시의 발전과 풍어를 비는 무속인들의 기원 한마당
- ※ 골메기 청좌굿, 화훼동참굿, 조상굿 등 총 22마당
- ※ 주 관 : 전통민속문화보존회 속초지부, 대한경신회 속초지부

● 부대행사 : 전오징어 · 야채 공예 전시회, 오징어요리 시식회





실향민축제

● 팔도음식 시식회

- 2006. 10. 14(토)~15(일) 10:00~18:00
 - 청초호 유원지 행사장
 - 팔도음식 시식을 통한 고향의 맛 체험
- ※ 주 관 : 이북도민회



● 중국 훈춘소년예술단 초청공연

- 2006. 10. 14(토) 16:30~17:30 / 중앙시장 특설무대
 - 2006. 10. 15(일) 20:30~21:30 / 청초호 유원지 주무대
 - 중국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해당화예술단의 종합예술공연
- ※ 주 관 : 한국예총 속초지부



● 2006 통일가요제

- 2006. 10. 15(일) 15:00~17:00
 - 중앙시장 특설무대
 - 노래로써 망향과 통일을 이야기 하는 한마당 노래잔치
- ※ 주 관 :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

● 부대행사 : 2006 통일시화전, 6·25 음식 회상전, 아바이 마을을 아시나요?



체험 및 문화행사



청초호 유원지



● 논뇌호 불꽃놀이 2006. 10. 13(금)~15(일) 19:30~22:00

- 청초호에 유등과 꽃배를 띄워 시민들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전통민속행사
소망기원 점등식 : 2006. 10. 13(금) 19:30
- ※ 주 관 : 설악문화제위원회
- ※ 후 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 흔들바위 굴리기대회 2006. 10. 14(토) 12:30~18:00

- 흔들바위 모형을 지정 구간 2회 왕복하여 먼저 들어오는 경기
- ※ 주 관 : 속초농업협동조합



● 청룡황룡 겨루기 2006. 10. 15(일) 11:30~13:30

- 청룡, 황룡이 이어주는 움직이는 통나무 위에서 상대방을 먼저 떨어뜨리는 경기
- ※ 주 관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 송편빚기 대회 2006. 10. 14(토) 14:0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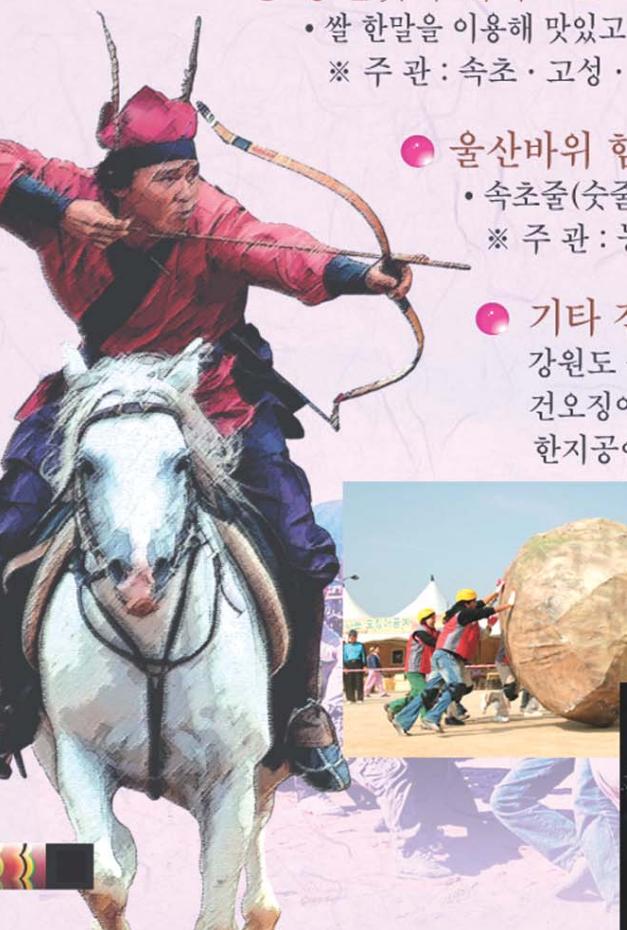
- 쌀 한말을 이용해 맛있고 이쁜 송편을 빚는 경기
- ※ 주 관 : 속초·고성·양양 새마을금고 연합회

● 울산바위 힘겨루기 2006. 10. 15(일) 14:00~17:00

- 속초줄(숫줄)과 울산줄(암줄)의 기줄다리기
- ※ 주 관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 기타 전시·체험행사

강원도 분재전시, 설악의 우리꽃 전시, 당신도 예술가, 건오징어·야채공예 전시, 농촌문화, 찾아가는 국립공원, 한지공예, 도자기공예, 도문메나리농요, 마상무예 시연





특별이벤트

● 2006 전국 갯배 끌기대회

- 기간 : 2006. 10. 14(토) 10:00~18:00 예선 및 32강전
2006. 10. 15(일) 10:00~18:00 16강전 및 순위결정전
- 장소 : 청초호 수상 특설경기장
- 내용 : 갯배를 정해진 거리(100m)에 빨리 도착하게 하는 토너먼트 경기
- 총상금 : 총 460만원(우승 200만원, 준우승 100만원 등)
※ 외지 참가자에 한해 숙박 할인권 제공(10월 14일)
- 주관 : 해병전우회
- 후원 : 속초지역 라이온스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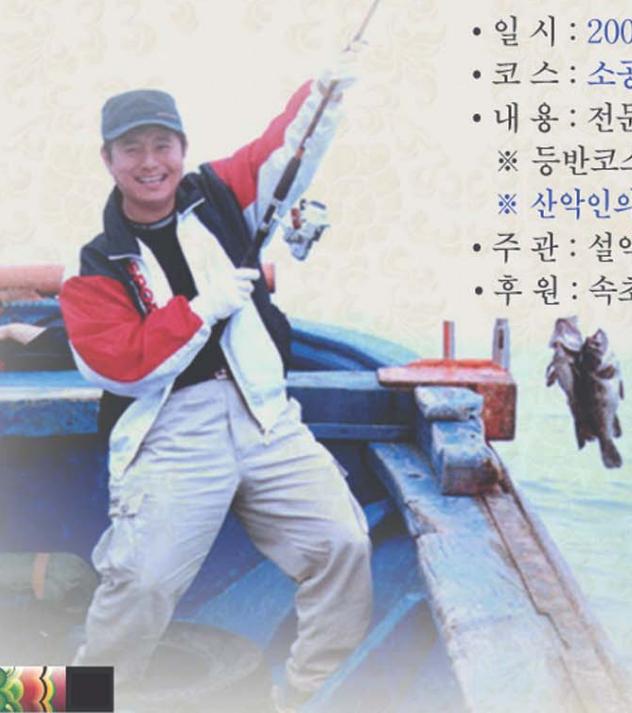
● 2006 속초 전국 바다낚시대회

- 일시 : 2006. 10. 14(토) 07:00~13:30
- 장소 : 속초해수욕장 ~ 외옹치해수욕장
- 내용 : 백사장에서의 원투 낚시대회
※ 참가자에 한해 25년만에 최초 개방하는 외옹치 갯바위낚시 특전부여(10.14~15)
- 총상금 : 총 500만원(대상 300만원 상당 금, 1등 100만원 상당 상품 등)
※ 등위 입상자 트로피 수여, 전체 참가자 행운권 추첨 및 도시락 제공
- 주관 : 국제로타리 3730지구 4지역 로타리 클럽



● 2006 전국 산악인 등반대회

- 일시 : 2006. 10. 15(일) 08:00~16:00
- 코스 : 소공원 → 계조암 → 달마봉 → 목우재
- 내용 : 전문 산악인과 함께 하는 가을 설악산행
※ 등반코스 완주자들에게 특별 기념품 증정
※ 산악인의 밤 행사 : 2006. 10. 14(토) 19:00 / 설악산 야영장
- 주관 : 설악산악연맹
- 후원 : 속초상공회의소





공연 행사

● 개막공연 공개방송 “황마담의 엔돌핀 충전”

- 2006. 10. 13(금) 20:00~21:30
- 청초호 유원지 주무대
- 신효범, 양동근, 유진박, 릭스, 전원석, 유진아 외 4명 출연



● 라이브 콘서트 삼인 삼색(三人 三色)

- 2006. 10. 14(토) 20:00~21:30
- 청초호 유원지 주무대
- 김경호 밴드, 이광조 외 1명 출연

● 폐막공연

- 2006. 10. 15(일) 20:00~21:30
- 청초호 유원지 주무대
- 한울목관 오케스트라, 훈춘소년예술단 공연





2006 전국 풍물겨루기 한마당

- 일 시 : 2006. 10. 14 ~ 15
- 장 소 : 설악문화제 특별행사장(중앙시장)
- 주 최 : 설악문화제위원회, 속초문화원
- 주 관 : 한국국악협회속초지부,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시상내역



구 분	훈 격	사물놀이		농 악
		초등부	중 · 고등부	
종합대상	강원도지사상			교하중학교
장 원	동국대학교총장상			충현고등학교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속사초등학교		
차 상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강릉여자중학교
	한국국악협회이사장상			김천개령초등학교
	한국국악협회이사장상	유석초등학교		
차 하	한국국악협회이사장상			이천설봉중학교
	강원도속초교육청교육장상			사천초등학교
	속초시장	조양초등학교		
장 려	속초시장			샘골아그들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유석초등학교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임계초등학교		
특 별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중앙여자중학교
	설악문화제위원장상			조양초등학교
	설악문화제위원장상	공현진초등학교		
	설악 문화제위원장상			속초상업고등학교
	속초문화원장상	온정초등학교		
지도상	속초문화원장상			속초여자중학교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박영석(개령초)



2006 졸업생을 위한 특강 및 공연

“친구랑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마당”

지난 11월 28일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3개고교 예비졸업생 940명을 대상으로 친구랑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마당 사업을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주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본 행사는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문화향유에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위안과 더불어 친구와 함께 담소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학진학 진로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동대학교 조진관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가수, 전자현악 “샤인”, 퓨전타악 “드럼캣”, 시립 풍물단의 판굿 공연으로 이어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 속에 수준 높은 행사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의 참뜻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일 시 : 2006. 11. 28 (10:00 ~ 12:00)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참가대상 :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3학년 (총 945명)



◎ 행사내용

- 특 강
 - * 경동대학교 교수 조진관
 - 초청공연
 - * 지역가수 “추예인”
 - * 전자현악 “샤인”
 - * 퓨전타악 “드럼캣”
 - * 시립풀물단





한국문화학교 제14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 일시 : 2006년 12월 1일(금) 10:30 ~ 13:00

- 장 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

- 내용 :

· 한국문화학교 14기생 수료식(12월 1일 11:00~11:30)

· 발표회 : 장구교실, 노래교실, 사물교실

(12월 1일 11:30 ~ 12:20 문화사랑방)

· 전시회 : 서예교실 및 한지공예(12월 1일 ~ 3일)





2006 예술강사 지원사업(국악분야) **어린이 여름방학 국악캠프**

2006 예술강사지원사업(국악분야)의 일환으로 “어린이 여름방학 국악캠프”가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 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어린이 국악캠프를 실시함으로서 학교 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다양한 국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체험함으로서 우리 국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문화적 향유력 및 창의력을 증대시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인지시키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가자 모두 지역문화 지킴이가 되어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장이 되었다.



- 교육기간 : 2006. 7. 28 ~ 7. 29. <1박2일>
- 교육내용 : 사물놀이, 단소, 민요
- 교육대상 : 속초시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0명
- 주 죄 : 강릉문화원
- 주 관 : 속초문화원



속초민속 발굴과 도문메나리농요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속초문화원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놀이 발굴로 지역의 향토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우리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업노동요인 “도문메나리 농요”를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속초민속 발굴과 도문메나리농요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후 16:00 ~ 18:00
- 장 소 : 도문동 상도문마을회관
 (도문어린이집 2층)
- 행사내용
 - 16:00 ~ 17:00 학술세미나
 - 17:00 ~ 18:00 도문메나리농요 시연
 (학무정 운동장)





2006 속초문화원 문화강연

“세계속의 한국역사”

- 정문현 국회의원 초빙 특별강연 -

* 일시 : 2006년 3월 28일 (화) 14:00

* 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주최 : 속초문화원

* 대상자 : 속초문화원 부설 문화학교수강생 및 문화가족 150명



2006 속초문화원 발간자료

○ 속초시사(上 · 下)

- 상권 : 자연환경, 역사, 정치, 교육사회, 경제, 관광, 수산
- 하권 : 문화예술, 생활관습, 인물, 연표, 옛문헌
 - ※ 16절 Size, 2300page
 - CD(PDF, E-Book) 2매
 - 홈페이지 : www.sokcho-history.com

○ 속초민속 발굴과 도문메나리 농요 전승

-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속초민요의 분포와 양상)
- 속초 민요의 실제(문헌자료, 채록자료, 속초민요 악보)
 - ※ 4 · 6배판, 298page

○ 한 권으로 읽는 속초문화유산

- 자연환경, 역사, 지명, 문화, 산업
 - ※ 크라운판, 100page



2006 해외문화탐방(일본)

- 문화가족 35명 -

12. 4 ~ 7 (3박 4일)

제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부산 출발 · 출국수속 및 체리승선
제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하카타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모모찌해변, 해양공원, 다자이후텐만구 · 아소 사루마와시, 훨화산
제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마모토 미즈나시 혼진, 운젠국립공원 · 운제지옥계곡, 나가사키 평화공원, 원폭자료기념관
제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오카 텐진거리 및 지하상가 · 하카다항-부산항-속초



특집 문 / 화 / 논 / 단

-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
- 강원도 소리의 모습
-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
- 지역인물 / 김용식
- 지역인물 / 산과 인의 영원한 동반자 이기섭 박사
- 부동산 투자 전략과 시장 트렌드
- 건강 도시 속초에 바라는 제언
- 향토문화체험장 속초시립박물관
- 문화탐방 / 동유럽을 다녀와서
- 속초등대전망대
- 여름방학 별자리 체험프로그램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

전 신재(한림대 명예교수, 강원도 문화재위원)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민요는 거의 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민요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민요 대신 대중 가요를 부른다. 민요는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노래라고 할 때, 삶의 양식이 바뀌었으니 민요가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에는 농부들이 마을 단위로 두레를 조직하여 집단으로 모를 심으면서 <모심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한 농부가 이앙기(移秧機)를 이용하여 모를 심는다. 이에 따라 <모심는 소리>가 사라졌다. 현재에는 또한 논에 제초제(除草劑)를 뿐려 아예 잡초가 나지 않게 하거나 잡초를 없애버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논매는소리>도 사라졌다. 과거에는 농부들 두어 명이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며 <도리깨질하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농부들이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리깨질하는소리>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부녀자들이 베틀로 베를 짜면서 <베짜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베틀로 베를 짜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베짜는소리>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운상하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상여를 이용하지 않고 영구차를 이용한다. 따라서 <운상하는소리>가 사라졌다. 간혹 상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 <운상하는소리>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동네 골목에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면서 <술래잡기하는소리>, <편불리기하는소리>, <고무줄하는소리>, <줄넘기하는소리> 등을 불렀다. 그러나 현재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요즈음에는 놀이방, 공부방, 각종 학원 등에 다니느라고 아이들도 바쁘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각종 유희요가 사라졌다.

그런데 민요의 사라짐은 민요의 사라짐으로 그치지 않는다. 민요와 함께 거기에 담겨 있던 진솔한 사람 냄새까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민요와 함께 거기에 담겨 있던 지역의 고유성까지 사라져 가고 있다. 민요와 함께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 온 진실한 삶의 무게와 그 지역에만 존재하



던 독특한 아름다움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의 문화가 비인간화와 중앙문화의 횡포로 치닫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대안 없는 몸짓이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에서 강원도 민요의 문화적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오늘의 문화 상황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로 살려내는 길은 무엇인가 등을 탐색해 보는 일은 요즈음에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는 지역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 한 작업이다.

2. 문화 원형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년 6월 23일에 ‘100대 민족문화상징’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상징’으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전자(DNA)를 찾고’,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전통문화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하고,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 및 홍보’하기 위하여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 아리랑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인정한 것이다. 민요로서 선정된 것은 아리랑이 유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전라도 지역의 진도아리랑, 경상도 지역의 밀양아리랑, 경기도 지역의 경기도 진아리랑, 경기도 자진아리랑, 본조아리랑, 강원도 지역의 강원도 자진아라리, 강원도 진아라리, 강원도 엮음아라리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리랑이 있다. 이번에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한 아리랑이 이들 중 어느 아리랑이라는 언급은 없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아리랑을 총괄해서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했을 듯싶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엄밀히 말하면 민요가 아닌 것들이 있다. 진도(珍島)아리랑은 노동요도 아니고, 의식요도 아니고, 유희요도 아니다. 진도아리랑은 또한 진도 지역에서 오랜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노래도 아니다. 진도아리랑은 1920년대에 박종기(朴種基, 1879-1939)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작곡한 것이다. 밀양(密陽)아리랑 또한 그 가락이 밀양 지역의 민요 가락이 아니다. 밀양아리랑은 1920년대 음반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제 초기에 어느 개인이 작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조(本調)아리랑은 영화 <아리랑>(1926)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운규(羅雲奎, 1902-1937)가 영화 <아리랑>을 만들 때 바이올린 악사에게 의뢰하여 편곡한 것이다. 그 주제곡이 영화와 함께 열광적 호응을 얻어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것이다. 본조아리랑의 모태는 경기도 자진아리랑(신조아리랑)이고, 경기도 자진아리랑의 모태는 경기도 진아리랑(서울 진아리랑)이다. 그런데 경기도 진아리랑은 경기도 기층문화에서 발생

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 긴아리랑은 강원도 긴아라리에서 파생된 것이다.¹⁾ 강원도의 긴아라리가 경기도의 긴아리랑을 파생시킨 계기는 흥선 대원군(이하옹, 1820-1898)의 경복궁 중건(1865. 4. - 1868. 6.)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원도 긴아라리는 강원도의 거의 전역에서 불리어진다. 주로 모심을 때 부르고, 김맬 때, 나무할 때, 뗏목 탈 때에도 부른다. 그리고 즐기는 소리로도 부른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모든 아리랑의 근원은 강원도의 아라리이다. 강원도의 아라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모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지역의 아리랑보다 노랫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노랫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언어에는 각 지방마다 고유한 사투리가 있다.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등이 그것이다. 민요는 각 지방마다 고유한 선법(旋法)을 가지고 있다. 언어에서는 각 지방마다 어조가 다른 것처럼 민요에서는 각 지방마다 음조가 다르다. 민요에서 그 지방의 고유한 음조를 토리[調]라고 한다. 언어에 사투리가 있듯이 음악에는 토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 위에 열십자를 그어서 우리나라를 사등분했을 때, 왼쪽 위를 수심가토리, 왼쪽 아래를 육자배기토리, 오른쪽 위·아래를 메나리토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수심가토리권의 중심지역이 평안도이고 육자배기토리권의 중심지역이 전라도라면 메나리토리권의 중심지역은 강원도이다.

메나리토리는 평안도 지역의 수심가토리, 전라도 지역의 육자배기토리 등에 비해서 보수성이 강하다는 연구가 있다.²⁾ 수심가토리권이나 육자배기토리권에서는 통속민요가 나타나는데 반해서 메나리토리권에서는 통속민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³⁾ 강원도의 메나리토리는 대중적 취향에 따라 변질하지 않고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산악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산지문화에서 생성된 민요가 풍부하다. 〈풀베는소리〉, 〈풀써는소리〉, 〈나무하는소리〉, 〈지게소리〉, 〈목도하는소리〉 등이 그것이다. 강원도에서는 다른 도에 비해 〈상여소리〉, 〈회다지소리〉 등의 장례의식요가 발달한 것도 강원도는 산세가 좋아서 장례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민요가 강원도에서만 전승되어 온 것은 아니다. 이들 민요는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강원도에서 특히 발달한 것이다. 가령 〈목도하는소리〉는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강원도에서 특히 발달해 있다. 그런데 전국 어느 지역이나 〈목도하는소리〉는 메나

1)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5, 한국민요학회, 1997, 88-114쪽

2) 김혜정, 「강원도 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의미」,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46쪽.

3) 오용록, 「종합토론」, 위의 책, 177쪽.



리토리로 되어 있다.⁴⁾ 한국의 <목도하는소리>의 원류는 강원도의 <목도하는소리>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아리랑>의 원류가 강원도의 <아라리>이듯이 한국의 모든 <목도하는소리>의 원류는 강원도의 <목도하는소리>인 것이다.

강원도 민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메나리토리는, 통속화한 다른 지방의 토리와는 달리, 원형과 순수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강원도의 <아라리>와 <목도하는소리>는 한국의 모든 <아리랑>과 <목도하는소리>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각각 소중한 문화자원이다.

3. 정체성

옛날에는 자기가 신을 신발은 가정에서 만들어 신었다. 신을 삼는 것은 가장의 몫이었다. 가장은 가족들의 발의 크기뿐만 아니라 취향에도 꼭 맞게 가족들의 신을 각각 만들었다. 가장이 삼아준 신을 신고 다니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다. 옛날에는 자기가 입을 옷은 가정에서 만들어 입었다.

옷을 짓는 것은 주부의 몫이었다. 주부는 가족들의 몸의 크기뿐만 아니라 취향에도 꼭 맞게 가족들의 옷을 각각 지었다. 주부가 지어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피부로 느꼈다. 먹는 음식과 사는 집도 마찬가지였다. 의식주(衣食住)가 다 그러하였다.

요즈음에는 자기가 신을 가게에 가서 사서 신는다. 옷도 사서 입는다. 옷가게에는 다양한 옷감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상표의 옷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골라서 사 입는다. 옷을 사는 사람은 그 많은 옷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서 자기의 개성을 살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개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행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그 옷의 상표와 디자이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사랑과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옛날의 옷과 요즈음의 옷 사이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듯이 옛날의 민요와 요즈음의 대중가요에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현대의 대중가요는 전문 작사가가 작사하고, 전문 작곡가가 작곡하고, 전문 가수가 부르고, 전문 문화기획자가 보급한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 그것을 배워서 부른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강원도 농민과 제주도 어민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치

4) 이보형, 「한국민요의 전국적 판도와 강원도 민요의 국면」,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16쪽

강원도의 농민과 제주도의 어민이 같은 이름의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상표의 옷을 입고, 같은 상표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같은 노래를 부른다. 노래문화의 이러한 획일화는 중앙 문화 권력의 횡포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부를 노래를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불렀다. 작사도 그들이 직접 하고, 작곡도 그들이 직접 하고, 가창도 그들이 직접 하였다. 그것이 민요이다. 그러므로 민요는 중앙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정서를 노래하지 않고, 삶의 현장과 자기의 개성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정서를 노래한다. 오늘날의 대중가요가 일방적 보급과 수동적 모방, 전국적 획일화, 중앙 문화 권력의 횡포로 치닫고 있는 문화라면, 옛날의 민요는 능동적 창조력과 지역별 고유성을 발휘하고 있는, 향토성이 풍부한 지역문화였다.

민요가 삶의 현장에 가장 밀착해 있는 문화이고, 해당 지역의 고유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라는 사실은 다른 민속문화들과의 대비에서도 드러난다.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눌 때 향토성이 가장 풍부한 것은 전설이다. 신화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전승되고 민담은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전승되는 데에 반해서, 전설은 마을 단위로 전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설에는 광포전설(廣布傳說)이라는 것이 있어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전설이 전승되는 경우가 있다. <아기장수전설>, <장자못전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민요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 <정선아라리>는 정선에서만 불린다. 정선의 <정선아라리>는 바로 인접해 있는 평창의 <평창아라리>와도 다르다.

민속극이나 판소리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공연하였지만 민요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불렀다. 밭을 가는 현장, 논을 매는 현장, 삼을 삼는 현장, 배를 짜는 현장, 그물을 끌어올리는 현장, 상여를 메고 가는 현장 등에서 사람들은 민요를 불렀다. 또한 판소리에는 기층민의 문화와 상류 지배계층의 문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문화, 중국의 문화 등이 복합되어 있다. 양반과 왕족들도 판소리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민요에는 특정지역의 기층민의 문화만 함축되어 있다. 양반이나 왕족은, 설화나 판소리는 수용하였지만, 민요는 부르지 않았다.

실론 대로, 민요는 기층민이 향유한 노래이고, 삶의 현장에서 우러난 정서이며,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고유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요는 그 지역의 중요한 문화 자원이다. 민요가 지역의 고유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 자원이라고 할 때, 강원도 민요의 고유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강원도 민요에 나타난 자연관과 강원도 민요의 가장 방법만 살펴보려 한다. 특히 현대에 와서 자연이 주목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강원도 민요에 나타난 자연관을 우선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가장 방법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는 민요가 표출하는 서정성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 우열 관계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자연관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강원도의 <아라리>(긴아라리)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파악한다. 즉 조선시대의 성



리학자들의 시조들에서처럼 자연을 인간이 본받아야 할 원리로, 즉 자연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지도 않고, 서양의 일부 문학에서처럼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도 않으며,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즉 자연도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때, 강원도의 〈아라리〉에서 자연은 인간과 교감(交感)하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즉 고전시가의 산수시(山水詩)에서처럼 자연이 심미적(審美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조(觀照)의 대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것으로 보는 도교(道教)의 자연관에서처럼 자연이 몰입의 대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자연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을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의 〈아라리〉(긴아라리)의 노랫말에 ‘천지조화(天地造化)’라는 말이 여러 개체요에 나온다. 여기에서 노래하는 ‘천지조화’는 우주 질서의 철학적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같으니 그것이 바로 ‘천지조화’라는 뜻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연후에 땅이 젖는 것이 아니다. 땅에 누기가 있으면 비가 오게 되어 있고, 하늘이 비를 내릴 마음을 먹으면 비를 내리기 전에 땅에 누기가 찬다. 하늘과 땅은 이렇게 교감한다. 여성의 몸에 누기가 있으면 남성이 여기에 호응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해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성의 몸에 누기가 찬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땅에 누기가 지면 여성의 몸에도 누기가 진다. 여성은 땅이고, 남성은 하늘이다.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은 이렇게 서로 교감한다. 이것이 자연의 오묘한 조화이다. 이것은 자연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성리학의 자연관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교감의 원리는 정서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산천에 올라서 님 생각을 하니 / 풀잎에 매듭매듭 찬 이슬이 맷히네.”라는 노랫말에는 인간과 자연이 끌어안고 함께 우는 정경이 나타나 있다. 자연이 기쁘면 인간도 기쁘고, 인간이 슬프면 자연도 슬프다. 자연의 기쁨이 곧 인간의 기쁨이고, 인간의 슬픔이 곧 자연의 슬픔이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의 극치를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이 각각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 교감하는 경지, 이것이 바로 〈아라리〉의 세계인 것이다. 자연은 인간과 더불어 사는 주체적 존재인 것이다. 자연을 이념화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한다. 이것은 자연을 상실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하고도 적절한 자연관이다.⁵⁾

자연 및 동물과의 친화력이 특히 잘 나타나는 민요는 〈소모는소리〉이다. 소를 부려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논을 삶을 때 이 민요를 부르는데 특히 비탈밭을 갈면서 부르는 〈소모는소리〉에서 자연 및 동물과의 친화력이 잘 나타난다. 비탈밭을 가는 노동 과정에서 소는 인간의 작업

5) 아라리에 나타난 자연관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전신재, 「아라리의 자연관」,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121-143쪽

지시 내용을 다 알아들을 뿐 아니라 작업 지시와는 관계가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신세를 털어놓는 감정적 호소까지도 그대로 수용한다. 소를 모는 사람에게 소는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다. 석양이 드리운 고즈넉한 저녁때 산기슭에서 마을에까지 들려오는, 맑으면서도 처량한 <소모는소리>는 마을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자연의 품 속에서 인간과 소가 정서를 교류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고, 그 소리는 한 가락의 음악이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예술이다. 그 예술적 경지는 경운기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기능면에서 보아서도 경운기는 비탈밭을 갈지 못한다.

인간과 동물의 친화력은 새 소리를 흥내내는 민요에도 잘 나타난다. 강원도 산간지역 사람들은 새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인식한다. 그들은 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를 교류하는 것이다. 산비둘기, 두견새, 부엉이, 꾀꼬리, 종달새, 꿩, 기러기 등을 노래하는 민요들이 그것이다.

강원도 특유의 가창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민요를 부르는 방식은 우선 독창과 공동창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공동창은 다시 선후창, 교환창, 복창, 제창으로 나누어진다.

선후창(先後唱)은 선창자(앞소리꾼)가 소리를 메기면 후창자(뒷소리꾼)가 그것을 받는 가창 방식이다. 메기는 소리는 내용이 있는 노랫말이고, 받는 소리는 후렴이다. 일반적으로 선창자는 한 명이고, 후창자는 여러 명이다. 이 가창 방식에서는 선창자가 민요를 잘 부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가창력도 좋아야 하고, 노랫말도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구연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지어내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후창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이 가창 방식에서 후창자들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들은 후렴만 부를 줄 알면 된다.

교환창(交換唱)은 창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 번갈아 노래하는 가창 방식이다. 선창자들과 후창자들은 모두 내용이 있는 노랫말을 부른다. 후렴은 없고 각기 다른 노랫말을 부른다. 이 가창 방식에서는 선창자들과 후창자들 모두가 민요를 잘 부르는 소리꾼들이어야 한다. 여럿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노랫말을 불러야 한다.

즉흥적인 창작은 선후창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환창에서는 불가능하다. 선후창에서는 선창자 한 명이 후창자 여러 명을 이끌고 있지만, 교환창에서는 선창자들과 후창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노래를 부른다. 복창(復唱)은 선창자의 노래를 후창자들이 그대로 따라 부르는 가창 방식이고, 제창(齊唱)은 한 노래를 여러 사람이 단일한 선율로 함께 부르는 가창 방식이다.

공동창의 여러 가창 방식들 중에서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가창 방식은 교환창이다. 선후창에서는 선창자 한 사람만 민요에 숙달한 사람이면 가창이 가능하지만, 교환창에서는 참여자들 모두가 민요에 숙달한 사람들�이어야 가창이 가능하다.

교환창은 또한 공동체적 유대감을 필요로 한다. 가창자들끼리 유대감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교환창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환창을 잘 부르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과 제주도 지역이다. 경상도와 제주도



에서는 노동요를 주로 교황창으로 부른다. 그들은 그만큼 단결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노동요의 교환창에서는 동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 독백의 원리, 교감의 원리가 작용한다. 여기에서 동화의 원리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대화의 원리는 함께 일한다는 동류 의식이 잘 나타나는 원리이다.⁶⁾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교환창을 잘 부르지 않는다. 특히 영동지역 농요의 가창 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창이다.⁷⁾ 또한 강원도의 <아라리>와 <미나리>의 기본적인 가창 방식은 독창이다. 그냥 혼자 부르거나, 여럿이 제창을 하는 것이 강원도 민요의 주된 가창 방식이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가창 방식이다. 강원도에서 특히 세련되게 발달한 <회다지소리>는 선후창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논농사요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리를 메기고 받는 기교나 두 패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노랫말을 주고받는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특정 집단의 내부에서는 동질성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집단의 외부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가지는 특성을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라고 일단 범박하게 정의할 때,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기교를 초월한 진실,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 자연과의 인간적 교감, 자립정신, 개인적 서정 등을 강원도 민요의 정체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전망

전통사회에서 민요가 작업의 동작을 일치시키는 기능, 작업을 지시하는 기능, 노동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능 등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민요의 전부인 것은 아니었다. 인간의 내면에 쌓인 오예(汚穢)를 쓸어내고 마음을 정화(淨化)시키는 일, 신명을 불러일으켜 생명력을 갱신(更新)하는 일 등도 민요가 담당했던 기능이었다. 우리들의 삶에서 마음의 정화와 생명력의 갱신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러니 삶의 양식이 바뀌었으니 민요가 소멸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과거에 두레 노동으로 논에 모를 심을 때에는 <모심는소리>를 불렀고, 논의 김을 맬 때에는 <논매는소리>를 불렀다. 그러나 벼를 벨 때에는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한 근거는 무엇인가? 두레 노동을 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구어 가며 모내기를 하고 김을 매면 벼가 잘 자라고 결실이 잘 된다. 그러나 한두 사람 품을 사서 가족끼리 모내기를 한 경우에는 벼가 잘 자라지 못한다. 즉 노래를 들려주면 잘 자라고, 노래를 들려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벼도 인간처럼 음악에 감응하는 것이다. 벼를 벨 때에는 민요를 부르지 않는다. 벼가

6)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153-161쪽.

7) 강등학,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점』, 집문당, 1996, 86쪽.

다 자라서 결실을 한 후이기 때문에 음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심는소리>의 노랫말에서는 성(性)이 노골적으로 노출되고, <논매는소리>의 노랫말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판에서 자란 모를 논으로 옮겨 심을 때에는 뿌리를 새로 내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즉 각별한 생명력이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이다.⁸⁾

벼들은 민요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풍물도 좋아한다. 농악을 치면 벼들이 좋아한다. 농악을 치면 벼들은 좋아하지만, 해충들은 싫어한다. 농악을 치면 벼멸구, 이화명충 등 벼의 해충들이 죽는다. 농악 소리의 큰 파장을 해충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악을 쳐서 농사를 지은 논은 병충해 강하고 소출이 많다. 풍물굿은 벼의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민요의 경우처럼 벼의 이식기와 성장기에는 풍물굿을 하지만 수확기에는 풍물굿을 별로 하지 않는다.⁹⁾

위의 두 사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상황에서 두레 노동을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음악의 기능을 이용하는 전통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

일본의 야마가다현의 한 농장 ‘사운드 재배하우스’에서는 채소와 과일들에게 매일 세 차례에 걸쳐 15분씩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음악을 들려준다. 이렇게 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수확 기간도 단축된다. 여기에서 생산한 ‘모차르트 배추’ ‘브람스 토마토’ 등은 맛이 좋아 수퍼마켓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¹⁰⁾

전통은 옛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전통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에 기대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통을 추종해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전통을 부정하고, 전통에 저항하고, 전통을 재평가함으로써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새로운 창조는 결과적으로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의 힘이다. 우리는 고구려 시대의 가옥에서부터 현대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재창조되어 온 온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난방 방법이다. 그런데 민요에 관한 한 우리가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소홀히 하여 왔다는 생각이 듈다.

현대 사회에서 민요는 교육콘텐츠, 전자책콘텐츠, 방송 및 영화콘텐츠, 인터넷콘텐츠, 모바일콘텐츠, 축제콘텐츠 등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¹¹⁾ 민요를 좀 더 고급스러운 음악으로 재창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빌라 로보스(Villa Lobos, 1887-1959)를 주목하게 된다. 브라질 음악의 아버지. 브라질의 세계적 음악가 빌라 로보스. 그의 음악에서 배어나는 원초적인 생명력, 아마

8) 임재해, 「노래의 생명성과 민요 연구의 현장 확장」,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78-86쪽.

9) 김익두, 「풍물굿의 공연원리와 연행적 성격」, 『한국민속학』27, 민속학회, 1995, 126-129쪽.

10) 임재해, 앞의 논문, 76쪽.

11)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2, 115-132쪽.



존(Amazon)적인 정서, 열대 지방의 우울과 무시무시한 무기력과 그 속에 숨어 있는 투쟁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소종래는 민요이다. 빌라 로보스의 음악을 키워낸 밑거름은 바로 민요인 것이다. 젊은 시절에 그는 브라질의 자연과 그 자연 속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매혹된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자연과 그 자연 속 사람들의 삶에 이끌리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오지를 헤매면서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한다. 원시 인디언의 노래, 바히아 흑인들이 부르는 민요의 가락, 크고작은 마을의 독특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민요의 가락 등에서 그는 브라질의 혼을 발견한다. 그는 그 혼을 그의 소리로 새롭게 형상화하여 그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빌라 로보스는 말한다. “민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이 곧 민요 그것인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음악에 브라질의 민요를 인용한 경우가 없다. 그는 민요를 녹이어 그의 개성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이것이 빌라 로보스의 음악이다. 브라질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브라질적인 것으로 이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을 그가 직접 지휘하는 연주 여행에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그의 음악에 찬사를 보낸 것은 그가 가장 브라질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이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브라질 민요를 애호하고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바흐의 음악을 애호하고 연구하였다. 우리는 빌라 로보스에게서 문화 창조의 전범을 본다.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2000년 8월 23일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 공연은 광복 55주년을 축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는 음악회였다. 김병화가 지휘하였다. 이 음악회의 첫 번째 레퍼토리는 관현악 <아리랑>이었다. 북한의 공훈예술가 최성환이 1976년에 작곡한 작품이다. 이 관현악 <아리랑>은 본조아리랑을 주선율로 이용하고 있어 북한 사람의 가슴과 남한 사람의 가슴을 동시에 촉촉하게 적신다. 민족의 동질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그것은 민요의 힘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아라리>, 한국의 모든 <아리랑>의 원류인 <아라리>의 주선율을 이용한 관현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라리>의 주선율을 이용한 대작을 만들어 볼 만하다.

속초에서는 <미나리>에 관심을 가지고 <미나리>를 다양하게 재창조해볼 만하다. <아라리>와 <미나리>를 강원도 민요의 쌍벽으로 삼을 만한데 <미나리>는 속초를 포함하는 영동지역에서 주로 불린다. 영동 지역의 <논매는소리>는 <미나리>와 <오독떼기>가 중심을 이루는데 <오독떼기>는 <미나리>로부터 파생된 노래이다.¹²⁾ <미나리>를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로 삼을 만하다. 장정룡은 ‘미나리’를 ‘민아라리’의 축약으로 보았다. 즉 ‘아라리’ 앞에 접두사 ‘민’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미나리>는 <아라리>의 한 분파라는 것이다.¹³⁾ 또한 이보형은 ‘아라리’와 ‘미나

12) 강등학 · 이영식, 『양양군의 민요자료와 분석』, 민속원, 2002, 715쪽.

13) 장정룡, 「삼척메나리 민요의 이해」,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212쪽.

리'를 각각 '알아리'와 '민아리'로 보았다. 여기에서 '아리'는 '노래 혹은 소리'의 뜻이다. 그리고 '알'은 '무엇이 들어 있는 것'이고, '민'은 '무엇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아라리'는 후렴이 있는 노래이니 '알아리'이고, '미나리'는 후렴이 없는 노래이니 '민아리'라는 것이다.¹⁴⁾ 어쨌든 〈아라리〉와 〈미나리〉를 강원도 민요의 쌍벽으로 삼을 만하다. 훌륭한 음악문화로 재창조되기를 기대한다.

14)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5, 한국민요학회, 1997, 117-119쪽.

강원도 소리의 모습

신 대 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하나. 머릿말

둘. 강원도 소리의 구성음

셋. 강원도 소리의 가락

넷. 맷는말

하나. 머릿말

이 땅의 우리의 말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리 크지도, 넓지도 않은 이 땅임에도 우리의 말은 강을 하나 넘고, 산을 하나 넘으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의 말이 지닌 각각의 모양새는 참으로 재미있어 그 모두가 독특한 맛과 멋의 세계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말을 들을 때와 강원도의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멀리는 함경도의 말을 들을 때 등등의 그 흥취는 각별하게 다가온다.¹⁾

이 땅의 풍습 또한 이 땅의 말이 지닌 모습처럼 다양하다. 이 땅 이 곳, 저곳의 말이 구별되듯 이 풍습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곳, 저 곳의 말의 다름에 따라 풍습이 다르다. 그래서 이 땅을 말과 풍습의 같고 다름에 따라 지도로 그려 나누면 대개 말과 풍습의 지도는 거의 같은 크기와 넓이로 겹쳐져 구분되어 진다.

이 땅의 보통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소리의 모습도 대개 위의 말과 풍습의 권역과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 땅의 이 셋이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 셋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리 크지도, 넓지도 않은 이 땅에서 지역마다 다른 소

1) 이 글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새로운 음악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니다. 단지 강원도 소리의 모습을 재조명하여 향토문화와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글이다.

리의 다양성을 자랑하게 하였으며, 제마다의 독특한 맛과 멎을 뽑내는 소리의 세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당연한 논리로 강원도의 소리는 강원도만의 품세로 강원도만의 맛과 멎의 세계를 형성하게 하여 오늘로 이어오게 하였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산세, 그리고 좋은 자연환경을 부인할 이 땅의 우리는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천혜라고 할 수 있겠다. 드러나는 강원도의 여러 모습은 꾸밈이 없고,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매력으로 꽉 차 있다. 즉 거죽으로 드러난 강원도의 여러 맛과 멎의 모습은 자연이 주는 미학의 세계 그대로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미학의 세계는 강원도의 소리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강원도의 소리에는 다른 지역의 소리에서 확인되는 치장이 드물다. 즉 강원도의 소리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강원도의 소리는 맨 모습 그대로이다. 그러면 강원도의 소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땅의 다른 지역의 소리와는 어떻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별될까? 이러한 점을 살펴 강원도 소리의 제 모습을 확인해 보려 함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다.

둘. 강원도 소리의 구성음 메나리토리와 그에 의한 소리의 가치와 의미

모든 음악은 소리로서 구성된다. 소리가 없는 음악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음악에는 높이가 같은 단 하나의 소리로 된 곡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소리로 구성된다. 그래서 한 음악을 구성하는 소리의 수와 높이에 따른 그 소리의 구성 체계, 구성음의 파악은 해당 음악의 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깊은 이를 통해서 해당 음악의 정체성 일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²⁾ 그러면 강원도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 땅의 음악학자들은 제주도를 제외한 이 땅의 민요를 대개 다음과 같이 네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경기민요(서울과 경기도를 중심해서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요), 남도민요(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일부 지역의 민요), 동부민요(경상도·강원도·함경도 지역의 민요), 서도민요(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³⁾

2) 여기서의 소리는 위에서 언급한 소리와 구별된다. 위의 소리는 음악, 특히 노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곳에서의 소리는 노래의 의미가 아닌, 말 그대로 음악을 구성하는 개별 소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소리의 용어가 쓰였을 시는 노래로서의 소리를 의미한다.

3) 학자에 따라서 경기소리, 남도소리, 동부소리, 그리고 서도소리의 방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대개 방언권의 구분과 맞아 떨어진다. 다만 동부민요의 권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이보다 넓어 방언권과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부민요의 권역은 광복 후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넓은 함경도 지역의 향토민요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다.



위의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 이 땅의 소리들은 각 권역에 따라 구성음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편의상 서양음악에서 쓰이고 있는 계명으로 이들 권역 소리의 구성음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경기민요-솔·라·도·레·미, 라·도·레·미·솔, 남도민요-미·라·도시(단, 도는 아주 짧게 낸다), 동부민요-미·솔·라·도·레(단, 미·라·도가 가장 자주 출현한다), 서도민요-레·미·솔·라·도.

위에 소개된 각 권역별의 민요에 사용되는 음들이 서양음악의 해당 계명 높이에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는다.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의 조직이나 그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계명으로 소개한 우리 민요에 사용되고 있는 구성음들은 대강 서양음악의 해당 계명 높이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물론 위와 같은 음들의 구성 체계는 서양음악의 장조와 단조의 체계와도 다르다.

위에 이 땅의 여러 권역별 소리에 사용되는 음들의 구성을 소개하였지만, 해당 권역별의 소리 모두가 반드시 위의 음체계로 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다. 각 권역별 소리에는 위의 체계를 벗어난 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대개 각 권역별의 소리에는 위의 구성음 체계로 되어있는 곡들이 다른 체계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위의 권역별 구성음들은 해당 지역 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음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의 소리, 즉 민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부민요권에 속한다. 동부민요권은 경상도로부터 함경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즉 남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백두대간이 지나는 지역이 바로 동부민요권에 속한다. 지금까지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동부권의 소리는 위와 같이 ‘미·솔·라·도·레’로 되어 있고, ‘레’의 위에 처음의 ‘미’ 보다 한 옥타브 높은 ‘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미’ 음은 결국 한 옥타브 아래의 ‘미’와 같은 음 임으로 이 음을 구성음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원도의 소리에 쓰이는 이 다섯 음은 물론 경상도와 함경도의 소리에도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음 체계를 음악학자들은 ‘메나리토리’, 혹은 ‘메나리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 ‘메나리토리’로 된 소리가 많은 이 지역은 달리는 ‘메나리토리권’으로도 불린다.

메나리토리권의 소리가 편의상 서양음악의 ‘미·솔·라·도·레’ 다섯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다섯 음 중 ‘미·라·도’의 세 음이 다른 두 음보다 소리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메나리토리에서 솔과 레는 대개 경파적, 혹은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현 회수도 많지 않다. 음악학자들은 메나리토리는 ‘미·라·도’의 3음 중심으로 된 음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음 중심의 체계는 육자배기토리라고 불리고 있는 남도의 소리 구성음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음악 실체는 전혀 다른 맛과 멋의 세계로 되어 있다.

불교의 재에서 연주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범쾌는 서양음악의 평성가에 비교되는 아주 귀중

한 음악으로 중요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범패는 보통의 소리와는 다른 음악이다. 인간의 영혼에 호소하는 지고(至高)한 천상의 소리이다.

이 땅의 범패는 아직도 고대 불교문화권의 음악문화의 흔적을 보전하고 있다. 이 땅에 현전하는 범패를 통해서 고대 불교문화권의 음악과 그 공통적인 특징 일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땅의 범패는 이 땅에서만 귀중히 여기는 음악문화 유산의 범위를 벗어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소리의 구성음 체계인 ‘메나리토리’의 주요 3음은 범패의 구성음 체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달리 말하면 ‘메나리토리’는 범패의 구성음도 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메나리토리’의 소리와 범패는 고대 이후로 음악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소리가 된다. 따라서 ‘메나리토리’로 된 소리는 인간의 영혼에 호소해 온 범패 소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나리토리’에 의한 소리에도 인간의 영혼을 호소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메나리토리’로 된 많은 강원도 소리에도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강원도 소리가 지닌 귀중한 가치와 의미는 존중되어야 한다.

오늘날 메나리토리로 된 소리는 즉 경기도와 충청도의 여러 지역의 향토민요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함경도의 광대한 지역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메나리토리가 현재 쓰이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판소리와 무악에서도 메나리토리의 소리가 발견된다. 즉 일찍이 신재효의 흥보가 사설에 메나리가 등장하였고, 명창 정권진의 춘향가에 심봉사가 황성 맹인 잔치에 가는 대목인 ‘길소리’와 심청 모친 출상하는 대목은 메나리토리의 소리로 불리며, 서울 지역의 무당이굿을 하면서 메나리토리로도 소리를 하는 예가 이미 오래 전에 보고되었다. 왜, 이렇게 메나리토리의 소리가 넓게 쓰였고, 또 쓰이고 있는지는 아직 자세히 수 없다. 그러나 메나리토리로된 소리가 판소리와 서울 지역의 무악에서 쓰이고, 메나리토리권을 벗어난 아주 광범한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까닭은 메나리토리의 소리가 지닌 음악적 가치와 의미가 널리 인정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으로 보아도 메나리토리로 된 강원도 소리가 지닌 가치와 의미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셋. 강원도 소리의 가락과 그 맛, 멎,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함경도의 광대한 지역이 음악적으로 메나리토리권으로 불리면서 이 지역의 많은 소리는 주로 위에서 언급한 구성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음악의 맛과 멎은 서로가 각기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의 맛과 맟은 그 각 소리의 가락과 시김새, 그리고 리듬



의 구성이 다름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다. 즉 메나리토리권 소리가 비록 구성음은 같아도 각 음악이 지닌 음악미의 세계는 서로 구별된다.

먼저 경상도의 소리는 경상도의 말처럼 투박한 느낌을 준다. 경상도의 소리는 비교적 빠른 한배와 규칙적인 장단을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옹해야’, ‘밀양아리랑’, 그리고 ‘돼지나 칭칭 나네’를 예로 들어보자. 이 세 곡은 전체적으로 경상도의 말처럼 소리를 툭툭 던진다. 이 세곡은 처음의 시작도 소리를 툭툭 던진다. 이러한 가락의 구성과 시김새, 그리고 창법은 시종일관한다. 그러면서 특이한 음악적 강인함을 자랑한다. 경상도 사람들의 투박함과 강인함이 음악 속에 잘 살아있는 것이다.

함경도의 소리도 함경도의 말처럼 특이한 억양을 자랑하면서 흥겨움을 자랑한다. 강원도의 소리와 음악적으로 비슷한 경향도 보이기도 하나, 한배나 장단 역시 경상도의 소리와 빠르거나 규칙적인 것을 즐겨 사용하는 점이 강원도의 소리와 구별된다. 노랫말 부침도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변화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간혹 음악의 맛이 뒷맛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함경도 소리로 잘 알려진 ‘신고산타령(일명 어랑타령)’에 잘 드러나 있다.

강원도의 소리 역시 강원도의 말이 지닌 억양과는 운율을 잘 살려주고 있다. 그러나 경상도나 함경도의 소리처럼 빠르거나 규칙적인 한배와 장단으로만 소리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강원도의 소리에는 규칙적인 장단도 사용되고 있지만, 때로는 엇모리와 같은 장단의 좌우가 불균등한 길이를 갖지 않는 장단도 사용되고, 일정한 장단이 없이 소리가 엮어지기도 한다. 한배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고, 노랫말의 부침새가 다양하며, 리듬 또한 길고 짧은 리듬이 섞여있어 소리의 다양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음역도 경상도와 함경도의 소리보다 훨씬 넓다.

위와 같은 강원도의 소리는 같은 메나리토리로 된 경상도와 함경도의 소리보다 음악적으로 더 세련되어 있고, 남도소리와는 다른 소박한 시김새를 갖춘 가락의 다양함과 구성짐은 음악적 맛과 멋의 세계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 소리의 음악적 맛과 멋의 세계를 비애(悲哀)의 한(恨)을 지닌 구슬픔이나 애절함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강원도의 소리의 음악적 안과 밖, 그리고 노랫말에는 이와 같은 비애와 한이 분명히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이 비애와 한은 강원도 소리의 아름다움 중 하나인 비장미(悲壯美)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비애와 한의 비장미 세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및 강조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강원도 소리에 담긴 다른 아름다움의 세계는 본의 아니게 감추어져 왔다.

강원도의 소리에는 위 비장미와 상대되는 역동적(力動的) 힘의 아름다움도 담겨있다. 강원도의 많은 소리에는 역동미가 비장미와 함께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강원도의 소리에 담긴 역동미는 비장미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미는 가락의 굳건한 흐름 속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엇모리의 불균등 장단에도 이 역동미는 담겨있고, 힘찬 선율의 도약진행과 사설붙임에도 담겨 있다. 이러한 역동미는 비애와 한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음악적 힘의 세계이다. 그리고 희망을 창조하려는 힘

의 세계이다. 소리가 비장에만 잠기려한다면 역동적인 힘은 발산이 될 수 없다. 희망적 미래는 창조될 수 없다. 이러한 삶의 고달픔과 애달픔을 인정하는 비장미와 이를 극복하려는 역동미가 묘한 역설의 미를 이루고 있는 소리가 바로 강원도 소리이다.

한(恨)의 비장함은 감상적(感傷的)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그 속성에는 긍정적 심성이 아닌 부정적 심성도 담겨있다. 이러한 비장함은 억압되어 잠재된 욕구불만이요, 오래된 좌절과 절망이 낳은 체념과 비애의 정서를 지닌다. 그래서 극복되어지지 않은 이 한의 비장함은 우리의 심성을 부정적으로 향하게 하고, 또 나약하게 해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강원도의 소리는 위에 소개한 역동적 힘으로 이를 잘 극복하는 조화의 세계를 담고 있다.

이렇게 강원도의 소리는 비장미와 함께 역동미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악미를 갖춘 강원도의 여러 소리는 당연히 예술적 미와 흥취(興趣)를 갖게 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음악미의 세계는 경기소리를 주로 하는 한양과 경기의 직업적 민요가수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연주곡목으로 강원도의 여러 소리를 주저 없이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강원도 소리의 음악미는 직업적 민요가수들에 의해 불려진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그리고 ‘정선아리랑’에는 물론 강릉의 학산농요와 같은 여러 향토민요 속에도 잘 담겨 있다. 특히 강원도의 학산 농요와 같은 향토의 소리는,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노동요적인 기능 외에도 오락적 가능도 잘 갖추어져 있다.

위에 소개한 강원도 소리에 담겨있는 이러한 여러 음악적 특징과 그 아름다움은 소중한 강원도의 문화적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강원도의 오랜 정신문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의 하나로 된다. 강원도의 소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귀중한 문화적 가치와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 소리이다.

넷. 맷는말

지금까지 문화적 시각으로 강원도의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메나리토리의 음 체계와 조직, 그 아름다운 멋과 맛의 세계, 그리고 강원도의 소리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세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적 시각으로 음악을 살펴볼 때 필요한 관점은 이외에도 여럿 있지만, 이 세 관점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소리 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강원도의 소리가 지닌 한의 비장함과 함께 역동적 힘의 미적 세계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전자보다는 후자, 즉 강원도 소리가 갖고 있는 역동적 힘과 미의 세계를 보다 강조하였다. 그 깊은 지금까지 강원도의 소리에서 이 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를 통해서 강원도의 소리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함 때문이었다.



강원도의 소리는 분명히 역동적 힘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소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이 점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위에 소개한 강원도 소리가 지닌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관심의 깊이와 넓이는 더해 가고, 확산 및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강원도 소리가 더욱 값진 음악적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강원도의 소리를 중단 없이 미래로, 미래로 이어 주어야 한다.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기층

장 정 룡 (강릉대 국문과 교수)

1. 서론

본고는 속초지역에 전승되는 메나리 농요의 전승을 확인하고 그 기층성을 천착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가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쓰였다. 속초시 도문동은 일찍이 농토가 형성되어 소리의 자생적 기반이 이루어진 곳이며, 학무정을 건립한 매곡 오윤환(1872~1946) 선생의 학풍이 전하는 전통한옥마을이다. 이 마을의 정신적 중심으로 매곡선양 사업과 맞물려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전래농요를 전승함으로써 농경생활문화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1991년부터 속초민속조사를 통해 도문메나리 가사와 전승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1994년부터 제1차 속초민요조사를 통해 도문메나리를 채록하였으며, 1998년 제2차 조사를 통해 가창자의 음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보존과 전승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3년 제20회 강원도민속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대표로 출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도문리 주민들은 도문메나리 보존회를 2005년 4월에 결성하고 오순석(남.67) 회장을 중심으로 60명의 회원들이 매주 두 차례 모여 지속적인 계승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악문화제, 강릉단오제등 도내 각종 행사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속초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속초도문메나리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조적 계승과 전통문화의 확고한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나아가 속초 최초의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수체계를 확립하고, 민속문화와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고에서는 한국 민요에서 사용되는 메나리의 개념과 그 유래를 검토하고, 나아가 속초메나리의 전승내용을 중심으로 도문마을의 문화재 보존과 이론적 전승기반마련의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민요 메나리의 유래와 연구

1) 민요 메나리의 유래와 어원

민요 메나리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들이 일찍이 나왔는데 개념상 山有花와 연관지은 것이 많다. 崔永年은 山有花가 메나리(메너리) 곡조라는 설을 주장한 바 있다.

숙종 24년(1698) 선산녀인 향랑은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딴 데로 시집을 보내려고 못 견디게 굴었다. 향랑은 자기의 슬픔을 노래 지어 부르면서 낙동강에 빠져 죽었다. 세상에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메너리’ 가 바로 그것이다.

‘낙동강 검푸른 물 입보다도 푸르고, 애끓는 봄노래가 물결 모래 밟는다. 정렬한 아가씨의 붉은 눈물 방울 보는 듯, 산 가득한 바람과 이슬에 핏빛으로 아롱진 꽃’¹⁾

이와 달리 李能和는 ‘山遊歌’를 언급하면서 “경상도에서는 미나리 노래를 잘 부른다. 생각건 대 미나리노래는 산유가가 바뀐 것으로 의심된다. 대개 우리말에서 산은 미, 유는 노리라고 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²⁾라고 하여, 메나리는 산을 뜻하는 고대어 ‘메’ 나리는 ‘놀이’로 보아 산놀이노래 즉 ‘山遊歌’라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메나리와 山有花, 山遊歌는 명칭상 다르게 부르나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李秉岐도 ‘山有花’를 남도잡가의 唱調名인 ‘메나리’의 漢譯으로 보았고, 李鐸은 시가군을 범칭하는 구시대의 뜻인 메나리의 吏讀式 표기로, 梁柱東은 시가군의 범칭인 詞腦格·思內調로 보았다.

山有花 명칭은 『增補文獻備考』(卷106, 樂考, 俗樂部)에 백제가곡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尹廷琦의 『東寰錄』(卷4, 八道州縣 慶尙道 尙州)과 숙종 때 嚴慶遂 『孚齋日記』와 『申青泉集』과 蒲菴李師命의 시 등에서 볼 수 있다.³⁾

1) 崔永年, 『海東竹枝』中編, 樂學社, 1925, 4쪽 “肅宗二十四年 善山民婦香娘 夫死守節 父母欲奪志 乃作此曲 而哀之 投洛東江而死 世傳其曲 今之메나리 洛東烟水碧於紗 斷腸春歌踏浪沙 如見貞娥紅淚滴 滿山風露血斑花”

2) 李能和, 『朝鮮女俗考』翰南書林, 1927, 129쪽 “慶尙道는 善美那里歌 亨니 按美那里는 疑是山遊歌之轉이라 盖我語에 山曰美 오遊曰奴里故也라”

3) 李鍾出, 「山有花歌 小攷」『天涯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1963, 431~434에 이들 典據를 다수 들었다.

또한 18세기 洛下 李學達의 『嶺南樂府』에도 수록되어 전한다. 이 책은 『김해악부』라고도 하는데 이학규가 18년 동안 김해에 귀양 가서 지은 것이다. 내용은 영남에 전해오는 전설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노래한 전부 68편으로 형식은 다양하고 상세한 주석이 붙어 있다.

강언덕에 메나리꽃
물가에는 충렬비 하나
일손도 시름겹게 나무하던 여인네
가슴속 설음을 하소연 할 길 없어
집이라 돌아와 삼촌에게 말했더니
아픔 속도 모르고 꾸짖기만 하누나

사내들은 여편네를 함부로 버리기두
여자야 다시금 누구에게 몸 맡기랴
눈물 가득 머금고 집을 나와서
강가에 다다른 안타까운 마음
맴도는 물결 앞에 멈칫 섰다가
절구공이 내던지듯 몸을 던졌네

고운 처녀 메나리 한 곡조 부르자
설음이 솟구치는 듯 떠오른 치마폭
떠도는 혼을 달래 제를 지낸 들
착하고 슬픔 맘 갈 곳 없으리

짝을 찾지 못한 원양새랄가
뿌리를 박아 못 본 강풀이랄가
슬픈 혼아 호젓한 낙동강 기슭
메나리꽃 속에나 머물러 있느냐⁴⁾

『풍요선집』에서는 山有花를 ‘메나리꽃’으로 번역하였는데 산유화에 깃든 사연은 18세기 초 善山郡守 趙龜祥이 기록한 것이다. 조구상은 1702년 일선군(지금의 경상북도 선산군)의 군수

4) 리용악 · 김상훈, 『풍요선집』 조선고전문학선집6,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376~377쪽



로 있었는데 향랑이라는 여자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생겨 그 사건의 목격자인 나무꾼 여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과정에 향랑이 죽기 전 나무꾼 여자에게 들려주었다는 노래를 전해 듣고, 그것을 한자시로 번역하였다.

그는 『一善義烈圖』(일선 고을 의롭게 절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도서)라는 책을 만들면서 메나리의 노래와 향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속에 기록하고 산유화라는 제목을 달아놓았다. ‘산유화’란 ‘메나리’의 한자식 표현이다.⁵⁾

조구상이 나무꾼 여자를 데려다가 심문하여 기록한 이야기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꾼 여자가 음력 구월 초엿새날 나무를 하다가 울면서 지나가는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나무꾼 여자에게 자기는 박자신이라는 사람의 딸로서 임칠봉의 아내가 되었더니, 남편이 박대를 하고 내어 쫓아서 친정에 왔는데 계모가 야단을 하기에 거기에도 있지 못하고 삼촌네 집에 갔던 바, 삼촌이 다른 곳에 시집가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임칠봉의 처는 길재의 비석 있는 곳에 이르자 치마와 짚신을 벗어 나무꾼 여자에게 맡기면서 이것을 부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한참동안 통곡을 하고 나서 노래 한 곡조를 부른 다음 다시 부탁하였다.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네게 노래 한 곡조를 가르쳐줄 것이니 와워 두었다가 여기로 나무하러 와서 이 노래를 메나리곡조로 부르면 내 영혼이 네가 온 줄로 알겠다. 그리고 너도 물결이 빙빙 도는 것을 보거든 내 영혼이 거기에 노는 줄 알아라.”

이윽고 임칠봉의 아내는 적삼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 우고 물속에 몸을 던졌다. 나무꾼 여자는 미처 말릴 사이도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어 죽은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치마와 짚신을 전하고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죽은 여인의 아버지는 물가에 가서 아무리 애썼으나 딸의 주검을 찾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적삼으로 얼굴을 가리운 시체가 나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메나리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민요인데 그 가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랑이 부른 노래가 메나리 곡조에 새 가사를 붙인 것이라는 말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최옥희는 메나리에 대하여 낙동강 기슭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던 일종의 노동가요이며 주로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라 하였다. 아울러 여인들의 불행한 처지가 반영되어 노래곡조가 쓸쓸하

5) 최옥희, 『고전문예작품사화집』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1, 167쪽

게 울린 것이라든가 향랑이(또는 임칠봉의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가사를 메나리 곡조에 맞추어 불렀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알려준다고 했다.⁶⁾

露雀 홍사용은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는 글을 『別乾坤』(1928.5)에 발표하였는데,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메나리는 글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또 시도 아니다. 이 백성이 생기고 이 나라가 이룩될 때에 메나리도 저절로 딸아 생긴 것이니 그저 백성이 저절로 그려저럭 속 깊이 간직해 가진 거룩한 넋일 뿐”이라고 말하여 이를 관심을 표현하였다.

李在郁은 메나리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는데, 「所謂 ‘山有花歌’ 와 ‘산유해’ ‘미나리’ 의 交涉」을 『新興』(1931.12)에 발표하였다. 그는 백제 말엽에 불렸던 ‘산유화’가 신라 군인들에 의해 영남지방에 전래했다고 추정하였고, 상주와 선산지방에서 불려지는 ‘미나리’와 ‘산유화’를 관련지어 ‘山有’는 ‘山遊’로 바뀌면서 이를 훈독하여 ‘뫼노리’ ‘뫼나리’로 통칭되었다고 보았다. 이재욱의 견해는 메나리의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연구자들이 仍用하고 있다.

韓晶東은 『朝光』(1939.10)「내 故鄉의 民謠 情調, 平安道篇」에서 메나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三千里』(1936.8)라는 잡지에 「메나리야 메나리야」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서 高晶玉은 「조선민요의 분류」에서 ‘미나리’의 일종으로 부여지방에서 불린 산유화가 메나리로 된 예를 인용하였다.⁷⁾ 任東權 역시 같은 견해를 견지하여 부여지방에 전하는 산유화와 영남지방에서 성창되는 ‘미나리’과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⁸⁾

그러나 이종출은 山有花歌를 메나리와 별개의 백제가요명칭으로 보았고⁹⁾ 김선풍도 산유화를 山遊歌와 다르게 파악하였고,¹⁰⁾ 근래 음악연구자들은 한국민요를 대표하는 메나리토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주장과 달리 산유화, 산유가, 메나리는 각기 다른 노래가 아닐까 의심해 본다.

다음 둘째는 메나리가 ‘며느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는 산유화의 유래와 연관된 것으로 향랑고사에서 연유된 것이다. “산유화는 산(山) 나리(花) 즉 산나리꽃이라는 뜻으로

6) 최옥희 위의 책 170쪽

7) 高晶玉,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183쪽.

8) 任東權, 『韓國民謠史』집문당, 1964, 32쪽.

9) 李鍾出, 「山有花歌 小攷」『无涯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431~446쪽

10) 金善豐, 「山有花歌考」(其1), 『中央民俗學』第3號,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7~24쪽 참조, 이 글에는 산유화에 대하여 일본인 小原新三의 글에 수록된 한글 산유화가와 知縣 尹昶山, 蒲菴 李師命의 山有花歌吟 한시를 소개하였다.



메나리와 며느리의 음이 서로 비슷한 데로부터 며느리의 슬픔을 노래하는 곡조 이름으로 되었다.”¹¹⁾ 고 하였다.

세 번째는 한자어인 산유화나 산유가와 달리 메나리는 고유한 우리말로서 전래민요 명칭인 ‘아라리’에서 ‘메나리’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 민요 메나리의 개념과 연구

민요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관심은 일찍이 고조되었으며, 지역적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정선아리랑, 삼척메나리, 강릉오독떼기’ 라 하듯이 강원도 지역의 민요는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있다.

김연갑은 메나리의 정착과정을 추적하여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다양한 전거를 동원하여 관심을 다시 일으켰다.¹²⁾ 姜騰鶴은 삼척 메나리의 가창방식 · 가창구조 · 기능양상 · 오독떼기의 비교 등을 논했고¹³⁾ 金英云은 삼척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연구에 이어서 오독떼기와 메나리의 비교 연구했으며, 근래 메나리를 별개의 장르로 보고 있다.¹⁴⁾

李素羅는 한국의 농요를 정리하면서 삼척군 지역 농요 메나리를 채보하여 「민아리와 어산영(산유해), 이른바 산유화가의 비교」라는 글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요권 · 용도 · 가창방법 · 이재욱의 가정에 대한 견해 등을 발표하면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¹⁵⁾

필자는 삼척지방을 조사하면서 채록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척지역 마을신앙과 메나리」(『뜰소리』 제4호, 농민요보존회, 1993.2), 「삼척 메나리」(『강원일보 사라지는 강원풍물』, 1994.4) 삼척과 속초시 도문동 도천메나리를 발굴하였고 필자의 저서에 악보와 가사를 수록하였다.¹⁶⁾ 이후 『삼척시 전래민요 메나리 실태조사보고서』(삼척문화원, 1998)를 낸 바 있으며 속초의 민요를 조사하면서 도문메나리의 실체를 추적하였다.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리용악 · 김상훈, 위의 책, 359쪽.

12) 김연갑, 「아리랑 先行 연구검토와 메아리 원형가능성 고찰」, 『民學會報』 15, 1987, 16~30쪽.

13) 姜騰鶴, 「삼척지역의 메나리에 관한 연구」, 『泮橋語文研究』 반교어문연구회, 1990.

14) 金英云, 「嶺東地方 메나리의 音樂的 研究」, 『국악원논문집』 제4집, 국립국악원, 1992, 「嶺東農謡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比較研究」, 『韓國音樂研究』 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15) 李素羅, 『韓國의 農謡』 제4집, 현암사, 1990.

16) 장정룡, 『속초지방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89쪽.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 〈미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각쟁이들도 불렀으며 통소나 젖대 혹은 풀피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 〈니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곡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山有花〉를 풀어서 ‘뫼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 철’이라 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¹⁷⁾

뫼놀이와 미나리꽃의 어원 설은 앞서 언급한 이재욱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재욱은 이능화의 견해를 인용하여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뫼노리로, 뫼노리에서 미나리로 詛傳하지는 아니하였을가”라고 의심하였다.¹⁸⁾ 이 견해를 수용한 高晶玉은 산유화가와 메나리를 같은 노래로 보았다.

메나리꽃아/메나리꽃아/저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
저꽃이 저서/ 농사일 필역하세/얼렬렬상사뒤여/어뒤여상사뒤(중략)

이 노래는 扶餘古蹟保存會發行 〈百濟事蹟〉 〈夫餘名勝舊跡〉에 실린 山有花曲과 같되, 初句가 〈山有花兮 山有花兮〉 代身 여기에는 〈메나리꽃아 메나리꽃아〉로 되어 있다. 이는 산유화가와 미나리의 교섭에 착목한 이재욱씨의 탁견의 한 유력한 증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氏는 山有-山遊-뫼놀이-미나리로 推斷하였는데 이 노래는 現行 山有花歌가 바로 메나리로 되어 있는例다.¹⁹⁾

이처럼 메나리에 관한 이론은 이재욱 이후 산유화가에서 파생된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 음악적인 측면에서 재론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래 전에 洪露雀이 ‘朝鮮은 메나리 나라’라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메나리’라는 용어는 우리 민요가락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메나리’의 어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메나리라 하는 보물! 한자로 쓰면 조선의 민요 그것이란다”²⁰⁾ 고 말하여 우리민요를 凡稱했다.

그러면 메나리와 미나리, 山有花의 동일민요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이소라는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권 메나리, 1991, 790쪽.

18) 李在郁,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1931.12. 최철 설성경 역음,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126~132쪽 재록.

19) 高晶玉, 앞의 책, 183쪽.

20) 露雀, 「朝鮮은 메나리 나라」, 『別乾坤』(1928.5). 최철 · 설성경 편저, 『민요의 연구』정음사, 1984, 104~109쪽 재록.



‘산유화를 백제가곡으로 보는 것을 의심하고 산유해(어산영)과 산유화곡이 유관하리라는 가능성은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善山지방 부녀자들 간에 성창되는 미나리는 현재 나물을 심거나 벨 때 부르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가사 내용으로 담은 교창식 모노래가 아닐까 의심하였다.

미나리謠은 조선시대 구전민요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 민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 장희빈이 원자를 낳아서 왕비가 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장희빈은 장다리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는 미나리가 사철 푸르듯이 민비에 있다는 것을 예언한 讽謠라고 한다. 가사는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 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²¹⁾ 보아도 민요 메나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는 미나리 노래는 가사에서 “미나리야하 미나리야하 너홀로 피라”라는 것을 보아도 실증된다.²²⁾ 아울러 미나리는 메나리라고도 불렀는데 참메나리요를 보면 “이아이들아 저아이들아 참메나리 캐러가자”²³⁾라는 가사에서 메나리는 미나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리와 메나리는 같은 나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민요를 구분하는 명칭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민요집성』에도 메나리와 미나리를 구분하여 신고 있음에서도 손쉽게 알 수 있다.²⁴⁾

메나리는 뢔노리(산놀이)나 미나리 나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힐 수 있는 것은 밭이나 논김매는 소리인 ‘메나리’가 산을 뜻하는 ‘뫼’와 ‘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원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메나리가 산노래 또는 산간지방의 전래소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설로 메나리는 뢔노리 즉 산놀이로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요라는 견해를 표시하기도 한다.

‘메’는 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밥을 만드는 일 즉 농사일과 관련된 노래라는 생각도 일면 가질 수 있다. 밭이나 논은 산에도 있지만 오히려 평지가 많고 ‘나리’가 ‘놀이’를 뜻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평안도의 ‘기나리’라는 민요 역시 ‘나리’가 ‘놀이’나 ‘나리꽃’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에서 비견된다. 이 노래는 ‘긴아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平安南道 龍岡 江西지방의 남녀가 西海바다 갯가에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얻은 그런 노래라고 일러 온다”는 해설에서도²⁵⁾ 간취 된다. 韓晶東은 평안도 민요를 소개한 「내 故鄉의 民謠 情調」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附記하였다.

21) 『민속예술 사전』 한국문예진흥원, 1979, 123쪽 참조.

22) 李素羅, 『韓國의 農謠』 4집, 현암사, 1990, 742쪽.

23) 林和 編, 李在郁 解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29, 175쪽.

24) 김태갑 · 조성일 편저,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22~25쪽.

25) 成慶麟 · 張師勛 共編, 『朝鮮의 民謠』 國際音樂文化社, 1949, 151쪽 참조.

이 지방의 민요는 打鈴, 기나리, 메나리(外 略함) 三種이 일반 農謡인 同時에 그 主가 되어 있다. 타령과 기나리는 대략 歌詞도 같고 曲調는 꽤 다르나 다같이 盛行하는 것으로 어린 牧童들까지라도 잘 노래하고 있으며 메나리는 農謡이면서도 歌詞가 길고 曲調가 힘든 까닭인지 모르거나와 지금에 와서는 間或 불리워지나 衰退하는 감이 없지 않다.²⁶⁾

이러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메나리’는 ‘민아리’ 또는 ‘미나리’의 연계된 용어로 의심케 된다. 즉 ‘민’과 ‘아리’ ‘아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아리’의 ‘민’은 봉산탈 춤 춤사위에서 ‘민사위’라는 춤사위가 소무나 노장이 뛰지 않고 채지 않으면 곱게 넘어가는 사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접두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메나리, 山有花, 山遊花는 사실상 민요를 표기한 명칭으로 그것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박민일 교수는 메나리를 墾(山)+나(川)+리(人)으로 풀어서 설명한 바 있다.²⁷⁾

김연갑은 아리랑의 ‘아리’를 ‘메아리’ 원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이와 연관된 메나리는 그 의미가 산노래 · 산악인의 노래이며 독특한 가락의 특징과 ‘아리’ 인자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²⁸⁾ 이소라 역시 삼척지방 민요를 수집 채보하면서 ‘민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필자의 관견으로 ‘민아리’의 ‘아리’는 ‘아리랑’ 또는 ‘아라리’의 ‘아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단은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 명칭이 음악적 용어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에 힘입어 ‘메나리’는 ‘산노래’가 아니라 ‘민아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민아리’는 곧 ‘메나리’로서 이는 ‘山遊歌’가 아니라 ‘아라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민아리는 ‘민아라리’의 축약형으로 考究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영년은 ‘아라리(峨羅哩)’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이 곡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전국에 퍼져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소리는 슬프고 원망하는 듯하고 뜻이 음란하며 가락은 여운이 없고 단축하니, 대개 말세의 소리이다. 지금도 전하는데 ‘아라리타령’이라한다.”고 ‘아라리’의 구한말까지 존재여부를 기록하였다.²⁹⁾

강릉 오독떼기도 메나리調라고 하지만 오독떼기와 메나리, 아라리가 같은 소리면서도 다르다

26) 韓晶東, 「내 故鄉의 民謡 情調」, 『朝光』1939.10. 최철 · 설성경, 『민요연구』정음사, 1984, 213~214쪽 재수록.

27) 朴敏一, 「강원도 아리랑의 고장 · 고향론」『평창아라리의 민속문화적 특질』자료집, 2006. 2. 10, 11 ~19쪽

28) 김연갑, 위의 글, 30쪽.

29) 崔永年, 위의 책, 5쪽.



는 변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곡조에 의해 창자나 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속초 도천메나리는 삼척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나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모습을 띤 것으로 보인다.³⁰⁾

따라서 메나리는 ‘맨아리’ 또는 ‘민아리’, ‘민아라리’라는 음악적 용어로서 아라리의 분파로 추정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Ⅲ. 도문메나리의 전승과 활용

도문메나리는 속초의 전래 농업노동요로서 그 명칭은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진 명칭에서 나왔다. 오늘날 속초라는 지명은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輿地圖書』에 처음 나오는데 당시는 86호가 살았으며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었다. 조선시대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였으며 1759년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지명이 유지되다가 일제 무렵 속초의 청초호가 개발됨에 따라 속초리가 커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 1937년 도천면 사무소는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작은 동리이름에서 면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모두 14개리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도천메나리’라는 명칭에 사용된 ‘도천’(道川)은 도천면에서 따온 것으로 도천면은 도문면과 所川面이 합쳐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천메나리’의 주요 전승지인 상도문리는 일제 초기 도문면에 속했으며, 당시 20여호가 살았으며 남녀 합하여 66명이 거주하였다.

강원도 민요 가운데 농업노동요로서 김매기소리인 메나리는 춘천·삼척·양양·속초일대에 전승되는데,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천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도천메나리는 농민들이 3~4명씩 짹은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파소리의 유형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천메나리는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설악산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소리의 유장함으로 미루어 불교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속초시 도문동에서 전래되는 농사과정을 메나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장정룡·이한길, 『속초의 민요』속초문화원, 2003, 48쪽

1) 첫째마당 : 서낭굿

정초가 되면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도문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풍물패가 성황당에 모여서 서낭굿을 친다.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상쇠가 쇠를 치면서 고사반을 한다.

모십시오 모십시오 서낭님을 모십시오
서낭서낭 서낭님 강원도라 속초시에
설악산의 정기받은 도문동에 모십시오
서낭님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라고 비옵니다
물 없는 눈에 물을 주시고 오곡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낭님께 비옵니다

2) 둘째마당 : 논삶는소리

논삶는소리는 ‘소모는소리’로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 즉 거리소로 농사를 짓는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로서 보통은 일 잘 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가는데 소를 모는 성군은 소 한 마리 즉 호리소인 쪽스레로 논을 갈기도 한다. 논을 갈 때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하는 이 소리는 소를 다 몰고 끌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창자나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이러
어디야 이~ 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꼇으로만 찾어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둬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설악산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둬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둬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쟁싸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둬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 가자
이러이러 이~ 어둬 와와

3) 셋째마당 : 모찌고 심는 소리

논을 갈고 한편에서는 모를 찐다. 모를 찔 때도 또한 소리를 하는데 흔히 ‘한춤소리’라 부른다.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 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 이 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이다.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질례)을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기도 한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고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모를 찢으며 모를 다 찌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온다.

논을 다 삼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린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양양·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점심참이 늦기전에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초생달이 지기전에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동자같은 어린모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얼시구 부지런히 심어를 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4) 넛째마당 : 김매는소리

도문동 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메나리는 ‘김매는소리’를 말한다. 보통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치게 되므로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 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부가 소리를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처럼 메나리소리는 참일꾼만이 부른다고 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는 세별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라고 한다.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떴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꽂이진다고 설위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5) 다섯째마당 : 파대치기와 새쫓기

파대치기는 파대를 치면서 그 소리로 새를 쫓는다. 또한 주민들은 참새들이 범씨를 파먹으로 위아위아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도문동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쫓기 풍속도 전한다.

6) 여섯째마당 : 벼베기와 한단소리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나서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한단소리’이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실제로 낮으로 벼를 벨 때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하지 않고 베 놓은 벗단을 묶을 때 한단소리를 하게된다.

얼런하더니 한단 나간다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한단 나간다
그 소리 끝나기전에 나도 또한단 나간다
얼른 흄청흡청 하더니 또한단 나간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얼른 흄청흡청 하더니 나도 또한단 나간다
초승달 뜨기전에 너도 한단이야 나도 또한단 나간다
한단 한단 하지말고 부지런히 하게나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다 나간다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벗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벗단을 세운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넉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7) 일곱째마당 : 마댕이와 벗가리지우는소리

벗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댕이’라고 한다. 태돌(태상)에 쳐서 떨어진 벼 날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하는데 태돌이란 널찍한 돌멩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상도리깨소리는 다음과 같다.

에호 에호 타작 한번 해보소

에호 에호 에호 에호오

상도리깨가 난다

사람들은 많다만은 도리깨소리는 적구나

천석이오 만석이오 금년농사가 대풍이오

그럭저럭 하다보니 금년농사가 다끝났네

탈곡을 하여 벗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벗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벗가리지우는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벗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불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사람과 키를 든 사람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낱알을 삼태기로 퍼서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벗가리지우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자 베를 지우려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세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벗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오
에호에호 에에이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게야 되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쎄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IV. 도문메나리 농요의 특징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 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설악산 신흥사의 불교문화권역에 속한 도문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파소리의 영향을 아닐까 의심된다.

메나리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는다.

김매기 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그게어찌 연줄이냐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겼나 산이높아서 그늘겼지

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여나아여 떼어주오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양양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불러진다. 이에 반해 도문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후렴이 없으나 양양 메나리는 ‘이-하-’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뛰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맬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 하며 오무리면



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맬 때 강릉에는 오독떼기를 부르는데 속초와 양양에서는 메나리를 부른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 이남 지역인 삼척은 속초와 양양처럼 ‘메나리’ 보다는 ‘미노리’ ‘미너리’ ‘미놀이’라는 방언을 쓴다.

삼척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지역과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삼척메나리 주요 음이 ‘라’ 와 ‘도’로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이는 도문메나리도 동일하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 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 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고, 가창방법은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여나주게’를 선창자가 ‘매기는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3소절은 ‘받는소리’를 부른다.

도문메나리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메나리 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밥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된다. 소리를 못하면 진짜 일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도 그것을 반증한다.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삼척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4음보를 고수하는 것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양양메나리는 4·4조의 음수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진다. 또 ‘이-하-’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기 않지만 그 곡조를 들어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음으로 곡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양양지역과 비슷하다.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 도문메나리는 도문동이라는 특수한 불교문화권역의 농촌에서 불려졌으며, 일제강점기 도천면 시절에도 불려서 ‘도천메나리’라는 이름으로도 전승된다. 도문메나리가 삶의 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농경문화가 차츰 사라져가는 오늘날에 민속문화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V. 도문메나리 농요의 보존방향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사방식의 변화에 따라 차츰 사라져가고 있다. 아프리카원주민 한 명이 사망하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듯이 메나리 농요도 본격적인 보존과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속초시의 무형문화자원인 메나리 소리의 다양한 보존대책과 전수계획이 입안되어야 하겠다.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메나리 전수회관 건립과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록이 시급하다.

둘째, 속초메나리 농요의 가창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속초메나리 농요의 음원확보와 채보, 자료발굴, 경창대회 등 학술적 체계화와 소리꾼 발굴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속초메나리 농요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지속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속초메나리 농요 가창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도문동 전통한옥마을 정비 및 민박촌 조성과 민속축제의 기획이 필요하다.

여섯째, 속초의 인물, 강원의 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매곡 오윤환 선생의 학무정 일대를 정비하고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매곡선생의 생가를 중심으로 전통 서당을 재현하여, 메나리의 전승기반을 확보한다.

VII. 속초시 도문동 민요채록 자료

*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댁, 2002. 4. 27

* 김정수 : 여 · 75, 최춘옥 : 여, 80

* 장정룡 조사



【조사상황】 김정수 할머니 댁을 찾아갔더니 동네 할머니 분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있었다. ‘소리는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다가 김정수 할머니가 몇 곡 응해주시자 다들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 했고 소리가 나올 때마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아쉽다’고 말하였다.

【가창자】 김정수(여·75) 도문동 5통 3반, 인제에서 출생하여 한국전쟁 때 속초시 도문동에 큰댁이 있어서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 그 해 24살 때 도문동으로 시집을 와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슬하에 4남매를 두었다. 시조부가 매곡처사 오윤환으로 속초팔경 중의 하나인 학무정을 세운 분으로 유명하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오윤환의 2대조되시는 분이 사 가지고 와 정착한 집이라 한다. 처마 끝에는 매곡고장(梅谷古庄)이란 현판이 걸린 고택이다.

【가창자】 최춘옥(여·80) 도문동 5통 1반, 도문동 토박이로 매곡처사 오윤환의 외손녀이다. 19세에 시집을 가 2남 4녀를 두었는데 현재 동갑인 남편과 같이 예전 친정부모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창자】 박순자(여·77) 도문동 5통3반, 도문동 토박이로 시집도 이곳이다. 살면서 잠시 속초 시내에 나가 살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와 살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가창자】 정영춘(여·75) 도문동 5통 3반, 속초시 척산리가 고향이다. 이곳에 시집을 와 여태까지 살고 있다.

[자료1] 재짱개짱

김정수	재짱	개짱
소수례		넉장
콩죽		팥죽
얻어		먹었니
못얻어		먹었니
사		마
지		꽁

조사자 : 이 소리는 뭐 하며 부르는 소리인가요?

김정수 :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서 놀 때 같이 마주 앉아서 다리를 서로 집어넣고 하나씩 다리를 치면서 소리를 해요. 당첨이 되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양반, 나중에 나오면 상놈 그러면서 놀았지 뭐.

조사자 : 무슨 뜻이 있나요?

김정수 :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한쪽 다리 하나씩 치면서 했다.

[자료2] 둥기타령

김정수 : 둉 둉둥 둉기야
먹으나 깊으나 둉기야
입으나 벗으나 둉기야
둥둥 둉둥둥
우리집에 화목동이야
건너집에 무신통이야
둥둥 둉기야

[자료3] 성님오네

성님오네	성님오네
형님마중	사촌형님 오네
누가가나	형님동상 내가가지
형님 모셔놓고	형님반찬 무엇을할까
앵두같은 팥을삶고	외씨같은 전니밥에
앞집에가 목기닷죽	뒷집에가 사기닷죽
닷죽닷죽 열닷죽이면	형님반찬 될까

조사자 : 닷죽은 무슨 뜻인가요?

김정수 : 닷죽은 50개다. 한 죽은 10개다. 사기 닷 죽은 사기그릇이 닷 죽이고, 목기 닷 죽은 목기가 닷 죽이란 뜻이지.

[자료4] 아리랑

김정수 : 정선읍내 물레방아 궁글대는 해풍산이 삼십육경 서른여섯바구
물살안고 빙글뱅글 잘돌아가는데
시누작네 맞자부야 날안고 왜 못돌아가느냐

조사자 : 이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김정수 : 이 노래는 친정할머니가 불렀던 노래지.

조사자 : 궁글대는 뭐지요?



김정수 : 물레방아 돌아가는 살을 궁글대라고 해요.

[자료5] 자장가

최춘옥 :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조끔만 더자면 엄마가온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너무 우리아기 잘도잔다

(잠시 쉬었다가)

멍멍개야 짖지마라

* 속초시 도문동 박계랑 댁, 2002. 5. 18

* 박계랑 : 여 · 80

* 장정룡 조사

속초시 도문동 가게에서 소리 잘하시는 분을 물으니 소개해주었다. 찾아갔더니 할머니 여러분들이 모여 담소를 즐기고 계시다가 선뜻 소리를 응해주었다.

【가창자】 박계랑(여 · 80), 도문동, 속초시 도문동 토박이다. 생전에 친정 부모가 2녀를 두었는데, 본인이 둘째였다. 친정부모가 아들이 없고 마침 남편도 막내여서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친정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슬하에 아들(61세) 하나를 보았고, 며느리가 손자도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난 관계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예전에는 한 번만 보고 들으면 그대로 따라 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였고, 장구도 잘 쳤는데 며느리가 사망한 이후 상심하여 기억력도 쇠퇴했다고 한다. 조금만 짊었을 때 조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훌륭한 가창자다.

[자료1] 한오백년

박계랑 :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압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아무려면 그렇고 그렇구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뇨

한많은 이세상에 야속한님아
정을두고 몸만가니 눈물이나네
아무려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뇨

[자료2] 에라만소

박계랑 : 서울접자 광주땅에
서울접자 광주땅에
밀대같은 내오래비
어수해(어사화)를 숙여쓰고
세멘춤(세면장고춤)도 잘도춘다.
우리나 부모님 살았더라면
저런귀경(구경) 하시련만은
우리남매 살았다가
귀한귀경(구경) 보는구나
에라만소

박계랑 : 옛날 오빠가 과거해 가지고 내려왔대.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쓴다고 하잖아. 과거 해 가지고 내려올 때 쓰는 거라구만. 이게 다 옛날 뜻이 깊은 소리지요. 에라만소 하면 모두다 좋아하였어. 어수해(어사화)를 숙여 쓰고 나를 데리고 세면장 구들여 매고 여러 나졸을 데리고 오니 얼마나 부모님 생각이 나. 뜻이 깊은 노래다.

조사자 : 이 소리는 언제 부르셨나요?

박계랑 : 처녀 적에 가만히 듣고 배웠다.

조사자 : 언제 시집을 가셨나요?

박계랑 : 19살에 시집을 갔어요.

조사자 : 시집가기 전에도 이 노래를 부르셨나요?

박계랑 : 그럼요. 그때 에라만소 소리를 하면 밤이 새도록 합니다.

조사자 : 그때 하던 다른 소리를 좀 해 주세요.

박계랑 : 이것도 에라만소야. 에라만소는 불여도 되고 안불여도 돼.



[자료3] 에라만소

박계랑 : 삼천장 베레또래(벼룻돌에)
일천장 먹을갈어
부모님의화상 그레(그려)놓고 보자하니
눈물지어 못보겠네
아강아강(아가아가) 그말마라
찬냉수에 목이 맨다.
에라만소 대신이야

[자료4] 강물을 돌고돌아

박계랑 : 강물을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아 하라 어디로가나
요요 사또 능라도 벼들속에 봄비가 온다.

[자료5] 아리랑 (나물캘때 부른 노래)

박계랑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 주께
여수장마 할라른가 저산밑이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넘어간다

박계랑 : 옛날 처녀 적에 저 산(주봉산)에 나물 캐러 갈 때는 늘어진 것을 하여야 산에 올라
가는 것이 힘이 아니 들어.

[자료6] 한오백년

박계랑 : 산천여 초목은 봄마중 짊어만 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짊어질 못하고
노류야 대빠리야 왜 달개드냐(달려드냐)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성화뇨

박계랑 :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숨이 헐떡헐떡하다가 슬픈 사람은 눈물이 나서 울며 올라가고 좋은 사람은 소리하고 그렇지 뭐. 짧은 소리는 숨이 차서 급해서 못해.

조사자 : 밟 맬 때는 어 떤 소리를 하시나요?

박계랑 : 모 심쿨(심을) 때는 여러 사람이 소리하라고 하니깐 하지만 밟 맬 때는 혼자 하는데 소리 언제 하겠어요.

[자료7] 권주가

박계랑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만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년만년을 사신다오
이술한잔 잡으시면은 천세만세를 사실타이니
술이 아니라 먹고노자는 백화주요
이리놓아라 저리놓아라 열이고죽어도 나는못놓겠네

[자료8] 꿩서방

박계랑 : 꿔꿩꿔꿩 꿩서방
자네네 집에 어딨나(어디있나)
이산저산 넘어가서
덤불밑이 내집이지

[자료9] 돈타령

박계랑 : 에라만소
돈나온다 돈나온다
잘난사람은 못난돈 못난사람은 잘난돈
만국통화가 오십전 십전이전 고리동전이 다있어도
각중에 무일푼하니 장부한심이 무한심하구나
에라만소

박계랑 : 이게 어릴 적에 오빠들이 하더라구. 왜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이라고 하나, 돈을 혼하게 쓰다가 돈을 다 써 없어지니 장부한심이 무한심이라고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놀지. 이게 술집에서 기상(기생)들 놀리는 노래래.



[자료10] 뚜뚝이소리(비둘기소리)

박계랑 : 앞산에 뚜뚝이는 뚜둑뚜둑
뒤산의 삐꾸기는 삐삐국 운다
고래명당 열어서서 잠을자니 그방치사(치장) 어떻더냐
앞문에단 용그리고 뒷문에단 황그렸소
그집옆에 무엇을 심었더냐
줄국화를 심었더라
그줄국화속에 무엇이 있더냐
팔십먹은 노인이 갈강낫을 빠빠갈어
지게등테기 달아지고
앞동산에 높은데 우물구물 기울라가서
낙락장송 늘어진가지
툭툭찍어 한점듬뿍 짊어놓고
짊어 소시절에 아들딸 못난것이 한이로구나
에라만소

박계랑 : 그게 얼마나 슬퍼서 아들 딸 못난 것이 한이 되겠소?

조사자 : 뚜뚝이는 뭔가요?

박계랑 : 뚜뚝이는 시방 비둘기를 가지고 뚜뚝이라 해요.

조사자 : 줄국화가 뭐지요?

박계랑 : 화초가 줄국화이던데, 백일홍 같은 것이 줄국화 아닌가. 나는 이 노래를 해도 사실 잘몰라

조사자 : 갈강낫은요?

박계랑 : 꼴 비는 낫을 갈강낫이라고 해. 앞산이든 뒷산이든 뚜둑이든 삐국이든 맘대로 해도 돼, 앞문에는 청룡이고 뒷문에는 황룡을 그렸다네.

[자료11] 검불하는소리

박계랑 :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넘게주게

[자료12] 등계소리

박계랑 : 등등등등 등등등 내손주야
은을주면 너를살까 금을주면 너를살까
등등등등 집안안의 화목동이야
등계등등 등등등기야
부모님앞의 효자동이야
등등등등 등기등등
나라님 앞의 충신동이야
등등등등 등등등기
너는 무신의 권한으로
할머이 할아버지 손끝에 놀고 …

[자료13] 에라만소

박계랑 : 서울이라 치켜달려 서울이라 치켜달려
나무집이 어디없소 괴비고사리 집을짓고
난초잎을 대문달고 양지쪽에 금자리깔고
저문앞에 국화꽃을 한집 뜰嬖쥐고
아장아장 들러나오는 아가씨 저거동보소
은을주면 내가살까 금을주면 내가살까
금도싫고 은도싫고 백년채분 나를주게

* 속초시 도문동 박계랑 댁, 2002. 5. 26

* 박계랑 : 여 · 80, 김정수 : 여 · 75, 김종필 : 남 · 60

* 장정룡 조사

박계랑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아갔더니 그 동안 담바구타령을 제대로 기억해 내었다면서 즐거이 채록에 응했다. 채록하는 동안 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다.



[자료1] 담바구 타령

박계랑 :	구야구야 담바구야 우리의국도 좋거니와 돈도없구 운도없어 저기 저기 저산밑에 밤이면은 찬이슬맞고 곱게곱게 길러서 천하비수 드는칼로 영감의쌈지도 한쌈지 아들의쌈지도 한쌈지 손자의쌈지도 한쌈지 청룡황룡 대통수에 담배한모금을 피우네 또한대를 피우니 또한대를 피우니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있긴 있으나 아이구 할머니 그말씀마소 제비가 적어도 강남을가요 할머니 평생에 외손지 보리로다	너네국이 어떻길래 대한의민국으로 유람올제 담바구씨를 갖고왔지 담바구씨를 뿌렸더니 낮이면은 태양을받어 와싹와싹비어서 할멈의쌈지도 한쌈지 며느리의쌈지도 한쌈지 나의쌈지도 한쌈지 이글에이글에 부쳐놓고 목구멍에서 콜안개피네 손톱과발톱이 육갑지랄을 하는구나 세상만사가 태평일세 딸이나있거던 사우(사위)삼지요 나이가 적어서 못주겠소 참새가 적어도 알만낳고 고추가 적어도 맵기만하고
-------	---	--

조사자 : '이글에 이글에 붙여놓고' 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랑 : 이글이글 탄다는 말이지요.

[자료2] 추워추워춘달래

박계랑 :	추워추워 춘달래	더워더위 던달래
-------	----------	----------

[자료3] 달아달아

박계랑 :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달속에 계수나무 옥도꾸로 찍어내어
-------	--

금도꾸(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칸 집을짓고
양친부모님 모셔놓고 천세만세 살어보자

[자료4] 내손이약손

박계랑 : 내손이 약손이다.
뭔배야 자라배야
무슨자래 …

조사자 : 비 올 때 뭐라고 하나요?

박계랑 : 갈강비는 가라고 오는 비고 보슬보슬하는 거는 오라는 비라던가.

[자료5] 어랑타령

박계랑 : 놀어라 놀아라 짊어만 놀어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요 데헤요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깍깍짖고
우리님의 병세는 아구야짚어 가는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 하늘에 아구야 잣별도 많고
요내나 가삼(가슴)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둉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상(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에헤야 데헤야 데헤야 에헤요둥둥 몽땅내사령아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님도 모른다
어랑랑 어허야 에헤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어지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는구나
어라어랑 어허야 어허야 두둥둥 대한에독립이 왔구나

스스레 북망이 아구야 뭐그래 좋아
꽃같은 날벼리고 아구야 돈벌려 갔느냐
어랑어랑 어허야 애해야 두둥둥 요것도 사령이구나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항(은행)소복판에 묻고요
님그리워 죽은건 신작로복판에 묻어라
어랑어랑 어허야 애해야 좋소 대한의 독립이 왔구나

산이나 고와서 아구야 뒤돌아 보았네
임같은 골싱에 뒤돌아보았네
어랑어랑 어허야 애해야 좋소 요것도 사령이라

치매폭에 쌩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쌩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어랑어랑 어허야 애해야 두둥둥 대한의독립이 왔구나

천길에 만길에 뚫떨어져서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아구야 못살겠구나
어라어랑 어허야 애해야좋소 몽땅내사령아

늘민령 서둘기가 예루화 돈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궈주겠나.
어랑어랑 어허야 애해야 둉둥 요것도 사령이라

물거(물각)는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엇지하여 임자가 없나
어랑어랑 어허야 애해야 둉둥 대한에 독립이 왔구나

조사자 : 늘민령이 뭔가요?

김종필(박계랑의 아들) : 저항령을 같고 그래요

박계랑 : 돌만 있는데 올라갈 때에 불러요. 그 다음에는 안 그랬다우. 돌이 한번 내려굴면 삼년을 내려군다고 하대요.

[자료6] 회심곡

박계랑 :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또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며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아을손가
이삼십일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갚아
어이없고 애닮구나 무정세월 여류하여
원수백발 돌아오니 없던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닮고도 설운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홍안백발 늘어가면
인간의 이해공도를 누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 못하리다
인간백년 다살아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예탄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니 약효힘이 있을쏜가
판수불러 경읽는들 경덕을 입을손가
무녀불러 궂을한들 궂덕인들 있을쏜가
재미쌀을 쓸고쓸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촛대한쌍 벌여놓고 향로향합 불갓추고
소지한장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아을소냐
감홍이나 할까보냐 (감동을 도무지 아니하는가보네)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시전에 전륜대왕
열시왕의 부린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 철봉들고
또한손에 창검들며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등같이 굽은질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문을 박차면서 뇌성같이 소래하며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빠가자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영이라 지체할까
실날같은 이내목에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잣돈이나 갖고가게
만단계뉴에 애결한들 어느사자 들을소냐
애고답답 설운지고 이를어이 하찮말인가

[자료7] 다복녀

박계랑 : 다북다북 다북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젖먹으러 울고가요
부뚜막에 삶은팥이 짹나거든 오마더라.
다북다북 다북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젖먹으러 울고가요
아강아강 다북녀야 실겅밑에 삼년묵은
말뼈따구 살붙거든 느엄마가 오마더라
다북다북 다북녀야 너어디로 울고가니
울어머니 몽준곳에 젖먹으러 울고가요
느어머니
병풍뒤에 그린닭이 해치거든 오마더라
다북다북 다북녀야
울고가지 말고 집으로나 돌아오마

저기저기 서산너머 죽은 고목나무
잎이부야 꽃피거든 느어머니 오마더라

박계랑 : 이기 이렇게 질면서도 슬프더라고.

조사자 : 누구한테 배우셨나요?

박계랑 :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배웠어. 장고도 치는 것을 옆에서 보고는 그냥 배웠어. 갈강낫 갈았더라는 것도 어렸을 때 배운 거고, 삼천장 베레뜰(벼룩뜰)도 그때 배웠어.

조사자 : 어릴 적에 이 마을이 몇 호였지요?

박계랑 : 100호 되었나.

조사자 : 매곡선생 아시나요?

박계랑 : 어릴 적에 여자소학이라고 그러대. 그 집의 손주딸이 둘이거든. 나하고 친구야. 나보다 한 살씩 더 먹었어. 여자를 시집가서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구. 친구에게 부탁해 그 책을 좀 갖다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책을 베끼었지.

조사자 : 매곡선생이 어떤 분이셨나요?

박계랑 : 육모정 그 터는 복판에 비 하나 세웠잖아요. … 준택이 할아버지가 아이들 가르치고 일년에 쌀 닷말이던가, 하늘천 따지 가르치고, 하두 더우니까 나가 가르치려고 육모정을 그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자료8] 지정다치기

박계랑 :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딸이 나면 열녀가 난다

조사자 : 메나리를 여기서 하지요?

박계랑 : 남자들이 하지요. 옴프를 신기하게 넘기더라고.

조사자 : 들어보았어요?

박계랑 : 들어봐도 점심 해이고 가서 잠깐 점심 잡수면 들어가다보면 하구.
그저 우습게 여겼지 뭐. 남형이 양반 여기 있는데, 그 양반이 잘하는데.

조사자 : 소를 모시는 신이 있나요?

박계랑 : 군웅대감이라는 거는 옛날에 마구 있을 때에 귀신 머리다가 달아매던데.
조(종이) 한 장 달아매더라. 여느 땐 안 그러다가 설에 차사 지낸 후 술 한 잔 뷔_unix



고 고기 한 접시 대더라고. 시방 세월엔 안 해.

조사자 : 영등에 무 찌개 하나요?

박계랑 : 영등 때 시방 하는 사람은 해요. 바람영등 내려올 때 별 게 아니더라고. 무 한 대가 리 똑딱똑딱 썰어, 왁찌기 넓적 넓적 썰어 명태 한 마리 넣고, 끓여 가지고 메 지어 가지고, 요만한 데다가 식구 숟가락 수대로 밥그릇에다가 꽂아서 왁찌기 명태 한 마리 넣고 끓인 거 하고 내놓고 “바람님 내려오셔서 우리 농사 잘되게 해주고 집안 식구 다 건강하게 해달라” 하구. 내려오시던 날도 하고 또 올라가는 날도 그렇게 하구 잘 올라가시라고 하데.

조사자 : 15일날 가시나요? 20일날 가시나요?

박계랑 : 보름날 올라가시고 스무날은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베(수부)님이라고 그 러데. 또 마저 해놓고 그래.

[자료9] 아리랑 (나물캐는소리)

박계랑 :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 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산이나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나 속이야 얼마나 깊으겠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 날만 넘게주게
산이나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임과실어(싫어) 혹시래 뒤돌아보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

박계랑 : 아리랑 중간에 노래를 하고 앞뒤로 아리랑을 붙이지. 그저 그래.

조사자 : 밭 갈면서 팽이 하면서도 하나요?

박계랑 : 그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무슨 노래를 하나? 이 노래는 나물 캘 때 하는 노래지.

[자료10] 권주가

박계랑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만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구비구비를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봉자야 술부어라 먹을안자가 알관주라

[자료11] 에라만소

박계랑 : 화란춘성 만화방청요 때는좋구나 봄이로다
잎은야뜰어서 책은불고 꽃은꺾어서 머리에꽂고
동무따라 산에귀경을 가보느니 폭포수는야 좋거니와
산천야정기는 니뿐이냐 이리눔아라 저리눔아라
열리본 죽어도 못놓겠소

뒷노깡(두만강)은 안주로삼고 압록강은쇠주로 삼아
팔포대 기상(기생)은 전봇줄 늘이고 돈없는 건달이 세멘만 치는구나
어절씨구 저절씨구 기화자자 저절씨구 아니아니노지는 못하리다.

[자료12] 뼈꾸기흉내내는소리

박계랑 : 뼈국뼈국

박계랑 : 뼈구기는 왜서 뼈구기냐 하면 우리들은 뼈구기라고 하는데 뼈국뼈국 한데,
옛날에 지 엄마가 일찍 죽고 새엄마를 얻었는데 뼈국을 한 다라 쑤어 놨는데, 옛날
엔 개를 들어매 놓고 키우지. 개가 뼈국을 한 합지 다 먹었대. 얘 엄마는 몰랐지 뭐.



갸를 실컷(실컷) 두드려 주었지 뭐. 개가 죽었대. 여식안지(여식아이인지) 머슴안지(머슴아이인지) 몰라도. 갸(개)가 죽어서 뼈꾸기가 된다네. 개가 죽어서 저 산에 가서 '떡국 떡국' 한 대. 그런데 우리들은 몰라서 '뼈국' 한데(한다고) 그려대.

[자료13] 비둘기소리

박계랑 : 뚜둑뚜둑

자식죽고 에체하고

현투데디 몸에걸고

뚜둑뚜둑

자식죽고 에체하고

[자료14] 천자풀이

김정수 : 자시 생천하니 유유지천에 하날 천

축시에 생지하여 오향을 맡았으니 양생만물 따지

유현미목 흑정색 북방현무 검을현

궁상각치 좌우동서남북 중앙토색에 누루황

천지사방이 몇만리냐 하루광한루 집우

연대곡조 고내금

[자료15] 앵기땡기

김정수 : 재짱 개짱

쇠스레 넉장

콩죽 팥죽

얻어 먹었니

못얻어 먹었니

사마

지 꽁

[자료16] 이빨빠진아이놀리는소리

김종필 :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박계랑 : 앞니빠진 수망대가리

네이빨 지붕위에 던져야
현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나게해다오

조사자 : 수망대가리가 무슨 뜻인가요?

박계랑 : 빠진 것 같고 허장이라구 그런 거이지.

조사자 : 삼베 짤 때 어떻게 하나요?

박계랑 : 잘했는데 잊어먹어 가지고 못 하겠더라구. 우리가 질쌈을 무섭게 했지만 뭐 노래하며 짬너?

[자료17] 베틀가

박계랑 :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난간네 베틀노세

박계랑 : 근디 순서가 어딘지 잊어먹었어. 낮에 짜는 것은 무신, 일광단이요 밤에 짜는 것은 월광단이요 삼형제요 다른 데 가면 잘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하고 우리는…

[자료18] 세상달강

김정수 : 시상달경 시상달경	질루질루 가다가
밥한톨 얻어	고무다락에 치뜨렸더니
머리깍은 새양주가	덜민날민 다까먹고

조사자 : 아이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몰리. '내손이 약손이다. 배아프지 말아라' 그저 그랬지뭐

박계랑 : ‘뭔자래 읍자래’ 그랬는데… 잊어먹었어.

[자료19] 장타령

박계랑 : 어얼씨구 품바야	얼씨구 품바야
질루질루 가다가	밤을한개 얻은걸
얻은밤을 뭐했나	낚수나하나 휘었지
휘은낚시 뭐했나	고기한마리 낚았지



낚은고기 뭐했너	恚치구장치구 다먹었지
풀바풀바 풀바야	얼씨구도 잘한다
너못하면 내할라	얼씨구 풀바야

[자료20]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김계랑 : 진짜 그러면 알을 낳는다네.

박계랑 : 소금쟁이를 잡아 손바닥에 대고 알나라깔나라 하면 손바닥에 노란 알을 진짜로 똑똑 떨구더라구.

[자료21] 제비보고 하는 소리

김정수 : 에히여
강남갔던 제에비는 이집저집 다버려놓고
박씨 하나를 물고 흥부나 집으로 감돌아든다
이리늉아라 저리늉아라 못놓겠네
늉지를하여도 난못놓겠네

[자료22] 화투풀이

박계랑 : 정월이라 소식이왔네	이월매자(매조) 매자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맘을	사월흑싸리 흑싸리나
오월난초에 날아간나비	유월목단에 앉았구나
칠월홍돼지 홀로앉어	팔월공산에 달이떴네
구월국준 굳은마음	시월단풍 다쳐졌네
동짓달에 드는액은	선달시루에 다쳐졌다

조사자 : 영등 할머니가 언제 오지요?

김정수 : 초하룻날

조사자 :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박계랑 : 이월 초하룻날 오면 무 한 대가리 악깨기 뚝딱딱 썰어서 탕 모양 해서 명태 한 마리 넣고 밥 할 적에는 팔 넣고 찹쌀 좀 넣고 밥을 잘 해 가지고 큰 그릇에 퍼 가지고 숟갈이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 개 꽂고 서이면 식구대로 꽂아서 대내에다 내다놓고, ‘이월 초하邋날 영등날이올시다. 그런데 그저 풍신님이라구 그러더라구. 빌적에는… 풍신님요 그저 오늘날 내려오셔 가지고 이 터전 이 명당에 그저 식구 다 모두 고이 곱게 일년 열두 달 삼백예순날 과년 열석 달 하루같이 곱도록 잘 가꿔주시고 금년의 모든 액을 동서남북 사해팔방 맹기더래도 낙성(낙상)재도 없고 관재구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아주고 그저 금년 농사를 재도(지어도) 금절미 대 재미 하나 먹지 않게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발원이올시다.’ 그리고 올라갈 적에는 보름날 올라갈 적에는 또 그렇게 해놓고 빌어요. ‘풍신님 올라가시는 날, 이월 보름날 올라가시는 날, 희망을 다 착실하게 하시고 올라 가시더래도 그저 선달 그믐날까지라도 이 터전 이 명당 잘되게 해달라고 축원이고 잘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축원하지 뭐.

조사자 : 스무날 되면 수부가 올라가나요?

박계랑 : 스무날은 그렇게 해놓고 ‘바람님 모시고 다니는 수부님 다 잘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구. 어른들은 하더구만 우리들은 아니해.

조사자 : 한 지가 얼마나 되세요?

박계랑 : 안 모신지 한 10여 년 되지 뭐. 그래도 문서는 환하지.

[자료23] 다듬이질흉내내는소리

박계랑 :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박계랑 : 다듬이질 때 다듬이나 하지 뭐 노래하나. 손이 안 맞으면 방망이 쌈(싸움) 하거든. 방망이 쌈하다가 이마빡이(이마꽈) 터져요. 마주 앓아 하는 다듬이도 참 둘이 손이 맞아야. 들을 때 아래. 손이 맞으면,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다다복고’ 하고 들리고, 맞다듬이 하는 건 그렇는데, 손이 맞지 않으면 한꺼번에 ‘뚜닥닥 뚜닥닥’ 그래. 저쪽 사람이 방망이를 냅다 치면 이기 딱 맞으면 이마빡이 불거지지 머.

[자료24] 삼잡는소리

박계랑 : 해돛이 책면(체면)에 괴삼열삼을
팔눈으로 무치게 해달라



조사자 : 눈티 나잖아요? 그거 없애는 노래 있나요?

박계랑 : 눈다래끼는 그건 노래가 어딨너. 그게 나면 안셨을 실로 동여매대. 그러면 사그러 지대.

조사자 : 실로 매면 눈다래끼가 없어져요? 그럼 그려놓고 옷 치고 하는 것도 있나요?

박계랑 : 그건 삼서는 건데, 옛날에 어른들 한 대로만 얘기해. 팥을, 새빨간 적두팥을 해가 올라오면 요만큼 뵐킬 적에 대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나가대요. 물 한 반 대접 떠 갖고 팥을 한 댓 개 집어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삼을 잡는 것을 내가 봤어. 삼 셨는 사람을 해오는 쪽으로 앉히더라구. 앉히구는 팥을 가지고 그 사람 삼 선 눈에다가 눈을 감으라고 하고 '해돛이 책면에 피삼열삼을 팥눈으로 무치게 해달라'고 하고 해를 보고서는 물대접에 똑 떨구니 아주 팥에 그저 이런 물방울이가 병그렇게 불더라구. 암만 그래두 열 개구 다섯 개구 다 떨궈서 팥에 물방울이 안 그러면 안 삽는대. 해돛이 책면이라 하대. 삼잡는 이가 요령게 문디며, '아무 살 먹은 아무개가 피삼 열삼이 셨으니 해돛이 책면에 피삼열만을 삭게 해달라'고 하더라구. 팥에 팥만한 물방울이 턱 붙더라구. 팥에 물방울이 하나씩이니 쌍둥이 같애. 고상(고생)시키고 안 나으려 면은 팥에 물방울이 안 불더라구. 불으께는 대접을 살살 가지고 (부엌에) 들어와서 솔 뒤에 놓더라구. 조왕님이 피삼열삼 선 사람을 얼른 삭게 해달라고 빌고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 언제 내버리나요?

박계랑 : 하룻밤 자고 나서 이튿날 내버리더라구

조사자 : 피삼이란 게 뭔가요?

박계랑 : 뻘겋기도 하구 하얀 게 눈에 덮지. 그래도 피삼열삼이라고 하더라구.

조사자 : 삼 잡는 이는 누군가요?

박계랑 :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해주지 뭐.

조사자 : 만약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박계랑 : 그러면 오래오래 고생한대.

* 속초시 도문동 김정수 댁, 2002. 6. 9

* 김정수 : 여 · 75

* 장정룡 조사

김정수 할머니 댁을 세 번째 방문하였다. 마침 혼자 계시다가 이것저것 질문에 친절히 응해 주셨다. 천자뒷풀이, 둥개소리, 한글뒷풀이 등 예전에 하셨던 소리도 해주시고 새로운 것도 불러 주었다.

조사자 : 이 집을 무슨 댁이라고 부르나요?

김정수 : 뒷댁이라고 해요. 옛날에 큰불이 났었다 하네요. 이 동네가 깡그리 타는데 뒤로 이 집만 하나 남았다내요

조사자 : 시할아버지는 누구지요?

김정수 : 매곡선생님. 이름은 모르고 매곡처사라고 하지요.

조사자 : 오윤환이라고 하는데 보셨나요?

김정수 : 시아버지도 못 보았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 왔어요. 5월 달에 돌아 가시고 10월에 시집왔으니까. 사변 중에 다 돌아 가셨거든요.

[자료1] 담바구타령

김정수 :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네울산의 담바구야
니의국은 어떻다구 대한의국에 나왔나
우리국도 좋기는 좋다만은
대한의국에 심화풀이를 왔네
무신 심화풀이를 왔너
천년과부 만년과부 심화풀이를 왔나
무엇으로 그심회를 풀까
담바구 씨를구해 이편대편 던졌더니
오부동이 지었너 대부동이 지었너
그담바구 점점잘자라
곁에곁잎 적치고 속에속잎 뜯어
웅달싹에 수짚은곳에 말려



서울이라 치달려 굽높은 도매로
경성이라 치달려
은장도칼로 어씩비씩 쓸어
총각의담배도 한쌈지 내쌈지도 한쌈지
한대를 먹고나니 천지가아득 진동하고
두대를 먹고나니 일월이팽팽 도네

[자료2] 주머니소리

김정수 : 양석단 두루미 주머니
만수문장에 글자를새겨
굵은샛별 수를놓고
잰샛별 삼칠달아
삼태성에 끈을달아
뒷동산 시누대끝에 달아놓고
올라가는 구관책방 내려오는 신관책방
이주머니 구경하고 가소
그주머니 누가진(지은) 주머닌가
하늘이라 무자선녀 지은 주머니
무자선녀 그주머니 지어놓고 어디를 갔소
양대산으로 구름을타고 비주러(비를 뿌리러) 갔소

[자료3] 자장가(풀미타령)

김정수 : 풀미 풀미 풀미
먹으나 굽으나 풀미
입으나 벗으나 풀미 풀풀
은을준들 너를살까
금을준들 너를살까
풀미 풀미 풀미야
집안에는 효자동이 되고
나라에는 충신동이 되고
이웃간에는 화목동이 되라
풀풀 풀미야

[자료4] 아리랑

김정수 :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술한건달 다잘사귈 터인데 …

[자료5] 춘향이신내리는소리

김정수 : 춘향아 춘향아 양골춘향아
춘향아가씨 슬슬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리세요

조사자 : ‘청사초롱 불 밝히고’ 하는 춘향이 소리 있나요?

김정수 : 춘향전에 나오는 거지 뭐. 모르겠는데, 첫머리가 뭐이 있어 가지고, 청사초
롱 불 밝혀서 춘향의 집으로 들고 가는데 첫머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아이
나. 지금 언문뒤풀이라는 걸, 할머니가 그러니, 아버지는 ‘날 데리고 그런 걸 가르
친다고 그거는 옛날에 무신 선생님이, 그때는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도 아니고 뒷간
이여, 뒷간에 가 앉아서 지은 글 아래, 이 한글을, 이 몹쓸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천
자 뒤풀이를 이게 진짜지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조사자 : 춘향이 신 내리는 것 있어요?

김정수 : 그런 것도 보기만 했지. 몰라요. 이 아랫집 아재가 잘 내려서 한번은 혼이 났어. 노
래를 계속 해주어야 하는데 노래를 하다가 중지하니깐 어떻게 그만 까물치더라구.
봄에 화전놀이를, 저기를 망긋터라 하는데, 거기 나가 화전을 하는데, 아랫집 아재
이름이 봉화야. ‘춘향이 좀 해라’ 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춘향아 춘향아 양골 춘향
아 춘향아가씨 ‘뭐 문서가 있더라구’ 슬슬 내리세요. 양골양골 춘향아가씨 설설 내
리세요 ‘하면 손이 차츰 벌어지더라구 그러면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내 정신이 아니
여. 그러면 노래를 자꾸 대주어야 돌아가는데 그렇게 못하니 후딱 까물어 치대.

[자료6] 잠자리잡는소리

김정수 : 앉은자리 꽁꽁 붙어라
앉은자리 꽁꽁 붙어라



[자료7] 잠자리잡아부리는소리

김정수 : 알나라 땔나라
알나라 땔나라

김정수 : 잠자리 불잡아 가지고, ‘알나라 땔나라 알나라 땔나라’ 하면 손바닥에 알을 넣아요. 노란 게 좁쌀낟 같은 거요.

[자료8] 한글뒤풀이

김정수 : 지역자로 집을짓고 지긋지긋이 사잤더니 인연조차 지중치 못하오
가갸거겨 가이없는 요내몸은 그이없이 되었구나
고교구규 고상하던 우리낭군 굳건하기 짹이없소
나냐너녀 나개(나귀)등에 손질하여 조선팔도 유람가자
노뇨누뉴 노세노세 짊어놀어 늑어지면 못노나니
다댜더뎌 다달이 오시던손님 소식조차 돈절이오
도됴두듀 도담하도다 저몹쓸잡년이 도담하도다
라랴러려 날아가는 원양새야 너와나와 짹을짓자
마마머며 마자마자 맞았더니 인연조차 지중치못해
모묘무류 모지도다 저몹쓸잡년 모지도다
바뱌벼벼 밥을먹다 생각해도 임의생각
보뵤부류 보고지고 한양의 낭군을 또다시 보고지고
사사서서 사시행차 바쁜길에 중간참 늦어진다
소쇼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한양산을 니가거든 임의소식 정쿄가게
아야어여 아다담삭 안던손목 인정없이도 똑떨어졌소
오요우유 오동복판 검은구름 사줄줄줄 미어타니
자쟈저져 잣은종종 만났던님이 편지조차 돈절이오
차챠처쳐 차차리 죽었으면 요런광경 안당할까
초쵸추츄 출출히 서늘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요
캬캬커켜 은장검 드는칼로 요내몸을 비어주쇼
코쿄쿠큐 콜콜이 서늘한울음 어느누가 다당하리
파파퍼펴 파오파오 임의화공 그질없이 보고파오

포표포표 폭포수 흐르는물에 거기평덩 빠졌더라면은 요런광경 안당할까
하하하혀 한양낭군 내낭군인데 편지조차 돈질이라
호효후휴 호접접접 먹었던마음 탐삭 리 아니가네

[자료9] 우러리

김정수 : 우러리야 우러리야
아참 잘 딛는다.
아이참 힘차게 잘딛는다.
어 잘딛는다 우러리야
방구겼다 뽕나무 들어간다 우러리야
칼로 찔렀다 피나무
들어가네 우러리야 우러리
(무신 거 하고)
양장목 끝당목 도리 지둥감
다 들어간다 우러리야
고로쇠 박달 다 들어간다
우러리야 우러리야

[자료10] 베틀가

김정수 : 베틀노세 베틀노세 옥란간에 베틀노세
베틀다리는 네다리요
안질개를 도다놓고 올라앉은 거동보소
잉앳대는 삼형제요 사치미는 형제
눌림대는 외아들이요
걸신대는 강태공의 낚시줄에 목을매고
쥐두강의 나갈새나 새두강에 나갈새나
황소같은 도투마리에

김정수 : 도투마리는 황새같고 바디집 치는 소리는 원론 공산에 녹살알개 치는 소리요. 북드
나드는 형용은 무신 산에 무신 새 드나드는 형용이고… 그런데 다 몰려.



[자료11] 추워추워춘달래

김정수 : 아고 추워 춘달래
고추먹고 맴맴

조사자 : 성주 모실 때 어떻게 비나요?

김정수 : 성주 모실 때는 집 질 때 모시지.

조사자 : 고사 지내지요?

김정수 : 가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가을에
동짓달에 지내.

조사자 : 마궁간에 무슨 신이 있죠?

김정수 : 마궁간에 군웅이 있는데, 없는 집도 있어.

조사자 : 어떻게 모시지요?

김정수 : 소 머리맡에 뭐 달아 매놓고 뭐 가져와도 뭐 놓고 그러던데

조사자 : 뭐 달아매죠?

김정수 : 종이장. 이 동네도 그렇게 달아맨 집이 아직도 있어.

조사자 : 군웅도 있죠?

김정수 : 시집갈 때 따라간대.

조사자 : 고성에서 많이 온다죠?

김정수 : 응.

조사자 : 이 맥은 뭐 모셨어요?

김정수 : 우린 성주제사밖에 없어요.

조사자 : 언제 지내나요?

김정수 : 저녁에. 본래 어떤 집들은 비는 이들을 데려다가 소지올리고 하지만,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것처럼 지내고, 축 고하더라고. 성주에게도 지내고 터에게도 터제사라고 지
내요. 뒤안에 모셔놨어요.

조사자 : 그 안에 쌀이 있나요?

김정수 : 기왓장 돌리고 요만한 단지에 쌀 한줌 넣어서.

조사자 : 터주신이라고 하나요?

김정수 : 터지신이라고 해요.

조사자 : 일년에 한번씩 제물 놓고서, 그때 쌀을 바꾸나요?

김정수 : 그렇지.

조사자 : 그러면 그 쌀은 어떻게 하나요?

김정수 : 바구나마나 찹쌀 집어 세 번 맵쌀 집어 세 번 넣는데, 가을에 가면 녹어서 다 썩고 없어. 그러면 가을에 가서 다 떨어버리고 또 그렇게 집어넣어 놓지 뭐.

[자료12] 각시방에 불켜라

김정수 :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김정수 : 이 거는 각시를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풀뿌래기가 있어요. 개비름이라고 해요. 그 뿌래기를 갖고 ‘각시방에 불켜라 신랑방에 불켜라’ 하고 문지르면 그게 빨개져.

조사자 : 그 거 갖고 오나요?

김정수 : 갖고 오기는 뭐, 그냥 갖고 놀다가 버리는 거지 뭐. 각시대가리 만드는 풀을 뜯어다가 갖고 놀다가 말로는 그냥 버리면 뭐이 된다고 해서. 놀다 들어올 땐 다 뜯어버리고 오잖아.

[자료13] 그네소리

김정수 : 우두그네야
추천이야
나간다

[자료14] 쪽박바꿔주

김정수 : 쪽박바꿔주
쪽박바꿔주

조사자 : 소쩍새는 어떻게 우나요?

김정수 : 소쩍새는 ‘소쩍 소쩍’ 그러지. 쪽박바꿔주 새가 따로 있고.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 ‘쪽박바꿔주 쪽박바꿔주’ 그러더라고

조사자 : 무슨 새인가요?

김정수 : 무신 새인지는 모르지. 내가 울산바위에 돈 받느라고 몇 년 가 있었거든. 거기 새가 그렇게 울더라고.



* 속초시 도문동 김남형 댁, 2002. 6. 16

* 김남형 : 남 · 80

* 장정룡 조사

도문동의 소리꾼으로 소문난 김남형 할아버지를 몇 번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다행히 비가 오는 날 다시 찾아가서 녹음하러 왔다고 부탁을 드리자 하던 일도 중지하고 녹음에 선뜻 응해주었다.

【가창자】 김남형(남 · 80) 도문동 5통 1반, 양양군 강현면 출신으로 19살에 이곳으로 장가들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처음 장가들어 이모님 논 1천 평과 종가 논 1천 평 등 도합 2천 평을 부쳐 3년 후에는 6천 평을 만들었다.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고, 57살 까지 농사를 지었고, 양봉을 시작하여 지금도 하고 있다. 주봉초교 육성회장, 노인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도천 미나리는 이곳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배웠다. 한문서당엔 한 3년 다녔다. 예전에 농악대가 있었을 때에는 팽과리고 잘 쳐서 상쇠를 했었다. 올 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후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조사자 : 미나리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김남형 : 여기 와서 어른들한테 배웠지. 여기 들은 도문들이라고 하고, 저기는 화서 평이라고 하지. 여기서 미나리를 하면 저쪽 들로 건너가고 저쪽 건네서 미나리 하는 소리가 이리로 건너오고 했어요.

조사자 : (소리를) 주고 받고 했나요?

김남형 :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여러이(여럿이) 하니까 소리가 커졌지. 아이짐이라 고 벼가 요렇게 쪘금 할 적에는 미나리도 아이 하고, 술도 못 먹게 했어요. 약한 베(벼) 문닥 그린다고. 두별 짐(김)부터 미나리를 하고 그랬어요.

조사자 : 보통 세별 짐(김) 하죠?

김남형 : 그렇죠. 네별 짐(김)하는 이도 있지만 평균 세별 짐(김) 하죠.

조사자 : 미나리 할 때는 보통 몇 분이 같이 부르나요?

김남형 : 다섯 아니면 여섯 되죠.

조사자 : 소리 매긴다고 하나요?

김남형 : 선창하죠. 받는 사람이 후렴하고

조사자 : 질 짠다고 하나요?

김남형 : 네.

조사자 : 그 사람들이 부르나요?

김남형 :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듣기나 하고…

조사자 : 잘 부르는 사람은 소리만 하죠?

김남형 : 아녀. 같이 매면서 하지. 미나리라는 것이 까다로워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결국 못 배우고 말더라고요. 처외숙, 오세준인가 하는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자료1] 도천미나리

김남형 :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 아어떳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김남형 : 숨 차. 아니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서 따라해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어울리지 않아요.

조사자 : 지정다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김남형 :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러지. 그것도 혼자는 못해요.

조사자 : 명산들 다 주어 섭기죠?

김남형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백두산이 생겨 가지고 …’ 지금 사람들은 모를 기요. 커다란 돌에다가 구멍을 뻥 뚫었어요. 거기다가 낭그(나무)를 지다란(길다란) 것을 꿰 가지고 엊거(엮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뱃줄을 시겹(세겹)이고 네겹이고 하고 저쪽에다가도 뱃줄을 시겹(세겹)이고 네겹이고 해서 소리를 주면 바싹 잡아당기면 돌이 쑥 올라갑니다. 쑥 올라가다간 턱 놓구 쑥 하면 턱 올라가다간 턱 놓구 그래서 줄을 맞춰들죠.

[자료2] 지정다지기

김남형 : (자 집터를 닦을 겁니다. 그러니 다 일심 받아서 해주세요)

산지조종은 곤륜산이라 에헤라 달호야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이 생겼구나 에헤라 달호야

백두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금강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금강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설악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이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주봉산산맥이 흘러내려	에헤라 달호야
이집터가 되었구나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소리맞춰 잘도찍소	에헤라 달호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에헤라 달호야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에헤라 달호야
딸을나면 열녀나고	에헤라 달호야
소를노면 우걱부리	에헤라 달호야
개를노면 삽살개다	에헤라 달호야
삽살개 짖는소리에	에헤라 달호야
오복이 굴러든다	에헤라 달호야
여기찍고 저기찍고	에헤라 달호야
거정다 된거같소	에헤라 달호야
막걸리 한잔먹고	에헤라 달호야

[자료3] 모찌는소리

김남형 : 얼른 하더니 한 춤 (한 춤 떠서 집어내 던졌다) 뜻이죠)

(그러면 연달아서 옆의 사람이)

아으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너만 한춤이야 나도 또 나간다

얼른 하더니 또 한춤 (그러면 또 연달아서 저쪽에서)

나도 또 한춤 나간다.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춤

(야 너 한춤이면)

곱실곱실 하더니야 또 한춤

조사자 : 한춤이라는 게 뭐죠?

김남형 : 모를 뚫어 놓은 것이지.

조사자 : 모 맬 때 뭐하나요?

김남형 : 미나리하죠.

[자료4] 벼베는소리

김남형 : 흠청흠청 하더니 하안단(한단)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하안단

얼른 흠처흠처 하더니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자료5] 벼세우는소리

김남형 : 베(벼) 세울 때도 또 하지. 자 베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그래요,

김남형 : (자 베를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아홉단에 스무단

한타래 세웠습니다

(여기서 스무단을 가지고 한 타래라고 합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넉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타래 세웠습니다.)



[자료6] 도리깨질소리

김남형 :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호-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깨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 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조사자 : 타작할 때도 소리가 있죠?

김남형 : 그것 참 증말(정말) 옛날인데. 태 쳐서 집어던지면 하도리깨가 넘기는 건대… 잘 안 돼요.

조사자 : 상도리깨가 있고 하도리깨가 있는 건가요?

김남형 : 그렇죠

조사자 : 똑같이 생겼나요?

김남형 : 옛날에는 쪽패란 기계가 없어 가지고, 넓적한 텃돌, 널찍한 텃산이라는 게 있어서 거제다(거기에다) 넓적한 둘을 놓고 벤단(볏단)을 감는 줄이 있어요. 감아 가지고 이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감아 치면 한쪽으로 한 두어 번씩 치면 베(벼)가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면 쭉 풀민(풀면서) 던지면 저기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도리깨가 딱 받아서 쳐요. 치면서 “자 때려라. 저-호-저-호- 저 넘어간다” 이렇게 후리면 베를 불끈뿔끈 뒤집어줍니다. 하도리깨란 가로쇠거든요. 하도리깨가 둘이고 서이고 서서 소리 맞춰서 이렇게 하면, “자- 소리 맞춰서 때려야지 도리깨 싸움이 안 나갑니다. 자- 자- 아호 - 어-허-요-호- 넘어간다 자 아래도릿깨 있으면 잘 쳐요. 베 나갑니다 베나가지 않게 잘 때려요.” 온종일 탈곡을 해나 가지고 벤가랫개가 이만큼 되면 저녁에 베를 지운다고 하는건대, 불을 해놓고는 꺼끄랭이 꺼슬린다고 불에다가 옷을 흔들어요. 그래 가지고 입고 자고 했어요. 꺼끄랭이 타라고 하는 거지요. 벤가래를 이만큼 와논 거를(모아 놓은 거를) 또가리를 해놓고, 짚으로 또가리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떠 냄기면(님기면)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워요. 해보라우? 아랫소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난 뒤에 ‘에호 에호 에에이 에호’ 해주세요

[자료7] 벗가리지우는소리

김남형 :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가리 해 놓았어요.
자 한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짝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째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돼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벳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넘어가네 넘어가네 벳가리가 넘어가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겨야 돼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째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조사자 : 벳가리 지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남형 : 지운다는 거는 문지(먼지)를 날린다는 거지. 온 종일 털은 걸 봐(모아)놔두었다가 가래를 들고 설랑 쪽 올라갔을 때 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 맞춰서 하는 거죠.

빙글빙글 돌아가소
손맞춰서 부쳐주오

조사자 : 여기서도 소를 모는 소리가 있나요?

김남형 : 마라소라는 게 영서에서 밭을 갈 때, 논농사 질 때 내가 상일꾼이었어요. 두럼(두 엄) 벌리러 나가면 장부 되고, 둘이 잡아 맹기고 가래질하는 거 있잖아요. 모 심으 러 나가면 한 스레 물고, 한 스레라는 건 쇠 두 마리 가지고 매어가지고 하는 겁니 다. 소 두 필로 하는 것. 쪽스레라는 것은 소 한 마리로 하는 것으로, 뒤에서 번지를 친다고도 하지요.

조사자 : 이랴 올라서라 이렇게 하지요?



김남형 : 그건 영서사람들이나 잘 하지요. 여기서는 … 잘하는 소를 바른손 쪽에 세우죠.

[자료8] 소모는소리

김남형 : 이러- 올라서라

바로가란 얘기다 이소야

어디 둘고 쉬어

야 이러 우후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해는 멀지않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갈자

이리이러 빨리가자

날은 일모하고 이거 큰일 났다

어허 어디여

이러 빨리빨리 갈고 집으로 가자

어허 우후

[자료9] 초초아뢰는소리

김남형 : 대령하였느냐?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

초초 아립니다. 초초 아립니다. 초초 아립니다

아-

어-

어-

이-

미리미리타불

조사자 : 초초 아뢰는 소리가 있나요?

김남형 : 일초, 이초, 삼초 아뢰는 게 있는데….

조사자 : ‘초’ 가 무슨 뜻인가요?

김남형 : 불교계통에서 나와서 우린 몰라요. 그저 어른들이 하니 할뿐이죠. ‘미리미리타불’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불교계통인 것이 틀림없어요. 옛날에 일초, 이초, 삼초 아뢸 때는, 밤새도록 과외라는 걸 하잖아요. 밤과외. 자지 않습니다. 일초 아뢰고, 술 갖

다 먹고 또 놀고 그러다가 이초 아뢴다 하고, 과외 한다는 것이 날 세운다는 거예요.
삼초 아뢰고 아침에 발인 축 읽고 그리잖아요.

조사자 : 상여 소리 후렴은요?

김남형 : 어허 난차. 망인 앞에 가서 ‘초초 아웁니다. 초초 아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담제 후’ 이래요.

‘담제 후’ 하는 것은 상두꾼들 모이라는 뜻이어요.

‘대령하였느냐?’ , ‘대령하였소.’

그러면 저쪽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망인 앞에 들어가서 ‘초초 아웁니다. 초초 아웁니다. 초초 아웁니다.’ 세 번을 합니다. 그리구는 ‘아- 어- 어- 이-’ 한 후 ‘미리미리타불’ 그러면 후렴으로 따라서 또 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조사자 : 드장하고 그 다음날 일초 이초 삼초 아뢰고

김남형 : 드장날 묻어 놔두었다가 그 다음날 묻었지요. 옛날에는 토통 그 식인데 지금은 그식으로 아니하고 가면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발인축 읽기 전에 삼초를 아웁니다.

삼초를 가는 날 아침에 삼초를 아뢰고 발인축 읽고 떠나갑니다.

조사자 : 선소리 하시는 분이 요령을 흔들며 하죠?

김남형 : 그렇지.

조사자 : 상두꾼은 몇 명이죠?

김남형 : 24명입니다.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밖에 저승이로구나’ 하면서 잰소리 넣어 가지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요령도 흔들어 봤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상여 멜라하니 힘들어 (상여는 매지 않고) 요령을 흔들었어요.

조사자 : 봉분 만들며 하는 소리를 뭐라 하나요?

김남형 : 회다지라고 하는데, 여긴 잘 할 줄 몰라요.

조사자 : 후렴은 어떻게 매기나요?

김남형 : 에호라 달호야

[자료10] 목도소리

김남형 : 아-으- 아-으-

어허여차 어허여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어여허차



김남형 : 빨 맞추는 것이니깐, 잘 하는 사람은 ‘저기가는 저 여자’ 하면서 히야까시도 하죠.

[자료11] 자장가(풀미타령)

김남형 : 풀미 풀미 풀미야
은을주면 너를사랴
금을주면 너를사랴
은자동아 금자동아

* 속초시 도문동 노인회관, 2002. 7. 13

* 김남형 : 남 · 80, 오대환 : 남 · 76

김순녀 : 여 · 70, 전기춘 : 여 · 68, 박선춘 : 여 · 65

김추월 : 여 · 65, 이준애 : 여 · 66

* 장정룡 조사

김남형 할아버지 댁을 다시 방문해 노인회관으로 모신 후 도문동 노인회관(2층)에 찾아갔다. 도문동 미나리를 김남형과 오대환 두 분에게서 채록한 후 옆에서 화투치는 할머니들한테서 또 소리를 채록했다.

【가창자】 오대환(남 · 76) 속초시 도문동 태생으로 도천메나리를 즐겨 부른다. 김순녀(여 · 70) 속초시 도문동 10통 2반, 속초 쌍다리가 고향이다. 전기춘(여 · 68) 속초시 도문동 10통 5반, 고성이 고향으로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 박선춘(여 · 65)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속초 토박이다. 가장 많은 소리를 불렀다. 김추월(여 · 72) 속초시 도문동 10통 3반, 양양 강현면 용호리 출신이다. 이준애(여 · 66) 속초시 도문동 10통 4반, 이곳 출신이다.

[자료1] 도천미나리

김남형 : 매여나주게 매여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떳다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 김남형 선창에 오대환 합창으로 녹음을 했다. 소리가 끝난 후 오대환이 ‘동해동창 솟는해가 나의얼굴 비추고’ 가 아닌가 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곧 김남형의 설명을 듣고는 수긍하셨다. ‘지여가네’ 는 ‘늦어가네’ 라는 뜻이다.

[자료2] 초초아뢰는소리

김남형 : 담제고 에이

대령하였느냐

오대환 : 예이. 대령하였소

김남형 : 대령하였소

초초 아쁩니다 초초 아쁩니다 초초 아쁩니다

김남형 + 오대환 : 아~~~

어~~~~

에 ~~~

օ] ~~~

미리미리타불

[자료3] 넘차 소리

김남형, 오대환 : 에에호

어이갈까 에이호

에헤 에헤호

어이갈까 에헤호

[자료4] 화투풀이

전기춘 : 일월송학 속상한마음

이월매조에 맷어놓고

삼월사후라 산란한마음

오월난초에 날아들다

유월목단 ...

* 긴장해서인지 제 곡조가 못나오고 가사는 잊어버렸다. 이하 칠월부터는 소리가 아닌 사설로 읊어주었다. ‘칠월 홍싸리 허숙하고, 팔월 공산에 달도 밝고, 구월 국준, 시월 단풍에 다 떨어지고, 동지선달 긴긴밤에, 나개만 떨어져도’



[자료5] 나물캐는소리

김순녀 :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뿐됐더니
씨쩍새가 다파먹고 쪽대만 간들간들

[자료6] 어랑타령

전기춘 :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떠나는 소리
고무공장 큰애기 단봇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에헤야 데헤야 연사연이로구나

김순녀 :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을 찍구요
나탓이냐 내탓이냐 중매재(중매쟁이) 탓이로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에야 요것이 사령이로구나

간다 간다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침이나 자고가게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데헤야 요것도 사령이로구나

[자료7] 뱃노래

김순녀 외 :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 속이야 뭐그리 깊을소냐
여기야 디여차 어이야 디야 여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탓더니
되지 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거잔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여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벼리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여기여차 뱃놀이가잔다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에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가잔다

기사머리 가려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 데레(데려) 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울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 되었네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울너며 담너며 꼴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랑은 외받아 먹어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노 야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나는야 언제나 남자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어기야 디여차 어이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자료8] 노랫가락

김남형 : 대천바다 한가운데에 뿌리없는 나무새여
가지는 열두가지 잎은피어서 삼백육십
그나무에 열매가열었네 일월이냐 명월이냐

사람마다 벼슬을주면 일할농부가 어디있나
의사마다 병고친다면은 북망산천은 왜생겼소
아서라 끄지마라 화류계여자를 팔세마라



이몸이 학이되어 나래 에다 유령실고
천만리 날어를가니 이별이없는 곳일리라
그곳도 이별보시는 또천만년

오대환 : 가랑잎이 반들반들 고초닢(고추잎)도 반들반들
우리동네 한처녀가 언제나봐도 반들반들
임나만나 고운얼굴에 연주찍고 분바르네
한손에다 술병들고 한손에다 술잔들어
깨끗하게 곱게입고 상코가는 저총각아
여자눈에 이럴때야 남자눈에 오죽하랴

[자료9] 양양팔경

김순녀 외 4인 : 산좋고 물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의 사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뒷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조사자 : 이 노래는 언제 배우셨나요?

김순녀 : 7~8살 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돌아다닌 거 배운 거지.

[자료10] 앵기땡기

전기춘 :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천두 만두 두만두
짝 발레 회양주

[자료11] 세상달강 (아이 어루는 소리)

박선춘 : 실정달강
할머니가 서울가서 밤한되 사온거
고무락에 치뜨린거 머리까믄 새양쥐가 다까먹고

한톨을 냄긴거	가매물에 삶아서
조리로 건제서	껍데기는 아범주고
고물은 엄마주고	너랑나랑 알맹이먹자
실겅달겅	

[자료12] 두껍아

박선춘 : 두껍아 두껍아
현집줄게 새집다오
두껍아

조사자 : 그거 언제 불렀나요?

박선춘 : 대여섯 살 때 불렀어요.

[자료13] 춘향이소리 (신내리는소리)

박선춘 : (손바닥을 모으고)
양골양골 춘향이아가씨
이도령님 만났을때
종글종글 내리시오
생일은 사월 초파일날이요
슬슬 내리시오 슬슬 내리시오
양골양골 춘향이아가씨

박선춘 :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은 두 손바닥을 모으게 해놓고 여럿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리면 손바닥이 슬슬 벌어져 춤을 추고 논다고…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대신
(센) 사람은 그게 안돼.

[자료14] 추워추워춘달래

박선춘 : 추워추워춘달래
더워더워 뎅달래



[자료15] 내손이약손

전기춘 : 자래배 자래배
엄마손은 약손이다
싹싹 문질러 풀어줘라

[자료16] 꿩서방

김추월 : 꿔꿩꿔꿩 꿩서방
자네집이 어딨너(어디있나)
이산저산 넘어가다
덥불밑이 내집이지

대쪽같은 기개와 청빈으로 존경받는 법조인, 김용식

- 4·19혁명이후 부정선거와 발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부장에 선출 활동 -



▲ 30대 변호사 시절



▲ 법판시절의 김용식

“특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국민 앞에 사과하겠다.”
-1961년 1월 21일 경향신문

1961년 1월 20일, 당시 민의원(지금의 국회)의 투표로 선출된 특검부장 김용식(金龍式)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듯 결연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온 국민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4·19혁명 당시 발포 명령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조직된 특별검찰부에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다.

1960년 12월 이미 한차례 특검부장을 선출했으나 본인의 거절로 특검 구성이 무산된 바 있는데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시민학살 책임자 처벌이 미온적이자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과거 정권의 실세와 국회의원, 경찰과 군 고위관계자까지 상대해야 하는 특검의 임무는 김용식 본인의 발언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막중하고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민의원 152명 중 143명의 동의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특검부장에 선출되어 4·19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중책을 떠맡은 김용식.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의 행적만은 또렷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속초 중도문 출신, 독학으로 글 공부 익혀

고향 속초의 ‘청초호’에서 호를 따온 청초(靑草) 김용식(金龍式, 1896~1963)은 1896년 지금의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1929년 나이 33세에 독학으로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변호사 이전의 학력은 입쌍천중등학교(?) 졸업이라고 대구고등법원의 존영관리 대장 자료에 나와 있지만 중도문 마을에서는 ‘용식이는 학교 문턱에 한번 가본일 신 한번 벗어논 일 없으면서도 독학으로 입신양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속초문화 5호(속초문화원 1989년 발간)에서 선친이 김용식의 옆집에서 살았다는 이건석씨는 “김용식씨는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불 기름도 없어 여름철에 옆집마당에서 농부들이 모여 판솔불을 훤히 켜놓고 새끼를 꼬면, 그 방향으로 벽에 구멍을 내어 그 불빛으로 글공부를 했다”며, “당시 동네사람들이 대부분 문맹자라 글솜씨가 뒤어난 김용식이 온 동네의 편지를 대신 써주었다”고 밝혔다.

김용식의 유일한 혈육인 외손자 이명재씨(42세, 속초시 조양동 거주)에 따르면, 김용식은 어린 나이에 고향집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김용식이 하루는 소를 끌고 들판에 나와 누워 있는데, 파리를 쫓느라 철썩거리는 소꼬리에 얼굴을 맞고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소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김용식은 가출을 해 만주로 갔다고 한다.

-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 활동

조선총독부의 직원록에 의하면 김용식(金龍式)은 1923년부터 1928년까지 5년간 강원도경과 원주, 양양, 철원경찰서에서 경부라는 직위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외손자 이명재씨는 “경찰직은 먹고살기 위해 선택한 길로 판단되며, 이후의 행적으로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며, “할아버지는 양양의 3·1만세운동과 농민조합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고 노병 혁용과도 각별한 사이였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경력이 해방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도 광복군

참모장 출신이며 대한민국 초대총리를 지낸 이범석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씨 등이 구명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1929년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용식은 철원에서 처음 변호사를 시작해 전남 순천으로 이주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철원을 떠나 순천으로 가던 날 철원 사람들이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할 정도로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김용식의 변호사 활동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일본이 패망하면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활동을 했다고 전한다. 한 예로 김용식은 자신의 사무실에 일장기를 내걸지 않고 순종황제와 영친왕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다고 전한다.

- 해방이후 청렴 강직한 판사로 활동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김용식은 해방 이후 미군정시절인 1945년 1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판사를 맡게 되며, 다음해에는 목포지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부터 판사 김용식의 행적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김용식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고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려 애썼다는 평을 받았는데, 1958년 이승만대통령의 연임 비토로 대구고법원장에서 퇴직해 판사를 나올 때 전셋집 하나 얻을 돈이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가난한 그의 형편은 당시 동아일보에서 상세하게 다뤘으며, 주변의 독지가와 직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변호사 사무실과 집을 구했다고 한다.

1946년 목포지원장으로 있으면서 적산가옥 한 채를 불하받았는데, 생활이 쪼들린 부인이 집을 팔려고 했더니 지원장 판사로 등기를 해 놓아 팔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 한번은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농부가 고맙다고 닦 한 마리를 들고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는 “당신을 살린 것은 법관인 내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이다”라며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전한다.

- 6·25중 외아들도 군대 내보낸 원칙론자

김용식은 자신과 가족에게도 아주 엄격한 원칙론자였다. 고위직이라면 자식들 군대를 보내지 않던 시절인데 당시 지방법원장이었던 김용식은 6·25 전쟁중에 당시 의과대학을 다니던 외아들을 군에 보냈다. 군의관으로 복무한 외아들 김재근은 낙동강 전투에서 입영 1주일만이 전사했다고 한다.

특검부장을 맡아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와 지낼 때는 청탁 등을 배제하기 위해 당시 유일한 혈육이었던 딸조차도 하숙집에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식은 청렴결백한 절개로 전셋집 하나 얻을 돈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으며 부정과 불의와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정권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정권의 비托에 의해

대구고등법원장직을 내놓게 된다.

“쿠데타를 당하여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4월 혁명의 영령의 품안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뿐이다.”

- 이승만정권의 미움을 사다

6·25 전쟁 중이던 52년 2월부터 부산지원장으로 근무했던 김용식은 이승만의 피난처인 1호 관사 옆에 있는 2호 관사에 거처하고 있었다. 한번은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떠들썩하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바로 이웃에 사는 김용식 지원장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지인이 “왜 인사를 가지 않느냐”고 묻기야, 김용식은 “전쟁중이라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찌 생일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며, “내가 대한민국의 법관이지 이승만의 법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1953년 12월 부산지법원장으로 있을 당시 이승만대통령 저격미수사건의 관련자로 몰려 구속기소된 김익진 당시 서울고검 검사장에게 재판장으로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고검장에게 유죄선고를 내리라는 이승만 정권의 압력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53년 10월 내각책임제 개헌운동의 주동인물로 이승만정권과 정적관계에 있던 서민호의원이 정당방위로 육군대위를 살상한 사건에 대해 김용식 부산지법원장은 정권차원에서의 압력을 모두 배제해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이끌어 무죄를 선고토록 했다.

- 부정선거 해결하겠다며 시위군중 설득

이승만정권의 비토 대상이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행적이다. 대구고법원장인 김용식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장을 겸직했는데, 제4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1958년 5월 2일 경북 월성군 안강읍에서 부정투표가 말썽이 되어 3천여명의 시민이 몽둥이 등을 들고 나와 항의 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져 선거가 중단됐다. 이에 김용식은 대구에서 안강까지 60km를 지프로 달려가 경찰을 철수시키고 시위군중을 직접 설득에 나서 선거를 재개 토록 했다. 김용식은 연설을 통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부정선거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시위군중을 설득해 해산시켰다. 당시 성난 군중을 직접 대면하면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지 경찰서장의 만류도 무릅쓰고 직접 나섰던 것이다. 안강읍의 선거는 결국 부정선거로 무효가 되어 다음해 6월 재선거를 실시했다.

1958년 12월 13일 당시 법관임기 10년이 만료되는 법원장급 5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연임을 제청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김용식 대구고법원장에 대해 연임을 거부했다. 이정권의 비토는 경북 도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권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법조계

에서는 내다봤다. 정권의 비토로 퇴임한 김용식은 퇴임사에서 “법관은 언제나 양심대로만 일하면 신뢰를 받을 것이고 자신도 마음이 편할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 부정선거 처벌 특검부장 활동

퇴임후 변호사 생활을 하던 그는 4·19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0년 9월 24일 대구고검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법관 출신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찰 주요간부가 됐던 것이다. 그 후 4개월 이 채 지나지 않은 1961년 1월 13일 국회에서 그는 65세의 나이에 특검부장으로 선출되어 3·15 부정선거와 시민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특검부장에 임명된 김용식은 “이승만 전대통령을 3·15 부정선거의 최고 원흉으로 언제든지 수사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군관계자와 발포 명령 군책임자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3일 후에 군 관련수사는 발포명령자로 한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이날 김 특검부장은 마치 5·16 쿠데타를 예견이라도 한 듯이 “군대에 의해 쿠데타를 당해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4월혁명 영령의 품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뿐이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5일자)”며, 군 관련수사에 대한 비장한 결의를 내보였다. 당시 군 관련수사에 대해 장면정부를 비롯해 주변에서의 반대가 너무 완강했다고 한다.

특검은 정치권과 행정, 경찰의 비협조와 반발 등으로 제대로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전국에서 부정선거 관련자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고 경찰의 비협조로 부정선거에 관련된 경찰이 도주해 벼렸으며, 국회의원을 구속하려고 국회에 구속동의까지 받아놨으나 당사자가 잠적해 벼렸다. 더구나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특재도 특검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등 이견이 발생해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다.

- 5·16 쿠데타로 특검활동 좌절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김용식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금융인과 기업인들도 기소하고, 충분한 활동을 위해 특검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해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특검의 활동도 중지되고 말았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3·15 부정선거와 시민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김특검부장의 의지는 활동 4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쿠데타 이후 김용식 특검부장은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어 특검활동 중 정보비를 횡령했다고 추궁을 받았다. 부정선거를 처벌하려던 그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피의자로 바뀌어 온갖 수모를 겪게 되었다. 쿠데타 후 혁명검찰부장을 맡았던 박창암은 후에 “김용식은 대구에서 고법원장을 하며 자유당 올빼미 표를 적발한 사람이라 곧은 사람을 처분하면 인정의 씨를 말린다”며, “박정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팔목시계 하나만을 남긴 쓸쓸한 죽음

구금된지 3개월이 넘어 무혐의로 석방된 김용식은 대구로 내려가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 빚을 얹어 사무실을 냈지만, 사건의뢰자가 소송을 해봤자 폐소할 내용이라 판단되면 미련없이 돌려보내기가 일쑤였으니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63년 5월 18일 아침 김용식은 여섯 통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로 67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가정부에게 팔목시계를 팔아 장례비를 써달라는 유언과 주변사람들에게 폐만 끼쳐 미안하다는 유언을 남겼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며 고등법원장까지 지냈음에도 팔목시계 하나만을 남기고 자신의 삶을 정리한 청초 김용식의 청빈한 선비정신과 부정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바로잡아보겠다는 그의 기개는 쓸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961년 1월 13일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된 김용식 특검부장 선출 관련 기사

정리 : 엄경선(설악신문 프리랜서 기자)

謹

故. 이기섭박사님 영결식

2006. 12. 29

東草市 社會葬

弔



山과 人の 영원한 동반자, ‘李基燮 박사’ 설악의 품으로

- 속초시 사회장으로 치러져 -

“강원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기섭 박사는 속초에 정착한 이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에 힘쓰면서 무척이나 산을 즐기고 사랑하시어 설악산악회를 창립하고, 설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아쉬운 흔적만 남긴 채 지난 12월 25일 향년 94세의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하셨다.

그는 사치와 거짓도 모르며, 명성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유난히 산을 좋아하신 탓에 산을 아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라는 말처럼 언론과 홍보매체의 덕분으로, 덕(德)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널리 알려져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된 것같이 크나큰 의의를 지닌다.

이기섭 박사는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도리에서 1913년 11월 9일 1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8세까지 서당에서 천자문을 수학하다 마을의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4학년 수료 후 수안 공립 보통학교에 전학, 16세 되던 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보통학교 4학년 때에 식민교 교육반대와 몇 일본인교사의 배척을 내걸고 단신동맹휴학에 가담하면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단식동맹휴학에 의한 퇴학처분으로 국내에서는 면학의 길이 막혔고 다음해 일

본으로 건너가 광도에 있는 광능중학교 4학년에 편입, 무사히 졸업을 마칠 수 있었다.

졸업과 함께 귀국한 이박사는 농촌에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간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같이 시골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세브란스의전에 지원, 입학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 인술을 농어촌 벽지 무의총에 펼친 배경이 된 것이다.

의전 4학년 겨울, 평양에서 함동실(당시 이화의전 1년생)여사와 결혼하고 38년 졸업과 함께 모교 조수로 남아 의학연수를 계속하다 40년 10월 경도대제대학으로 유학, 수학을 마치고 43년 귀국해 세브란스의전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술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는 2차대전 말이라 국내에는 한국민들이 군사시설 노역장에 동원되어 하루에도 수백명씩 부상과 각종 질병에 죽어가던 때인자라 이들의 치료만도 모든 의사들의 몸을 쪼개서 써도 모자랄 때였다.

이박사도 조선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수영비행장에 파견되어 인부들의 치료에 나섰다.

해방을 맞이한 다음해 서울 적십자병원 외과과장으로 취임하여, 여순반란 사건시 아군과 민간인들의 치료에 헌신하고, 49년 6월 26일 저격당한 백범 김구 선생의 시체를 검안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늘 그 당시를 생각하며 「세상에 그 위대한 애국지사를 일개의 군졸개가 총구를 들이대다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분함을 토로 하시곤 했다.

50년 6·25가 발발하면서 병원과 피난민들의 전상자들의 치료에 임하면서 53년 1월

해군 예비역대위로 제대, 귀원했다.

53년 4월 이화여대 부교수, 다음해 4월 교수로 승진하면서 이대 부속병원장으로 취임했고, 미군 민사처로부터 1만 달러어치의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원조 받아 5층 건물로 증축하고 과(科)도 늘리는 등 병원을 확충했다.

이후 한국산악회 이사와 서울산악회 2·3대 회장을 맡으면서 산사람들의 극기와 체계 있는 산행을 가르치고 또한 조난자들의 구조에 노력했다.

당시 서울법대생 한라산 조난 때의 홍종인 회장과 함께 구조에 나섰으며, 친구들과 북한산의 백운대에 올랐다가 조난당한 송모군을 2일만에 구조하기도 했다.

56년 경도대제대학에서 연구논문이 통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60년 4·19가 나면서 정치적으로 온통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서울을 뒤로한 채 다음해 학교를 후진들에 맡기고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에 내려와 개업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산행을 하고 무의총진료를 하면서 또한 「자연보호현장」을 나름대로 손수 만들어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64년 설악산악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했으며, 66년 10월 1일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한 것이 올해로 어느덧 41회 행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설악산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이박사의 지대한 공로가 들어있다.

등산로개설과 국제 자연자원보존연맹의 조사에서 인적침해를 받지 않은 원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된 증인이 되었고 이같이 설악산이 자연보존지구로 남은데는 이박사가 벌인 「자연보호캠페인」이 큰 몫을 했으며 또한 조사반에 제공한 이 일대에 서식하

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의 수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박사가 산악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조난사고는 69년 2월 14일 해외원정을 위한 동계훈련차 이회성 대장이 이끄는 10명 대원의 「죽음의 계곡」조난사였다.

이때에도 구조반을 총 지휘하여 3일만에 시체를 찾아 설악산 양지바른 곳인 노루목고개에 안장한 것이다.

설악관광개발주식회사(회장 한병기)가 1970년 설악동과 권금성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 사장에 취임했다가 2년만에 천직이 의사인 그로서는 사장이 생리에 맞지 않는 탓에 사임을 하였다.

72년 2월 제주도로 떠나 도립병원 서귀포 분원장으로 취임했다. 서귀포산악회원들과 같이 한라산 북벽에 등산로를 개척하였고, 샘을 찾아내 「백록샘」이라 이름을 짓는 등, 한라산의 등반로 개척과 자연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에따라 74년 2월 조선일보사에서 조난자 구조에 공이 크다고 사회청년봉사상 인(仁)상을, 95년 10월에는 사회봉사부분 속초시 문화상을 수여받으셨다.

이박사의 꿈은 산악학교와 노인병원 설립이었다. 이때 김옥길 총장이 동조하고 나서서 설악산피골에 2만평의 부지를 마련했으나, 곧 국립공원 시설단지 D지구로 묶여 버리는 바람에 이박사의 꿈은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다.

75년부터 속초시보건소장, 도립속초의료원 의과과장과 의사협회장을 지내다 83년 병원 을 떠났다. 이후 틈틈이 산행을 하면서 한달에 한 두차례씩 무의총진료에 나서기도 했다.

이박사에게는 큰 계획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농어촌 보건의료사업협회 창설이며, 또 하나는 노인촌을 건설함이였다.

1983~2001년까지 양양서면 보건지소에서 무의총진료사업을 하여 왔으며 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박사는 이 두가지 계획을 서서히,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추진해 왔으며, 또한 자연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첫째 생활의 장소, 둘째 학술연구장소, 셋째 인간 정신부활의 장소, 이처럼 세 가지 보았다.

그는 스스로가 이 세 가지 의미를 현현했다. 이박사, 그는 내 고장이 아닌 우리 모두가 추앙하는 인물임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신앙생활에 관하여는 일찍이 세브란스 의전에서 공부할 때 세례를 받으셨으며, 1962년 5월 속초에서 병원을 개업하시면서 속초감리교회 교인으로, 부인 함동실 권사와 신앙생활을 하던 중, 1994년에 집사의 직임을 받고, 2000년 권사의 직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료선교위원회 회원으로 무의총을 찾아 무료진료에 헌신하셨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본인의 명의로 있는 임야3000평(속초시 도문동 소재)을 지역 사회 복지와 교회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봉헌하셨다.

유족 부인 함동실 권사

장남 이규형 자부 윤정현(서울)

장녀 이명자 사위 이석만(LA)

차녀 이경자 사위 임창환(서울)

삼녀 이규옥 사위 장희운(홍콩)

사녀 이규희 사위 Rad(위싱턴)

손자 승균 옥은 상수 정수 진수 상용 상현

지훈 재훈 윤경 윤주



부동산 투자 전략과 시장 트렌드



최 평 규 / 속초(양양 · 고성 · 인제)상공회의소 회장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주택은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가구주의 연령대별 구성변화는 적어도 향후 30여 년간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주택수요의 중심계층은 30 - 50대 연령층이다. 통계청의 <장래 추계가구>자료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가구주가 30 - 50대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70.6%에 이른다. 60대 이상인 가구는 19.4%, 20대 이하는 10%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가구주가 30 - 50대인 가구의 비중은 67.6%로 줄어드는 반면, 60대 이상 가정이 이끄는 가구는 26.4%로 급증 할 것이다. 집을 처음 마련하거나 넓혀가는 연령대인 30 - 50대 가구의 비중감소는 주택수요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고령 가구주가 이끄는 가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 재고주택 가운데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1955 - 1963년생)는 2010년 경부터 본격 은퇴기에 접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 부양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노후 대비가 막막한 세대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노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역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을 순

차적으로 현금화 할 가능성도 높다. 둘 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다.

향후 10년간 주택시장 수급전망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 큐는 1989년에 쓴 논문에서 “미국의 주택가격은 25 - 40세 인구 비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의 회귀식은 그때까지의 주택가격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다. 자신감을 얻은 맨 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 연령대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1990년대 미국 주택가격은 역사상 보기 드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요인만으로 주택가격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그 밖에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10% 늘어나는 것 보다 수준이 높은 가구가 1% 증가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또 아무리 주택 수요증가세가 둔화되어도 주택공급증가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면 집값은 오히려 된다. 이 같은 모든 요인을 감안 할 때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전망을 살펴보자. 정부가 내놓은 전망은 언제나 장미 빛이어서 100%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2002년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 : 2003 -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해 2008년 44만 가구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줄 곳 떨어져 2020년경 37만 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한편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 가구의 주택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된다. 그 결과 2000년 77.4% 이었던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2012년 110.6%로 증가하고, 전국 기준으로는 96.2%에서 116.7%로 상승 할 것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거의 다 해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은 경제성장과 가계 소득변화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투기적 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감안 할 때 정부의 관측은 「투기심리가 잡히고 주택공급이 원활이 이루어 질 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향후 10년 안에 하향 안정세를 시작 할 것」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차별화 양상

이처럼 향후 10년간 주택가격의 향방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택 시장 내부의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짚어 낼 수 있다. 고령화와 저 출산, 핵가족의 재 분열 등에 따라 주택시장 차별화 양상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점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렸다. 이는 이 시기에 베이비붐 세대가 40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평수 늘려나가기]에 나선 점이 관련이 깊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에 접어드는 2010년경을 고비로 흐름은 반전될 전망이다.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구형태인 [부부+자녀]가구는 2000년 전체가구의 48.2%에서 2010년 45.5%, 2015년 43.8%로 감소한다. 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18.4%, 2015년 19.9%로 갈수록 증가한다.

한편 노인가구 즉, 65세 이상의 부·부 또는 독거노인 가구의 비중 역시 2000년 9%에서 2015년 14.3%로 크게 증가 할 전망이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3.8%에서 2015년 7.3%로 2배 가까이 증가 할 것으로 추정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40·50대 인구비중 감소는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다. 반면 1인 가구와 노인가구의 급증은 소형평형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아울러 젊은 층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심의 원룸과 오피스텔이 재조명 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턱이나 계단이 없고 흠포토메이션 설비가 완비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기조가 과연 바뀔까(?)

『집값은 대통령에게 물어라』라는 부동산 投資格言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그만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같은 맥락에서 『인내심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정책이 확 달라지곤 했기 때문이다. 8·31대책도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관측이 부동산업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 촉진이었다. 주요정책의 수단은 선 분양제도와 분양가자율화, 그리고 분양 권리 전매, 낮은 보유세율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투기유인책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후 분양제·분양가 규제·분양 권리 전매 제한·보유세 강화 등의 방향으로 수정 됐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택 시장의 수급균형을 맞추어 가겠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참여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전국기준 주택 보금률이 100%를 넘어 섰다.

주택정책의 방향전환은 단순한 민심달래기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발전단계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그 동안 민

간의 힘을 빌려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투기,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때라는 상황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시장 고삐죄기가 다소 완화 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발전단계상 정책기조 자체가 U턴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주택시장의 중·장기흐름은 《부동산 실패신화에 대한 도전이 본격 시작되며 상품 규모와 유형별 차별화가 극심해 진다》로 요약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성격이 《저 위험 고 수익》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겠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목표 수익률을 전보다 낮추어 잡을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인구구조·소득 등 거시변수를 감안 할 때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둔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년(2006년도)부터 도입되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 될 경우[다운 계약서] 관행이 사라지면서 취·등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평균적인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앞으로 부동산투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리한 대출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시장기류가 급변하면서 예기치 못한 시점에 국지적인 가격폭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아파트·토지·상가 등 전통적인 투자처 외에 리츠·부동산파생상품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위험이 적은 복합부동산 상품에까지 관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관점에 입각해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투자처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컨대 가구구성 변화를 감안 할 때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소형 주거공간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막연한 지역개발 재료보다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간선 도로 신설 등 효과가 확실한 굵직굵직한 재료에 관심을 가져야 투자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건강 도시 속초에 바라는 두가지 제언

허 춘 권 / 대한적십자사 속초지구협의회장

먼저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수준은 너무나도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속초시의 노령화 지수는 큰 증가추세(2003년 41.2%)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80%이상이 의료비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며 고통 받고 있다. 더구나 「2004년 속초시청 주요업무 시민만족도 평가」에 계재된 사회 복지과의 분야별 만족도를 보면 노인복지 측면에 노인교육(95.5%), 노인복지시설(83.3%)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노인여가시설(69.9%)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수혜자가 되기 위한

행정절차(56.0%)로 나타남은 시민 모두가 노인층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속초시와 인접군인 양양군은 현재 약 490세대(월 지역건강보험료 15,000원 이하)의 저소득층(독거노인 · 장애인 · 고령자 · 만성질환자 · 기타)의 지원으로 월 500만원, 연간 6,000만원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군민이 함께하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아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2006) 인제군, 원주시 또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으며, 그 예로 최근 파주시의 경우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서 보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으로서, 만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차상위계층 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반면, 우리 속초시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부가 세대수는 18,000~19,000세대이고 이 중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수는 1,862세대이며, 이 중 65세 이상은 641세대이다. 65세 이상인 641세대의 월 보험료의 총합계액은 월 3,861,960원이며 연 43,343,520원으로 인접한 양양군에 비하면(비교대상 항목에 다소 차이는 있음) 세대수는 많고 금액 면에서는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속초시는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속초시 보건소의 「노인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시범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 60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자 등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노인건강 관리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이 다각적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지역내 대학과 연계한 중·노년을 위한 균력강화훈련을 비롯한 건강강좌, 건강운동실시, 거동불편어르신을 위한 가정방문 노인운동의 실시 등 노인보건복지영역과 「2004년 속초시정 주요업무 시민만족도 평가」에 게재된 청소년 문화공간(54.9%)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공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하고 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 삶에 있어 우리는 고령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박탈되

면서 부담으로 남겨진 고독,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문제는 이미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음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또한, 최근 젊은 세대의 부양의식의 감소는 노년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생계를 위한 비축보다는 자녀를 위해 투자해 버리고 자녀의 존적인 형태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다각적인 노력으로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줌으로서 속초시가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로 거듭남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향상된 복지도시로 발전되길 기원한다.

두 번째, 속초시에 건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여름철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장마기간이 유난히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래도 발 빠른 대응과 인근 재해지역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원인에 능숙한 대처를 잘해준 셈이다. 그에 힘입어 2006년 중추절 황금연휴의 관광객 수는 전년에 비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할 즈음 또 다른 반가운 몸짓에 희망의 기대가 된다.

유럽 및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보다 나은 인간 삶의 질과 건강증진 그리고 그에 따른 도시 관리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함으로써 건강과 휴양 그리고 관광을 모태로 하는 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특별서, 서울시 도봉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성동구, 부산시 진구, 금산군, 창원시, 제주도, 경상남도, 남해군, 원주시 등 이미 11곳에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과 환경개선, 환경보호, 강건한 공동체 참여 권장, 건강정보공유 시스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흡연과 고혈압이 주요한 건강 문제로 정의되어진 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속초는 어떠한가? 산, 바다, 호수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다.

그럼 과연 건강도시란 어떤 도시일까?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시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개념으로 도시화로 인해 불거진 보건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건강도시의 목적이며, 도시화의 바른 진전으로 인해 그에 맞는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맞춤형 보건행동들의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인구증가,

해로운 공기 및 물, 고밀도의 주거 공간, 교통정체, 하수처리 등을 해결해줌으로써 안락한 가정과 평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는 상호 보완성이 있는 도시라 간략히 설명할 수 있겠다.

국제적 기구인 WHO는 이러한 건강도시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시민의 차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설정이다.

최근 속초시는 “바다에 속초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모토로 수산 어족자원의 개발과 그와 관련된 각종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으뜸 속초는 비단 시민단체들과 공무원들의 몫만은 아니다. 시민 모두의 것이기에 여기서 멈춰 서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생각하면 꿈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 낸다면 그것을 현실이 되고 실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도시 전체가 건강해져야 한다. 건강한 도시 속에 밝은 희망을 일궈내는 체계적 속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속초시도 건강도시를 선포하고 그 속에서 서로 연결된 국제적 감각도 정보교류 함으로써 서로가 살기 좋은 건강 휴면 관광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토문화체험장 속초시립박물관

정종천 / 속초시박물관 학예담당



▲ 수학여행단 체험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박물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문화향수 증진이라는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문화기반시설이라 말할 수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사장되어 가는 속초지역의 역사·민속자료를 수집·조사를 통해 속초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속초의 독특한 문화형태인 산악·어촌·실향민문화의 복원과 전승을 도모하며, 나아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11월 4일 개관하여 한 돌이 지났다.

2. 속초시립박물관의 운영방향 및 실태

속초시립박물관은 타 박물관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시위주 및 관람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문화체험위주의 박물관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 전통혼례



▲ 민속놀이(널뛰기)

이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실향민문화촌 가옥의 개방과 민속자료에 대한 촉수는 물론 사용을 허가(권장)하고 있으며, 연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시풍속행사(설날 · 입춘 · 정월대보름 · 단오 · 한가위 · 동지), 체험프로그램(이북5도가옥 숙박, 이북 음식, 북한민속예술), 테마행사(피난민생활 체험, 전통재래시장 운영, 도자기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박물관 : 어린이날 행사 등),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방학중 2회), 특별전시회(옛사진전 등)를 시기에 맞춰 시행하였으며, 속초시립풍물단을 활용한 매일 2회의 상모판굿 공연을 실시하고 있어 기존 전시된 민속자료의 관람과 더불어 관람객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 속초시립풍물단 운영

속초시립풍물단은 지역의 공연문화예술의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속초시립박물관 개관과 함께 창단되었다.

속초시립풍물단의 6명의 상임단원과 3명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향민문화촌에 상주하면서 매일 2회(오전 · 오후 각 1회) 상모판굿을 공연하고 있으며, 속초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공연(협연) 활동과 더불어 국악강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동해안별신굿 · 북청사자놀음 · 태평무 등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이수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4. 관람객을 통해 본 운영성과

속초시는 인구 9만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 불과함에 따라, 연간 500만명에 달하는 설악산관광객에 의존한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어 속초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의 관람객수를 분석해 볼 때도 관광도시답게 관광시즌에는 비교적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지난 4월 · 5월 · 7월 · 8월 · 10월 봄철 · 피서철 · 단풍철 관광 시즌에 수학여행단과 주말과 연휴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관람이 많이 있었다.(관광시즌 관람객 : 34,517명中 유료 19,065명)

또한 박물관 · 문화촌에서 개최하고 있는 체험행사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속초시립박물관의 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행사개최 9회 15일 10,127명중 유료 4,594명)

아울러 주중(평일) 관람객의 확보를 위해 속초문화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청소년 국악전수교육 · 방과후 사물놀이 강좌)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장(소풍)으



▲ 시립풍물단 판굿공연



▲ 전통민속체험(새끼꼬기)

로 활용되어 관람객을 유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속초시립박물관 관람객은 박물관에 주관하는 체험행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속초시립박물관이 박제되어 있는 전시위주의 박물관운영이 아닌 문화체험이 가능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있다.

참고로 2006년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460명(유료 30,861 무료 26,599), 1일 평균 178명($57,460\text{명} \div 323\text{일} = 178\text{명}$)이다.

5. 속초시립박물관 시설·운영 개선계획

속초시립박물관은 보다 향토색이 묻어나는 박물관과 문화촌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북5도가옥·피난민가옥 그리고 속초역사에 대한 내·외부 전시개선을 통해 실생활모습을 재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박물관 전시실에는 다양한 소장유물의 전시를 위해 진열장의 추가배치, 기획전시실의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박물관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향민문화 학술세미나 개최, 실향민구술사 제작, 학정건축일기 번역 사업을 통해 실향민문화에 대한 학술연구와 함께 소장자료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부지의

추가확보, 공동취사장을 건립하게 되며 지역의 문화·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한 관람벨트 사업을 통해 관람객의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설악산 여관단지 및 지역의 콘도업체와 함께 수학여행단의 유치에도 적극 동참하여 속초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체험관광지로써의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도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일대를 통일관광 실향민문화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이북5도 기록보존관 건립, 북한민속예술 체험장 조성, 통일로 가는 열차 등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관람객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박물관·문화촌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세시풍속행사, 실향민문화체험행사, 박물관 문화학교, 이북5도가옥 속박체험행사와 함께 북청사자놀음 전수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전수 교육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기능 또한 확대하여 우리민족 전통민속예술의 보급과 전승사업을 추진하여 속초역사와 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 민속놀이(투호)



동유럽을 다녀와서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정한 해외 문화탐방 일정에 따라 지난 2006. 8. 30~9. 7까지 이대근 지회장을 비롯 18개시·군 문화원장과 함께 25명의 일행이 동유럽 문화탐방을 다녀오면서 가슴 벅찬 감동과 역사적 의미를 담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첫째 날. 2006. 8. 30

우리 일행은 춘천을 출발하여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에 도착, 출국수속을 마친 후 러시아 항공기로 모스크바로 항발 하였다. 기내에서 나의 느낌은 한국인이 약80%, 기타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인이 20%정도로 생각되는 데 유감스럽게도 안내방송은 러시아어와 영어뿐이었다. 또한 무표정한 스튜어디스의 얼굴로 웃음이 없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스튜어디스들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절을 생각케 했다.

한편 그 가운데에서도 국적은 모르지만 '나타사'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미모의 젊은 여성이 어린꼬마 사내아이에게 가슴을 열고 모유를 먹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감동적이었고 해맑은 웃음과 재롱을 부리며 기내 통로를 아장아장 다니는 모습에 기내의 많은 여행객들에게 귀여움을 사기도 했다. 한국여성 80%가 모유를 먹이지 않는다는 통계 숫자를 생각하니 이 여성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항공기는 1천 미터 상공에서 900km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으며 뭉게구름 밑으로 전개되는 중국, 몽골지역의 끝없는 초원과 낮고 높은 산, 크고 작은 호수와 강줄기를 보면서 정말 "세상은 넓고 크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는 동안 7시간의 시차를 통과 후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일행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출발기 위하여 수속을 마친 후 저녁 7시

석양빛을 강하게 받으며 트랩에 오르면서 프라하에 도착하니 밤9시30분,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입국수속을 마친 후 가이드의 안내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 둘째 날 2006. 8. 31

《체코 → 프라하》



체코는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과 비슷한 7만8천여km²로 경제는 세계 12위로 부유한 나라이다. 수도인 프라하는 수원의 면적과 유사하고 120만 명의 인구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로 허가 없이는 증·개축을 할 수 없고, 500년의 고풍을 그대로 간직한 중세도시의 건축물, 동화속의 매력을 지닌 시내를 감탄 속에 주마간산 격으로 돌아보며 프라하의 역사와 한눈에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하는 체코 중서부 블타바강(몰다우강) 연변, 리베강(엘베강)과 합류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나라 경제, 정치, 문

화의 중심도시이고, 도시 한복판으로는 그 유명한 블타바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세계2차대전과 그 외 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그다지 저항하지 않았기에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에 등록한 문화유산들이 지금까지 남게 되었다고 한다. 1968년 1월, 그 유명한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는 자유화의 운동이 바르샤바 조약 연합군의 침입으로 짓밟힌 역사적인 곳이다. 우리일행은 그 유명한 성 비수트성당 앞에 엄숙한 자세로 도열하여 차례로 성당내부에 들어섰고 많은 관광객 또한 조용히 관람을 하고 있었다. 일부 관광객 중 성도들은 성스럽게 성호를 그으며 아름다운 성모상과 사도들, 악마들의 나상, 천사,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자신의 죄됨과 초라한 신앙심을 되돌아보면서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천상의 요정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비투스성당은 하늘을 염원하는 뜻으로 고딕양식과 바르크양식으로 19~20세기에 여러 건축가들과 미술가들에 의하여 완공되었으며 성왕의 왕관보석과 무덤이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성당 정 가운데의 동그란 “장미의 창”은 창조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고 가이드는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어느 여행가가 쓴 글에서 본 바투스성당의 극치를 칭찬하면서 “추한 인간의 마음과 손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고귀한 건축, 조각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며 “이는 하늘의 요정들이 밤마다 인간 몰래 내려와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한 글을 생각나게 했다.

일행과 삼삼오오 나누어 기념촬영을 한 후 동쪽에 놓인 많은 계단을 내려와 시내를 가로질러 아름다운 프라하의 휴식처 “카를교”에 다다르니 이곳 역시 많은 관광객과 연인들이

복잡성을 떠며 가득 돌다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광객이면 반드시 이곳을 찾는 관광의 명소 “카를교”는 600년 전에 완공된 석재교로서 소원을 기원하는 다리라고 한다. 나도 성모마리아상에서 발에 손을 얹고 우리일행이 건강한 가운데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건강을 기원하며 기념촬영에 임했다. 카를교는 길이가 530m, 폭이 16m인 석재교로 아래는 검푸른 몰타브강이 흐르고, 많은 여객선과 화물선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카를교”를 뒤로하고 16세기에 고딕양식으로 지어진 “황금로(골목길)”에 들려 동화에 나올법한,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길인데, 원래 이곳은 성에서 일하는 집사와 하인들이 살던 곳이었으나 후일 연금술사들이 모여 살면서 “황금소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16세기 옛날 모습 그대로 거리모습을 보전하고 있었으며, 기념품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오후에 오스트리아로 이동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도보로 11~12세기경에 지어진 프라하성 외각만 돌아보고 민주주의 항쟁의 광장 “바츨라프광장”에 이르렀다.

1968년 4월에 연방제로서의 이행, 경제계획추진, 민주적인 선거법제도의 창설,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보장 등 자유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였고 그때 “프라하의 봄”이 오도록 전 세계가 성원을 보내고 기원하였으나 구소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으로 20만 명의 연합군을 동원하여 무력 침공한 “프라하의 봄” 기념 광장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 TV로 방영된 뉴스를 연상해 보았다.

○ 셋째 날 2006. 9. 1

《오스트리아 → 비엔나》



프라하에서 조식 후 비엔나로 출발을 하였다. 가는 내내 끝없이 펼쳐지는 농경지, 해바라기 농장과 옥수수밭, 포도밭은 말 그대로 끝없는 평야의 곡창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가 찾은 비엔나는 면적이 남한의 면적과 비슷하며 인구는 150만 명이고 도나우강(다뉴브강) 상류에 위치한 유럽의 고도(古都)이다. 지금도 중부유럽에서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로 수백 년 동안 대제국의 수도였고,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정치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 도나우강은 독일남부의 산지에서 발원이 되어 헝가리를 거쳐 흑해로 흐르는 국제적인 하천으로서 길이가 2,850km나 된다고 하였다.

음악의 나라 비엔나는 세계적인 음악의 대가들인 모짜르트, 요한스트라우스, 하이든, 피아노의 대부라고 하는 체르니가 탄생한 곳이다. 금년은 1750년에 탄생한 “모짜르트” 해로 정하여 많은 기념공연이 연주되고 있다고 한다.

음악가들이 잡든 일명 “시립공동묘지”로 우리 일행이 이동하는 동안 거리에 놓여있는 각종 건축물, 기념탑, 조형물들을 구경하며 1백년사의 역사를 지닌 “음악가공동묘지”에도착하게 되었다.

생존한 지금의 음악가들이 죽어서 묻히기를 원한다는 이곳에 요한스트라우스, 베토벤, 브람스, 외 많은 음악가들이 개성 있게 각양각색으로 조각된 석재묘에 묻혀 있었고, 일행 중 삼척 김원우 원장이 즉흥적으로 베토벤의 작곡 “보리수”를 묘소 앞에서 부르니 우리일행은 빈실버합창단이라도 된 양 함께 합창한 후 정치가의 무덤, 유명 인사들의 무덤을 돌아보고 “미사의 성당”안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에 임했다. 나는 베토벤의 묘소에서 그가 죽을 때 제자들이 유언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너무 늦었어!”라고 말 했다는 글귀가 생각났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올해가 “모짜르트를 기념하는 해”라고, 그도 돈에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많은 빛에 쪼들려 “진흔곡”을 주문받아 작곡을 하다 죽음을 맞았다는 어느 누가 쓴 글귀가 생각나 이곳을 스치며 되새겨보았다.

우리 일행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혐한 바람과 비가 많이 내렸으나 오늘은 좋은 날씨 속에 탐방을 할 수 있어 기분들이 좋을 것이라 가이드가 말하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집”으로 안내하여 모처럼 맛있는 김치와

된장찌개로 중식을 하였다. 자리적 기후와 풍토 때문에 모든 음식이 몹시 짜게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번 여행 중 가장 애로사항이었다.

이후 링도로(벵그라) 음악공원, 오페라하우스, 봄궁전, 국회의사당, 아테네여신상, 국회의사당, 시청과 시청공원, 왕실극장, 비엔나미술대학, 비엔나국립극장 외 시민공원에 청동, 금동으로 세워진 요한스트라우스 상을 뒤로하고 “쉘브룬궁전”에 도착하니 이곳 역시 세계 각 나라 관광객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쉘브룬궁전은 여름철 별궁으로 요제프1세를 위하여 1700년경 완성된 성이었으나 마리아테레지아 여왕시대에(1744-1749) 개축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은 거의 없어 졌다고 한다. 우리일행은 “유린장군의 겨울궁전”, “국립극장” 백남준 화백의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 “마리아테레지아여왕상”, “자연사 박물관”, “영궁광장(박물광장)” 1940년 “히틀러”가 연설한 대통령의 집무실, 함브르크 지하보물창고 등을 구경하는 동안 넓은광장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실버악단의 경쾌한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1~5세기경 로마병사들의 생활터전을 보고 중세기 3만 명이 “페스트” 병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왕관을 벗고 왕이 하늘에 무릎 끓고 빌었던 건축물 앞에 세워진 “기념탑”, 1147년에 건립되어 2차대전 당시 파괴 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쉬테판성당”을 보면서 감탄사만 내뿜었다. 이 성당은 “로마레스코” 고딕양식으로 건축되었고, 유명한 것은 “하이든” 이 성가대를 이끈 곳이면서 “모짜르트”가 결혼식을 올린 성당이라는 설명이다. 오후2시 “헝가리”로 출발하기 전 쇼핑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주어지기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옷가게에 들려 손자녀석들의 선물을 준비한 후 우리 몇몇은 한국에서도 즐겨먹는 “비엔나커피”를 본고장에서 먹어보자고 하여 선 뜻 응하였으나 맛은 별로였다.

○ 넷째 날 2006. 9. 2

《헝가리→부다베스트》

1시간여 동안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곳 역시 끝없이 펼쳐지는 황금의 평야가 전개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공영으로 경작되는 해바라기농장, 옥수수밭, 약간의 포도밭, 동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동력 풍력기가 평화로운 대자연속에 느리게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라의 면적은 93,000km²동유럽국가 중 40여 년간 공산국가로 있다가 16년 전 동베르린장벽의 붕괴와 함께 자유주의로 독립된 국가로서 과거에는 깊은 역사를 지닌 부강한 국가였다고 한다.

1900년도까지는 왕국으로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70%가 산악지대라면 이곳은 70%가 평야이며 곡창지대를 접경하여 다니브강이 유유히 흐르는 지역이었다.

차창가로 유유히 흐르는 “다니브” 강을 보며 1960년대 청년시절 작곡자와 작사는 잘 모르나 가수 “백호”가 부른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라고 하는 노래를 콧노래로 흥얼거려 보았다. 유럽지역의 젊줄이라고 하는 “부다”-산을 가리키며, “베스트”-평지를 가리키는 성지로 구성된 통합대도시로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가 즐겨먹는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이곳 “부다베스트”라는 것이었다. 식사메뉴는 계란후라이, 돼지고기, 야채 등 한식에 가까운 맛있는 저녁식사와 소주한잔이 양수로 먹고 싶어졌다.

다음날 “부다”쪽 해발 250m에 위치한 “겔레르트” 전망대에 있는 요새 “칠라데트” 성에 올라 한눈에 전개되는 “세체니” 다리를 볼 수 있었으며 내려다보이는 다리는 영국형 다리로서 사자의 다리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곳 전망대에서 도시의 중앙 “부다” 지역과 반대편에 있는 “베스트” 지역을 구분하여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주택형태가 “오스트리아”는 상가연립이라면 이곳 헝거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2차대전 이곳 성은 정치범수용소, 고문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곳이기도 한데 70%가 소련군에 의해 파손되었고 복원된 노력의 흔적도 엿보였다. “부다”지역에 위치한 “어부성”은 기마민족의 이동으로 유목민족이 정착한 곳으로서 “다니브” 강 유역에 흥수가 범람하면 “부다” 지역에 많은 고기가 잡혀 900년경 7개부족의 헝거리인이 정착하여 살던 성이라 한다.

기원전 3세기경에도 고대 로마식 요새를 구축한 곳이며, “다니브” 강을 이용하므로 전쟁에 유리한 이곳을 독일이 점령하여 요새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천수가 많은 곳이기에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한 성지라고 한다.

이곳 성안에는 왕의 이름을 딴 “마차시성당”이 고딕양식으로 고풍의 자태로 높이 솟아 있었고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때를 맞춰 미사의 종소리가 맞이해 주었는데 본 성당은 150년 동안 터키 지배하에 이슬람교회 사원으로 사용했던 역사를 안고 있었다.

오늘 “페스트” 시가의 온도는 초가을에 접어드는 다소 쌀쌀한 날씨였고 이곳 시의 주연료는 가스이며 전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재미나는 것은 가정집에 굴뚝청소는 공무원이 이행하는데 청소하는 날은 그 가정에 축제일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 내륙지방이고 기후의 영향으로 식생활에 천연소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음식이 매우 짠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9월 3일은 공휴일이라 거리는 한산한 편이었고 공원에는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곳 거리 또한 노숙자(집시)들이 길가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조각공원에서는 거리의 악사들이 “헝가리무곡”을 연주하며 무언으로 협찬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거리에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은 대부분 경차로 다양하며 차량골동품의 집결지라 착각할 정도였다.

전차, 지하철, 전기버스, 전차, 전 유럽을 연결하는 기차역 등 역동하는 한나라의 수도를 돌아보며 우리일행은 기마민족의 역사의 현장을 관광하고 있는 것이었다.

시민광장에 놓여 있는 “영웅광장”에 들려 7개 부족장의 기마동상, “마흐메드”에게 하늘의 계시를 전했다는 “가브엘 천사의 동상, 권력과 자유, 평화와 전생”을 기념하는 각종 조형물을 돌아보고 다음일정에 임했다.

○ 다섯째 날 2006. 9. 3

《스로바퀴야》

유럽중앙 내륙에 위치한 연방제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국가 중 최고의 생활수준과 높은 문화를 유지한 공업국가로서 1993년 1월에 체코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서 해발 2,663m에 놓여있는 국립공원 “타르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자크파테로”로 이동하는 중홍천원장이 준비한 CD로 모짜르트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우리일행은 여독을 풀며 여행을 하고 있었다.

산림지대와 경사지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역을 S자형의 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안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전형적인 농촌풍경을 만끽하며 산악중턱에 자리한 “마라호수”, “리프타” 호수를 볼 수 있었다.

“타르라” 산맥중심으로 산림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많은 스키장이 보였고 산림업, 목축업, 스키관광업이 이 나라 주산업이라고 한다. 폴란드 “크라카오”로 가기위해 이곳 “그레이드 프라하호텔”에서 일박하고 산장을 출발 할 때는 전날과는 달리 날씨가 매우 쾌청했으며 제2의 “알프스”라고 하는 “타르라” 산의 천년설을 뒤로한 채 “크라카오”로 향했다.

○ 여섯째 날 2006. 9. 4

《폴란드 → 크라카오》

“폴란드” 수도는 바르샤바이며 남부지방은 산악지대로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

다. 동부유럽에서는 문화, 관광의 메카, 1000년 동안 “카톨릭” 역사를 지닌 나라로서 문화재 보관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중의 한 나라다. 또한 “폴란드”는 이웃 동맹국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주변 열강국들에게 3차에 걸쳐 분할 점령당하면서 123년간 고난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세계2차대전 당시 동유럽권에서 가장 피해를 적게 본 나라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 대학은 640년 전에 건립되었고 노벨상 수상자 “쾨리부인”이 탄생한 나라, 평화의 사도 전 교황 “바오로2세(26년 간 임. 2005. 4. 2서거)”가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다. 해발 250m에 위치한 도시, 기온은 15°C 매우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자연 그대로의 전원과 콘도, 스키장들을 차창으로 바라보면서 “슬로바퀴아”와 “폴란드” 국경에 도착하여 출입국수속을 마치고 12시경에 “크라카오”에 도착하였다.

넓은 “잠코비” 광장은 동구원에서 가장 큰 광장($200\text{m} \times 20\text{m}$)으로 많은 관광객이 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구시가지 앞에 자리한 쿠라쿠프 성마리아성당은 13세기 고딕양식으로 건축한 건물로 매우 섬세하고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광장 오른쪽에는 폴란드 왕 가의 거주지로 사용하던 붉은 색 왕궁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것을 1972년 국민의 성금으로 복원됐다는 설명과 함께 과연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성금으로 복원된 건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았다.

《폴란드 : 비엘리츠카→소금광산》

우리일행이 이곳 암염광산에 도착했을 때는 타국의 관광객이 거의 없어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지하갱으로 내려 갈 수 있었다. 표를 구입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약간의 시간이 있어 역내 안내소에 들려 책자를 살피는 중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를 보고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냐고 어설픈 영어로 묻는 것 같아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 의외로 반기며 한국어로 된 여행안내 책자를 주었다.

나는 친절에 감사하고 차례가 오기에 197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금광산 700계단을 내려갔다. 굴의 연장 길이가 320m나 된다고 하며 관광할 수 있는 길이는 150m이며 지하깊이는 64m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곳 개내지하를 떠받들고 있는 동발(기둥)이 한국에서 수입한 소나무(적송)라는 사실이었다.

1,000년의 카톨릭 역사를 가지고 문화재를 보관하여 온 나라, 123년 간 나라를 잃고 고난을 겪은 나라, 많은 침공을 받으면서 항거 하였기에 2차대전 때도 전쟁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유물들이 손상되지 않았었다. 개내 수십 개의 방에는 광부들에 의하여 만들 어진 여러 가지의 기념조각들이 있었고 특히 소금호수에서는 쇼팽의 음악이, 또 다른 방에서는 “폴란드” 악사들의 협주를 들을 수 있다 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700년 동안에 걸쳐 약 $2,600\text{m}^3$ 의 암염을 채굴했다는 넓은 광장에는 전설 속 8명의 난장이 요정조각, 말과 광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방들 -킹카공주를 기념하기 위한 “킹카성당” 3명의 광부에 의하여 조각된 “성안토니우스성당” 성서장면을 묘사한 부조와 “성가족조각” 소금결정체로 조각한 아름다운 “상들리에” 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벽화로 하늘의 영광을 착시현상으로 나타내는 “최후의 만찬”의 조각상, 십자가

등이 우리들을 압도했고 내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 황금의 염광이 예술의 혼을 일깨워 주는 듯 했다. 1시간40여분동안 엄청난 현장을 관광한 후 지하 135m지점에서 30초 만에 지상으로 치솟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세유럽 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로천카페”, 고딕양식으로 건축된 세계적인 최고의 “성마리아 성당”을 돌아보았다. 오늘 하루 관광을 하며 종합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시내 전체가 “고딕양식”으로 건축된 세계 최대의 석탑들이며, 신의 조화를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 섬세한 조각상들, 지리적 여건 속에 그 당시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적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짧게 느껴지는 하루 동안 카톨릭, 문화권의 A.Q 라 할 수 있는 도시와 관광지를 돌아보며 나라전체가 “카톨릭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일곱째 날 2006. 9. 4

《폴란드 : 바르샤바—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

아침일찍 호텔정원을 조깅 후 양식으로 아침식사를 끝내고 “바르샤바”로 출발을 하였다. 계절의 변화가 무쌍하다고 하는 초가을 날씨속에 우리일행은 2시간 후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정문에 도착을 하였다.

이곳은 1940년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이 비밀리에 거대한 수용소를 건설하여 25만 명의 유대인과 군포로는 물론 정치범을 수용하고 학살한 현장. 말과 글로 영화로 수 없이 보아온 비극의 현장을 내 발로 서니 그때 그들의 발소리가, 신음소리가, 울부짖음이 나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허구의 구호를 새겨놓고 400만 명을 노동과 질병과 독가스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현장, 수용소 4동→5동→6동 앞에 세워진 추모비를 보고 5년간 악몽의 비극이 이곳에서 자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나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나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였을 때 “나치스”에 협력하여 번 돈으로 전쟁이 끝날 무렵 이른바 “쇤들러리스트”를 작성하여 전 재산을 바쳐 1,200만 명의 유대인을 구한 성인이라 할 수 있는 그를 생각해 보았고 또한 “안네의 일기”가 생각났다.

전쟁 중 은신하였다가 아버지와 언니가 함께 이곳 수용소에 잡혀와 고생을 하다 타감옥으로 이송되어 장티프스에 걸려 사망한 “안네프랑크”의 애틋한 죽음을 연상해 보았다.

1945년 독일군이 퇴각시 5동에 그대로 보관된 유물들, 1병으로 150명을 죽였다는 산적한 가스통, 30평에 700명을 몰아넣어 죽인 가스실, 대기 장소, 취사장, 사형틀, 병원 막사, 전류철조망, 감시망대 등 참으로 비참한 그대로였다. 우리일행들의 얼굴에는 침묵과 어두운 그림자가 역력히 서려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가이드의 설명만 듣고 있었다. 1979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박물관을 나설 때 나의 가슴은 울렁거렸고 내 눈에는 이슬이 맺혀져 있음을 깨달았다. 후문에 이르렀을 때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역사를 기억 못하는 자는 역사를 이끌 수 없다”라고. 민간인 수용소였던 이곳을 20,000평을 용도 변경하여 전쟁전성기에는 “제르만”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인

종말살정책”으로 일반인 15,000명, 소련인 10,000명 불구자 외 여호와의 증인, 정치범, 유태인 등 40,000명이 이곳 수용소에서 처참히 살해된 세기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고 -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나라가 구소련이었다는 사실도- 나의 뇌리에는 수용소에 소장된 유품과 유물들, 기록들을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유엔 연합군은 “히틀러”의 만행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를 방관만 하였나를- 또한 그 엄청난 만행들이 “카톨릭”的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동유럽에서, 그 많은 철탑의 십자가 밑에서 자행되었는지? 그리고 (신)神 이 계셨다면 (신)神 은 그때 어디에 계셨는지? 라는 의구심을 안고 시내로 이동하여 “잠코비” 광장과 “무명용사의 비”를 탐방 후 호텔에 투숙하였다.

○ 2006. 9. 6~7

《러시아→모스크바》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로 가기위해 공항으로 이동, 수속을 끝내고 7번 게이트를 통하여 기내좌석에 앉으니 피로가 가득 몰려왔다. 이륙 후 쾌청한 날씨 속에 유럽의 대평원을 창공에서 내려다보니 지상의 아름다움과 “모스크바”로 가는 외곽의 자연풍경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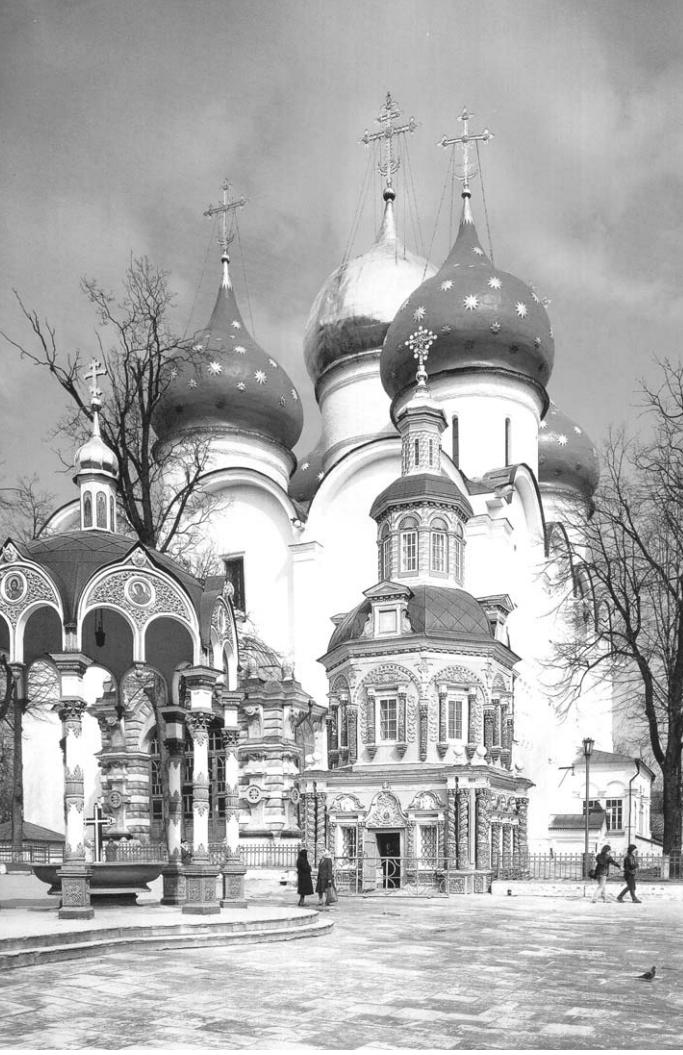
푸른 숲과 아름다운 호수, 별장들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내 눈에 전개되고 있었다. 피로가 다소 가시는 듯 했다.

“모스크바” 비행장은 시내북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도로변 좌우에 심어져 있는 울창한 가로수 숲은 70%가 자작나무로 덮여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적송과 같은 소나무들이 즐비하게 군식되어 있어 매우 보기 좋았었다.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구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 시민의 얼굴표정은 굳어 보였고 외곽의 건물들은 우중충한 검붉은 색의 얼굴을 하고 우리일행을 맞이하는 듯 했다.

세계에서도 면적이 제일 큰 나라, 자국 내에서 끝과 끝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만 11시간이 된다고 하니 그 면적이 가히 짐작이 된다.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모스크바”를 침공하였으나 폭풍설한을 이기지 못하고 퇴각한 “러시아연방공화국”, 1947년에 지하철 건설이 세계최초로 건설된 도시로서 교육, 의료, 전기, 가스공급 등 석유와 지하자원이 풍부한나라. 금의 수도 “모스크바”는 강을 끼고 있었고 오랜 역사를 지닌 “보로비쓰끼” 언덕 위에 자리한 크레믈린 궁전은 대통령이 집무라는 곳이다.

“크레믈린” 궁전은 모스크바 중심에 위치한 건축예술의 기념비로서 위풍당당한 러시



아의 위대한 상징으로 치안은 대체적으로 안전하나 배낭여행은 금물, 영어는 죽어도 안 통하는 나라.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곳, 경찰이 왕국인 나라. 궁전근처에 고층으로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부청사와 구 스탈린시대의 건물들, 5~7층 높이로 제한된 APT, 수도원, 기차역, “모스크바 대학” 등 이 모든 건물들은 “모스크바 강”을 끼고 있었다.

또한 “크레믈린궁전”은 1485년에 이태리 건축예술가들과 건축기사들에 의해 지어졌다 고 한다. 강하고 장엄한 느낌은 성채기능과 관련된 건축물로부터 창출되어 나오는 중세 유럽 건축예술의 제일가는 본보기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석양에 비치는 “크레믈린”的 탑과 성벽전

경, 구세주탑, 삼위일체의탑 외 3대 성당인 성모승천교회, 성수태고지교회, 대천사교회 등을 구경하고 쌍루트호텔에 투숙하였다.

이 호텔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수준은 엉망이었다. 옛날 우리네들의 여인숙 수준에 가까운 시설로 세면기, 침구, 화장실, 출입문, 커튼, 엘리베이터 등은 낡고 불결하여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잠을 설친 탓인지 아침식사도 대충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찾았다.

사회주의 국가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이곳 대학은 30개의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생은 50,000명, 교수는 10,000명이나 된다. 시간상 내부는 관람할 수 없어 수림이 우거진 캠퍼스내 구조물만 보고 “승리의 기념관”으로 이동을 하였다.

우중충한 날씨에 내린 비로 광장전체가 청소라도 한 듯 한결 청결해 보였다. 소련국민이 대 조국전쟁(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뾰꼴론언덕에 승리기념탑과 박물관을 개관한 곳으로 전시품은 1941~1945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실물과 벽화를 입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었다. “승리의 광장”, “전쟁의 세월”이라 이름 붙여진 가로수길, 거대한 청동부조로 장식된 “정교회” 유태교회당, 회교사원이 좌우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건물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파괴한 “문화예술의전당”과 “중앙정부청사” 외의 건물들을 복원, 수리하여 주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은 지금껏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생각할 때 참으로 감회가 컸다. 일행은 중식을 끝내고 “클레믈린” 성벽 북동쪽에 접하고 있는 “붉은 광장”을 찾았다.

다함께 궁전입구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념 촬영을 먼저하고 다갈색의 포석이 깔려있는 (100m×50m) 넓은광장을 많은 인파와 함께 3대 건축양식(고딕.돔.바르크)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외부를 돌아보고 아름답게 장식된 “역사적 박물관”과 특히 “레닌의 묘”, 유명한 “굼백화점”을 구경 후 이동 중에 “구세주예수성당” 앞에 많은 성도들이 미사를 위해 약 200m 가량 줄을 서 입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오늘은 특히 현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한다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다.

우리 일행은 몇 시간 남지 않은 관광일정이기에 전용BUS로 대통령도로라고 하는 궁전 진입로를 따라 “레린 도서관”, 도스또에프스키의 동상, 마네쉬광장, 역사박물관, 국회의사당, 볼쇼비키의 발레극장, 칼막스동상, 공포의 광장이라고 일컫는 KGB건물, 유네스코에 등록된 러시아전통 양식으로 아주 예쁘게 건축된 “바시리성당” 톨스토이 박물관 등을 외형만으로 스쳤다.

이름 있는 이 모든 건물들은 한결같이 “모스코바” 강을 끼고 숲속에 웅장한 자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차이코프스키” 음악가의 궁전 앞에는 “백조의 호수”가 있어 그림과도 같은 백조가 쌍쌍이 노닐고 있는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차중에서 가이드는 러시아가 낳은 인물 중 최초로 우주를 왕복한 “유리가가린”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 해 주었다. 저녁을 바삐 먹고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에 들러 쇼핑을 한 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튿날 나는 인천공항에 내리며 다음과 같이 감사했다.

평균연령이 70세에 가까운 원장분들과 일행들이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번 동부유럽탐방을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이대근 저희장님과 권처장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강원 내일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준 점에 대하여—.





속초등대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동쪽해안가 바위산 정상에 위치한 속초항로표지관리소는 1957년 6월 14일에 등대가 초점등(해무청 묵호지방해무청)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속초항은 예부터 양양군의 문호(門戶)로 알려져 있었으며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존하고 있어 어민의 이주가 점차 증가되면서 어항으로 형성되었다.

1905년 동해 연안항로가 개설되자 기항지로써 기선(汽船)이 입·출항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말부터 본격적인 축항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56년 1월 17일 무인등대로써 속초항등대(백색목조, 섬백광 매5초1섬광 와사등)가 최초로 설치 되었고, 1957년 (구) 속초항등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속초항등대는 폐지되었다.

해발 약40m 높이에 전체면적 약 400평 정도의 속초항로표지관리소에는 등대 1동(동력실 포함)을 포함하여 사무실1동, 숙소2동, 화장실1동이 있었으며, 등대까지 차량진입은 불가능하지만 등대를 둘러싸고 3면에서 산책로, 철재계단 등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였다.

등탑의 구조와 특징

속초등대는 백색원형의 콘크리트구조로써 높이는 10m이다. 설치된 등명기는 BABALT 3등 대형 등명기(1953년 제작, 日本產)이며 4면의 프리즘렌즈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의 직경은

1m이다. 등대불빛은 백색으로서 45초를 주기(1회전)로 4번 깜박이며, 전구는 메탈할라이드 램프(400W)를 사용하여 약 17마일정도 거리(광달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속초등대 등명기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중추식(重推式)등명기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는 등명기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전기시설이 불안정할 때에는 정확한 주기의 확보를 위하여 중추식 회전장치를 사용하였다. 속초등대는 약 200kg중추를 매달아, 한번 감아놓으면 약 7시간 동안 서서히 내려오면서 등명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으로 쓰는 등대가 몇 군데 있었으나, 속초등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운영의 불편으로 전기모터로 대체되었다.

속초팔경 제1경, 속초등대와 그 주변자연경관

속초등대는 해안가의 입지적인 특성상 연간 방문객이 10만명에 다다를 정도의 관광지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등대아래 해안도로에서 다소 힘들지만 195개의 철계단을 이용하여 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동쪽, 남쪽, 북쪽으로 시원한 동해바다와 서쪽으로는 설악산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속초팔경(束草八景)중 으뜸으로 소개되고 있다. 전망대 1층에는 항시 개방하여 등대내부 공간과 각종장비 들을 볼 수 있도록 홍보전시실을 설치하였으며, 등대관련 및 각종 해양수산자료들을 게시해 놓고 있었다.

속초등대가 있는 바위산은 과거 바다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이곳이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말 속초항 개발 때, 이 바위산에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영금정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바위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곤 하여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명명된 것으로 전한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청초호·영랑호 유원지, 주변에 자리한 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해상관광으로써의 속초항의 주 기능과 연근해 어업 전진기지 역할 증대, 속초/러시아 자루비노 및 블라디보스톡 항로에 카훼리 선박이 운항되고 있는 등 속초항은 그 역할과 중요도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속초등대 또한 보다나은 해상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종합정비를 추진하여 등대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해양관광지로써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속초항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속초등대는 앞으로도 계속 속초항의 관문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7번지	
최초점등일	1957년 6월 8일	
광파표지	기 종	BABALT 3등 대형 (220V - 400W)
	등 질	섬백광 18초 4섬광 FL(4)W45s
	광달거리	지리학적 19마일, 광학적 26마일, 명목적 17마일 (31km)
음파표지	기 종	공기압축기 (에어사이렌)
	취명주기	매 45초에 1회 취명 (취명 5초, 정명 40초)
	음달거리	3마일 (5.5km)

▶ 주요연혁

1957. 06. : 해무청 묵호지방해무청 (등대신설 최초점등)
 1961. 10. : 교통부 묵호지방해운국 속초등대
 1976. 03. : 항만청 묵호지방항만관리청 속초등대
 1977. 12. : 해운항만청 묵호지방해운항만청 속초등대
 1980. 05. : 해운항만청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속초등대
 1988. 08. : 해운항만청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속초항로표지관리소
 1996. 08.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속초항로표지관리소
 1997. 05.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항로표지관리소

□ 속초등대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

추진 배경

♣ 해상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항로표지 기능개선

- 항행선박의 대형화 및 통항선박의 증가
- 등대주변 고층건물의 야간 배후광 증가에 따른 항로표지기능 장애

♣ 기존 구조물의 노후에 따른 개선필요

- 등대시설 노후로 인한 구조적 안전 위협요소 발생
- 연간 약 10만명이 찾고 있는 해양관광명소로써 시설물 노후로 인한 방문객 안전 사고발생 우려 및 해양친수공간 부족에 불편 초래

♣ 공사개요

- 공사명 :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종합정비공사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7
- 부지면적 : 14,540m²(4,398평)
- 사업기간 : 2005. 04. 1~2006. 12. 05

♣ 사업개요

구분	세부시설규모	비고
■ 등탑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등탑높이 28m)▷ 각층구성 (지상 3층, 연면적 547.94m²)<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사무실, 기계동력실)· 2층(홍보전시관)· 3층(옥외전망대)	
■ 직원숙소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2층/4세대)▷ 연면적 : 415.88m² {1세대 : 107.9m²(32평)}	
■ 홍보관 및 등대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관 및 등대공원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항만 소개, 항로표지업무 홍보코너, 속초항 디오라마- 등대공원 조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마당, 전시물, 산책로, 주변 환경보수	



여름방학 별자리체험 프로그램

- 플라네타리움 천체체험, 별자리 및 태양계 찾기 -

김 은 중 / 속초문화원 간사

속초문화원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이제 2년 차가 되었다. 처음 방문할 때는 무척 고민도 하고 어렵게만 느끼던 문화원이 이제는 우리 집처럼 친근감이 더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스스로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지킴이로서 깊음을 발산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여름방학 별자리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무척 분주한 일정을 보낸 것 같다. 처음부터 인원제한을 둔 모집과 1~2차로 나눠 진행하기까지

몸과 마음만 바빠 어떻게 다녀왔는지도 모를 정도다. 문화원 계획에 의해 어린이 여름방학 교실, 별자리체험프로그램, 설악의 작은콘서트, 대한민국음악대향연 부대행사와 연계된 일정 속에 어느 것 하나 소홀치 않은 사업이라 부담감도 컸다.

그러나 별자리체험 프로그램은 계획과는 달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여러 강사들이 지역을 벗어나 또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체험학습이라 매우 뜻 깊은 인상을 받았다

는 점이었다. 우리 전통악기와 전통춤은 매번 교육에서 접하였기에 다들 조금은 익숙했지만 4계절의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우주를 일상적으로 느끼던 바와는 달리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내내 몰랐던 내용에 쑥스러움이 앞섰다.

여름방학을 이용 별자리체험 프로그램은 자연과 벗 삼아 천문관측의 기회를 마련하는 문화체험으로 여름장마가 있는 계절이라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힘든 일정 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었다. 또한 참가자 역시 기대 반 흥분 반으로 출발일까지 재차 확인 및 독촉을 받으며 1, 2차 모두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이면서 문화체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 가슴벅찬 감은 남았지만 더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 행사였다.

금번에 진행한 프로그램은 천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어려운 것이면서도 쉬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체험여행으로 참가자와 우리 모두 홍분의 도가니속으로 몰아 아름다운 세상의 엿보기와 함께한 우주여행이었다.

속초를 출발하여 두 시간 정도의 거리에 도착한 우리는 횡성 우리별 천문대까지 버스이동이 불가하여 10여분 정도 땀을 흘리며 올랐다. 나름대로 참가자 일부는 불편을 토로했지만 이내 짐을 풀고는 우리별 천문대 배려로 개울가에 모여 즐거운 물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더위를 식히면서 자연 생태

까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기대에 부푼 우주여행을 떠났다.

[플라레타리움 천체체험]

모두들 플라레타리움 안으로 들어가 원기둥을 중심으로 둘러 누웠다. 그리고 잠시 후 불이 꺼지면서 천정에는 별들이 가득 차있었다. 하나하나 별들을 돌려가며 선생님께서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등 황도12궁 12개의 별자리를 알려주셨다. 별들의 이름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목동들이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별들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별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신기한 우주여행 속으로 빨려 들었다.

[별자리 및 태양계 찾기]

캄캄한 어둠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며 우리는 제일 밝게 빛나는 별부터 찾았다.

그것은 시리우스별이다. 태양계를 둘러가며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를 살펴볼 땐 하얀색(마차부자리의 카펠라 별)과 노란색(황소자리의 알데바란 별) 별의 빛깔을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것도 별을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설명에 새로움을 배웠다는 점에 가

슴 한쪽 쪐에서 흥분이 앞서곤 했다.

별자리 감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한다. 첫째로, 육안으로 별이나 별자리를 찾아본다. 둘째로, 쌍안경을 이용해 조금 더 크게 본다. 셋째로,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하나의 별을 밝기와 빛깔 등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관찰한다.

넷째로, 장시간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둇자리를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가장 좋다.

별빛을 감상 후 아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님과 떨어진 이 낯선 곳에서 모두 집은 잠시 잊은 듯 캄캄한 하늘만 바라보며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다 잠자리에 들었다.

6시가 조금 넘은 이른 아침, 집에 있으면 한참 꿈속에나 있을 아이들이 깔깔대며 시끄럽게 하는 통에 잠이 깼다. 모두들 즐거움에 미소가 머금고 밤새 공부하고 연구한 별자리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며 다들 강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보내고 어제배운 것을 관찰일지를 작성하며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환경오염과 과학의 발달, 인공의 불빛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로지 오염되지 않은 어둠에 빛나는 것이라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뿐이다.

이렇듯 캄캄한 밤에 자연이 주는 가장 미묘한 감동적인 경험에 있었던 별자리 체험프로그

램은 함께 했던 아이들에게도 오늘의 이 감동을 잊지 않고, 밤하늘의 별을 가슴에 새겨, 항상 빠르게 변화하고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하늘을 보며 가끔은 마음의 여유와 하늘이 주는 큰 세상을 간직하였으면 하는 바램과 늘 내고장을 지키는 문화전도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란다.

모쪼록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속초시에 감사함을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서 미처 연계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보다 알찬 방학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음을 다짐한다.

제18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2개 부문

문화예술 부문 / 최 흥 영

체육부문 / 권 창 오

수상자 공적사항

【문화예술】

수상후보자	최홍영(崔弘永)	
본적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13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76-9	
소속	예총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직위(직급)	회원	
주천사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p>○ 1958년 지역 원로작가 최구현 사진작가로부터 사진예술을 사사받아 1965년 사진 현상소 “명성사”를 개업, 현재까지 42년간 운영하면서 지역 최고의 연륜과 명성으로 지역사진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p> <p>- 반세기동안 외길 사진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사진예술의 기법 등을 후배 사진예술인들에게 전수하여, 현재 지역에서 상당수의 사진작가들을 입문 시키는 등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1960년 전후로 설악의 비경을 최구현 작가와 더불어 사진예술로 홍보하여 설악산이 국립공원이 되는데 결정적 공훈을 하였음.</p> <p>- 태권도협회, 청년회의소특우회, 바르게살기운동속초시협회장 등 다양한 사회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각종 위문사업, 문예사업, 사회교육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사업을 통한 속초시 발전에 기여</p> <p>- 수십년간 사진작가협회 중앙인준이 담보된 상태에서 속초사진협회장, 작가협회장립추진위원장, 협회명예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진기법전수 및 지도, 공모전 출품 독려, 회원화합 및 친목도모 등을 통해 사진인들의 오랜 숙원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p> <p>2. 주요경력</p> <p>- '65~현재 사진현상소 명성사 개업</p> <p>- '99~'01 속초사진협회 2대 회장 역임</p> <p>- '00~'02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속초시 태권도협회 회장 역임</p> <p>- '02~'05 바르게살기운동 속초시협의회 회장 역임</p> <p>- '06~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도지회 감사</p> <p>3. 수상경력</p> <p>- '95 내무부장관 표창</p> <p>- '01 대통령 국민포장</p> <p>- '02 제16회 강원사진대전 입선, 제11회 보령전국사진공모전 입선</p>	

수상자 공적사항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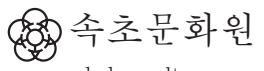
수상후보자	권창오(權昌悟)	
본적	강원도 속초시 교동 645	
주소	강원도 속초시 교동 현대2차아파트 202동 906호	
소속	속초시 태권도협회	
직위(직급)	회장	
추천사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년 4월 1일부터 태권도 통일체육관을 개관하여 15년째 속초시태권도 활성화 및 지역체육 발전에 앞서오면서 그동안 1천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으며,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및 강원도민체육대회에 1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활동하여 옴.○ 70년대 젊은 시절에는 속초시 대표선수로서 도체전에 수회에 걸쳐 출전한 사실이 있으며 지도자로서는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여 강원체육고, 강원사대부고, 서울공곡고, 금오공고 등 태권도 특기생으로 명문태권도학교에 진학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1월 26일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영북지역에서 최초로 “우수도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1996년 6월에는 강릉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교동초등학교 지도사범으로 선수들을 출전시켜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음. <p>2. 주요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79 속초시태권도 대표선수(1981 공군참모총장기 우승)- '95~'04 속초시 협회 전무이사, 실무 부회장- '99~'00 강원도협회 상벌위원회, 기록분과위원- '92~'04 소년체전 및 도민체전 코치 · 감독- '05~현재 속초시 태권도협회장 <p>3. 수상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 대한태권도협회장 표창- '99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 수상- '03 강원도 태권도협회장 표창- '04 세계태권도연수원(국기원)장 표창- '05 태권도지도관 중앙본관 삼위대상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직위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자 택	핸 드 폰	
원 장	노광복	속초 중앙동 468-142	632-8907	010-7320-8907	청구문화장학재단총무이사
부원장	오윤근	교동 656-5 13/2	633-8817		청운독서실 대표
	최현식	삼성쉐르빌 103-1503	633-2632	011-363-2632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이 사	고석철	노학동 삼환@ 107-602	632-0811	011-366-0811	동해용역(주) 전무이사
	고재양	교동 780-60 15/3	633-4931		교사(전)
	김길정	조양동 721-1 13/2	633-4756	011-376-1218	강원도의회 의원(전)
	김병학	중앙동 503-44	632-6400	016-9346-6400	속초요리학원 원장
	김상복	교동 동부@ 107-701	633-8512	016-757-8512	(주)금강케이블넷 대표
	박상열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637-5080	011-366-3339	풍원기업사 대표
	박영남	동명동 산 60-1	637-4040	010-8228-4040	(주)사공수산 대표
	어재석	중앙동 468-67	633-2069	011-9886-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엄시용	교동 654-3	637-0337	010-7677-9655	성우산업 대표
	오상현	청학동 483	631-2156	018-208-4550	갤럭시 대표
	유문승	동명동 466-56	631-9946	632-0994	중원한의원 원장
	윤광훈	교동 692-2 이정종합광고	631-5704	011-375-5740	이정종합광고 대표
	윤숙자	교동 627-42 19/5	633-4014	019-541-4014	설악유치원 원장(전)
	이병길	중앙동 479-1	632-5782	017-370-5050	예림건축사
	이병선	교동 동부@ 107-1906	638-6386	011-9028-3419	강원도의회 의원
	임호성	조양동 성호@ 101-1104	633-2178	011-375-3656	속초시의회 의장(전)
	전복식	금호동 E-편한세상@ (대림) 106동 1502호	631-7130	011-373-4847	대우파크(설악산) 회장
	허춘권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631-5767	010-3955-5078	속초간호학원 원장
	박정은	금호동 484-7 동제약국	633-2211	011-9939-2212	동제약국
감 사	박정기	조양동 230 연회동	636-7667	011-9791-7025	설청로타리클럽 대표
	양재호	교동 627-32 21/6	633-4661	011-362-4661	교육행정공무원(전)
사무국	한정규	교동 966-12	635-5933	011-362-1224	사무국장
	장은선	조양동 코아루104-1303호	636-4344	019-9151-4344	사무과장
	김은중	동명동 44번지	632-0687	011-9373-2633	사무간사
	최택수	영랑동 동현@ 101-802호	632-9217	011-9879-6250	설악문화제 사무간사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주 소	연 락 처	자 택
권순옥	속초시 동명동 450-73	017-383-3466	633-3466
권영석	속초시 교동 737-1414호	011-365-2248	638-2999
권종식	속초시 교동 대명 늘푸른APT 101/1303	010-9169-9769	633-4633
김경선	속초시 조양동 1398-6	017-232-8189	633-4042
김계남	속초시 조양동 1516번지 금강산고속관광	010-3118-2244	638-0113
김귀선	속초시 조양동 코아루APT 104동 805호	017-317-8070	635-3118
김기순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66-5	011-9799-4173	633-2553
김남범	속초시 영랑동 570-5	017-371-7296	638-7296
김동연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118-6749	369-2977
김동하	속초시 조양동 대명4차APT 804호	011-9879-9200	636-1063
김성하	속초시 청호동 1352-7	017-372-6717	632-6717
김영환	속초시 교동 1/4	018-514-5546	635-5546
김정환	속초시 동명동 우령3길 5호	016-481-8462	
김철수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604동 304호	016-523-7908	633-7908
김철한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301-1002	011-9058-6523	632-6523
김춘형	속초시 동명동 6/2 450-176	016-212-9398	
김태희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023-5829	
박경순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 1305호	010-6379-5422	636-1515
박난영	속초시 중앙동 중앙빌딩 7층	011-362-2303	635-4925
박명선	속초시 영랑동 양우APT A동 504호	011-370-8085	633-8082
박정숙	속초시 조양동 성호APT 104동 207호	010-8586-5758	
박천웅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6-389-0138	
박치영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878-8709	
손병섭	속초시 교동 명지 미래힐APT 106동 1004호	011-368-2897	631-2897
신우근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367-2148	
유영순	속초시 교동 속초대명1차 1405호	010-3222-7344	637-7344
유인혜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904동 406호	010-5668-3117	636-3117
이경우	속초시 영랑동 200번지 동현APT 102동 904호	011-207-4264	633-3907
이복례	속초시 노학동 980-33	010-6789-6884	636-3606
이영주	속초시 영랑동 6/5		633-4748
이재선	속초시 노학동 삼환APT 105-1204	011-307-7541	635-7541
이정옥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10-803	016-621-4065	633-4065
이형찬	속초시 영랑동 대명드림빌 1207호	011-9244-6343	636-6343
이혜정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 -103	010-9502-1113	
임희영	속초시 영랑동 570-2 갯마당	011-9155-5379	633-6250
장계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번지 호수미을APT 115-603호	011-9021-8664	480-4297
장성구	속초시 조양동 1500-1 삼성화재설악사업소	011-375-8505	632-0823
장용근	속초시 동명동 577-36	011-375-7569	631-0569
전성호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9737-2955	
정연숙	속초시 조양동 동명APT 디동 304호	010-6797-6550	633-6550
정재승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23번지	011-748-2630	
정종천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1-347-5344	636-4344
조동대	속초시 조양동 1034-49 청초프라자 117호	017-589-8182	636-3844
주동진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7-370-6069	633-6069
지용준	속초시 교동 럭키APT 6동 506호	010-9798-8815	
최동춘	속초시 중앙동 1통 6반		632-5300
한경태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017-376-3738	
한남호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 -103	010-7929-1112	
한태우	속초시 교동 삼환APT 107동 301호	011-9613-8182	637-9804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속·초·간·호·학·원



속초간호학원은 간호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성의 완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서 취업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호 기술은 취업과 더불어 생활의 필수적인 육아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환경위생 등 건강관리에도 평생 활용되는 전문기술이며 귀중한 지식입니다.

국가로부터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돋는자를 돋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내일과 아름다운 꿈을 저희 속초간호학원에서 이루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속초간호학원

강원도 속초시 교동 908-10
교동 천주교성당 후문 앞
전화 : (033) 633-5767



설악한화리조트 부지내 설치된 대조영 드라마세트장인 씨네라마 개장식이 11월 29일에 있었다.

드라마대조영 세트장은 2만7,000여평의 부지에 총 102동의 건물이 들어섰으며 고구려 및 당나라 황궁, 성곽과 가옥 등 반영구 건물로 세트장 건립예산을 포함 총 5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개장과 함께 일반인의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6,000원으로 투숙객에게는 20%,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30%, 레포츠회원은 40% 할인률을 적용하며,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지역주민은 일반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전화 (033)632-1231, 639-2439 전송 632-1241
홈페이지 : 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에서는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속초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